

저자 (Authors)	이태호, 이동국, 이재준, 하수봉
출처 (Source)	<a href="#">연구보고서 7</a> , 2004.10, 1-1(130 pages)
발행처 (Publisher)	<a href="#">명지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소</a> ACADEMIA COREANA
URL	<a href="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796142">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796142</a>
APA Style	이태호, 이동국, 이재준, 하수봉 (2004). 추사 김정희 관련 유적복원 및 학예관 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 연구보고서, 7, 1-1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210.178.101.*** 2020/03/20 15:09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추사 김정희 관련 유적복원 및  
학예관 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

과천시·명지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소

## 제 1 장

과천시절의 추사 김정희  
(67-71세: 1852-56년)

## 1. 북청 유배 후에 자리잡은 과천

추사의 북청 유배 생활은 1851년부터 2년간 이어졌다. 그가 해배되어 되돌아간 곳은 용호의 강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과천의 과지초당(瓜地草堂)이었다. 이는 과천에 도착한 추사를 북청으로 돌아가는 아전 편에 북청의 벗에게 보낸 10월 9일자 편지에서도 알 수 있다.<sup>1)</sup>

여기서 과천의 초당이란 부친 김노경(金魯敬, 1766-1886)이 살아생전 마련해둔 별서(別墅)로 보통 과우(果寓)라고 불렀다. 1824년, 추사가 나이 39세로 규장각 대교를 지내고 있을 때 부친 김노경은 59세로 대사헌·이조판서 등 청요직을 두루 거쳐 한성판윤으로 있었다. 이때 김노경은 이곳에 야산과 밭을 구입하고 과지초당이라는 초당까지 지었다. 이 사실은 당시 김노경이 청나라 등전밀(鄧傳密)에게 보낸 편지로 알 수 있다.

성(城, 한성) 가까이 집터를 마련하고 새로 작은 집을 지었으니 자못 원림(園林)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연못가에 서까래 몇 개를 이어 붙이고 편액으로 과지초당 혹은 춘추휴목(春秋休沐)이라 하였습니다. 바쁜 중 날을 택하여 다소나마 아름다운 정취를 누릴 수 있으니 옛사람의 도를 빌렸다고 하겠습니다.<sup>2)</sup>

추사 부자는 간혹 이 과지초당 별장을 즐겼던 것 같다. 그러다 1837년 3월 30일, 김노경이 7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을 때 추사는 선친의 묘소를 바로 이곳 과지초당 뒷산에 마련했고, 추사는 여막(廬幕)에서 3년상을 치렀

1) 먼 포구에서 이별한 뒤... 남쪽으로 걷고 또 걸어... 이달(10월) 초아흐렛날 비로소 과천 집에 당도하였습니다. 그 다행스러움이란 비할 데 없는데, 친척들과 정든 대화를 나누자니 다시 세상에 태어나 만나는 것만 같습니다. 아전 최씨[崔吏]가 돌아간다고 이와 같이 간략히 알려 드립니다. 임자년 10월 18일 노완(老阮). 「완당의 편지」, 『박물관신문』 1976. 1/2월호.

2) 『과천 관련 추사 김정희 연구보고서』, 한신대 박물관, 1996.

다. 그리고 5년 전 제주도 귀양살이에서 돌아와 강상에 살고 있을 때 선친의 묘소를 다녀간 것을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과지초당을 집으로 삼아 찾아온 것이다. 과지초당은 청계산 옥녀봉 남쪽자락 아래 마을이다. 그래서 추사는 과천 집을 청계산과 관악산 사이의 집이라고 해서 곧잘 “청관산옥(靑冠山屋)”이라고 부르곤 했다. 이러한 사실은 김정희가 달준에게 써준 시첩 『청관대』에 청관산옥이라고 낙관한 대표적인 작품에서 알 수 있다. 이 글에서 그는 “청관산옥에서 여름날 한가하게 운을 받아 지으며 무료해서 써본 것”이라고 했다.

과천에는 또한 추사의 아버지 김노경의 묘소가 있다. 그 위치는 청계산 옥녀봉 중턱 검단이라는 곳인데, 돌무게 마을에서 걸어서 한 시간 남짓 걸리는 제법 높은 곳이라 전망이 좋고 서울의 강남 강북이 일망무제로 한눈에 들어온다. 북쪽으로는 북악산·인왕산·남산 등 서울의 산세가 다 들어오고, 동쪽으로는 추사가 과천시절에 그렇게 자주 들렀다는 봉은사(奉恩寺)와 무역센터가 선명히 다가온다. 그러나 김노경의 무덤은 1968년에 면례(緬禮)됐다.

## 2. 과천 시절 벗들과의 교류

과천시절 추사는 예전처럼 많은 벗들과 교류했다. 만날 수 있으면 만나러 갔고, 몸이 아파 움직이기 힘들면 방문을 청하기도 했고, 편지로라도 벗에 대한 그리움을 달랬다. 이처럼 벗들과의 교류하면서 추사 만년의 학예와 인생은 더욱 원숙의 경지에 들게 된다.

### (1) 권돈인과의 교류

추사의 평생 동지, 평생 지기는 역시 권돈인(權敦仁, 1783-1859)이다.

추사와 함께 유배에서 풀려난 권돈인은 이후 경기도 광주(廣州) 퇴촌(退村)에 새 집을 마련하고 여기에서 만년을 보낸다. 권돈인의 퇴촌 집은 중부고속도로의 건설로 사라져버렸지만 서울 교외의 별장으로는 최고의 명당으로 손꼽히는 아늑한 양택이었다. 지금의 번천초등학교가 있는 동네였는데 이곳은 17세기 조선백자 번천리가마터가 있던 곳이다. 동네 앞으로 흐르는 내는 본래 별천[별을천伐乙川]이라고 했는데 나중엔 번천(樊川)이라고도 했다. 추사는 권돈인에게 자식·아우도 모르는 일까지 털어놓을 정도로 친했고 죽는 해까지도 벗으로, 동학(同學)으로, 무엇보다도 학예의 동지로 끊임없이 교감했다. 자신이 세상을 떠나는 병진년(1856)까지 권돈인에게 작품 품평을 요구할 만큼 권돈인은 추사 예술의 훌륭한 동반자였다.

## (2) 정학연·학유 집안과의 교류

과천시절 추사는 다산 정약용의 아들인 유산 정학연, 운포 정학유(丁學游, 1786-1855)와도 친교를 계속하였다. 강상시절부터 이미 깊은 교류가 있었던 이들의 우정은 북청 유배시절에도 편지를 주고받으며 이어졌는데, 과천으로 돌아온 추사는 뱃길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이들 형제와 더 쉽게 만날 수 있었다. 정학연이 마침 회혼(回婚)을 맞음을 알고 추사는 그 축하의 뜻을 전하면서 방문을 청했던 적도 있다. 물론 정학연이 과천으로 추사를 만나러 왔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추사가 두릉(杜陵)의 여유당(與猶堂)으로 찾아갔던 자취는 남아 있다. 여유당 소장헌 앞에는 강 마을의 탁트인 풍광이 한 시야에 들어온다. 강 건너 남쪽으로 보이는 그 마을은 당시 나라에서 운영하는 백자가마가 있는 분원(分院)이고, 그 옆 산자락은 권돈인의 별서가 있는 퇴촌이다.

## (3) 석파 이하응과의 교류

추사가 귀양에서 풀려난 것을 누구보다 좋아한 이는 석파(石坡) 이하응

(李昞應, 1820-98)이었다. 그는 추사의 강상시절에 『난보』를 얻어 난초그림에 취미를 붙이고 있었는데, 이내 추사가 북청에 유배되었으므로 이 난초그림 교습은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석파는 난초그림을 열심히 연마하며 추사가 어서 풀려나 난초그림을 지도해주길 바랐다. 석파의 난초그림이 추사를 얼마나 본받았는가는 <난맹첩>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추사가 이상적에게 그려준 <목란>과 훗날 석파가 그린 <목란>을 비교해보면 이 대담한 구도의 난초그림들에서 서로 통하는 기를 느끼게 한다. 석파는 어느 날 자신이 그린 난초그림을 추사에게 보내 품평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추사는 석파의 멋진 난초그림을 보고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추사와 석파의 교류는 추사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계속되었고, 추사의 가르침은 난초뿐만 아니라 글씨에까지 미친다. 석파는 추사 서파(書派)의 빼놓을 수 없는 후계자라 할 수 있다.

#### (4) 침계 윤정현 등과의 친교

침계(樅溪) 윤정현(尹定鉉, 1793-1874)은 추사가 북청에 유배되었던 시절 뒤를 돌보아주던 인물이다. 추사가 과지초당으로 내려온 지 얼마 안 된 12월 29일, 때마침 침계 윤정현은 함경감사에서 돌아와 이조판서를 제수 받았는데, 이를 계기로 추사와 더욱 빈번히 교류할 수 있었다. 그의 제자 되는 어당 이상수 역시 과천으로 추사를 찾아와 배움을 구하였다.

그리고 북청 유배시절에 그곳에서 만나 아까운 인재라고 칭찬했던 요선 유치전과 이름이 확인되지 않는 윤질부와의 교류도 빼놓을 수 없다. 유치전이 서울로 찾아와 추사와 침계 윤정현, 어당 이상수, 이당 조면호, 소당 김석준 등을 두루 만나고 간 흔적은 곳곳에 드러나 있다. 그렇지만 윤질부는 상경한 자취가 보이지 않고 추사가 북청으로 보낸 편지만 몇몇 전하고 있을 뿐이다. 한편 추사가 북청으로 보낸 편지 중에는 윤생원에게 보낸 것도 하나 전하고 있는데, 추사의 나이 69세 때인 갑인년(1854) 간지(干支)가 있는

이 편지는 내용과 글씨 모두에서 만년 추사의 삶과 예술을 극명하게 전해주며 그의 만년 글씨를 연구하는 데 한 기준 작이 된다.

북쪽 구름이 아득한데 해를 보내고도 편지를 받지 못하니 우울하기가 마치 밤털을 씹은 것 같았는데 김초시가 와서 비로소 반가운 편지를 받았고 아울러 질부의 편지도 얻으니 가슴 가득히 흐뭇합니다. 저의 모습은 여전히 낡은 집에서 어리석게 나머지 한 가닥을 간신히 버틸 뿐입니다. ... 제대로 갖추지도 못하고 길게 쓰지 못합니다. 갑인 2월 29일 노완.

北雲渺茫 經年不接來信 紆鬱如吞栗蓬 卽從金初試 始得良醞 ?質夫書 欣至滿心... 拙狀依舊瓦癡??殘縷而已... 不備抱長 甲寅 二月二十九 老阮.

## (5) 고승들과의 교류

추사는 과천시절에 스님들과의 만남이 더욱 잦았고 또 교류 범위도 넓었다. 그런데 추사와 스님들과의 만남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역시 차(茶)이다. 그는 초의(草衣 意恂, 1786-1866)가 보내주는 것, 제자들이 연경에서 구해 준 것으론 만족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불가불 조선 차의 원산지라고 할 수 있을 쌍계사의 스님들과도 인연을 맺었다. 그러나 추사는 스님들과 단순히 시·서·화·차 같은 여기(餘技)로 만난 것이 아니었다. 추사는 불심(佛心)이 돈독하여 염불신앙을 강조하기도 하고 불화를 보시까지 하였다. 직지사 성보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추사가 영하(映河)라는 스님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관음탱(觀音幀)을 보내주는 내용이 기록되어있다.

...들에는 꽃이 피고 새가 우니 만물이 한결같이 봄기운을 띠고 있어 사람으로 하여금 비단결 같은 꿈을 꾸게 하는군요. 보내오신 편지를 받아보니 번풍선(番風禪)임을 알게 되어 위안이 됩니다. ... 관음탱을 수습하여 금명간에 표구가 다 될 것 같으니 스님[瓶錫]을 한번 보내서 가져가십시오.

### 3. 과천시절의 제자들

#### (1) 이당 조면호

노년의 외로움을 달래준 제자들 중에서 이당(怡堂) 조면호(趙冕鎬, 1803-87)는 가장 반가운 제자였다. 조면호는 김정희 누나의 사위였다. 추사는 그래서 그를 더 귀여워했는지도 모른다. 이미 옹호의 강상시절부터 추사는 그에게 많은 글씨를 써주었다. 훗날 조면호는 과천으로 이사해서 추사를 모시고 절에 다니기도 하면서 그를 모시고 살았다.

#### (2) 동암 심희순

추사의 예술의 본령은 역시 글씨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과천시절 추사가 심혈을 기울여 글씨를 가르친 제자는 동암(桐庵) 심희순(沈熙淳, 1819-?)이었다. 그는 추사가 강상시절부터 애제자로 삼았던 인물이다. 그런 심희순에게 자기 몸에 잘 어울리는 법첩을 열심히 임모하여 그 기본동작을 익히고 그 다음에 발전시키라는 가르침을 내렸다. 그러다 심희순의 글씨가 일정한 진도를 보이자 추사는 다른 범본으로 <예학명(瘞鶴銘)><sup>3)</sup> 탁본을 보내주며 격려한다. 그리하여 심희순의 글씨가 기대대로 예학명 글씨의 신수(神髓)를 얻는 듯한 기미를 보이자, 추사는 이를 칭찬하고 격려하며 남들이 혹 험뜯어 말해도 흔들리지 말라는 당부까지 한다.

3) <예학명>은 강소성 초산(焦山)이라고 불리는 양자강 한가운데 있는 작은 섬에 있다. 한 은일자가 사랑하던 학이 죽자 그 죽음을 애도하며 쓴 글을 바위에 새긴 것이다. 그런데 이 마애각석은 벼락을 맞고 양자강 속으로 빠져 전설 속의 글씨가 되었다. 그러나 북송 때 어느 흑심한 가뭄에 이 깨진 마애각석이 모습을 드러내자 가뭄 때면 이 글씨를 보고 탁본하러 오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들은 이 글씨를 본 감회를 초산의 바위에 새겨놓아 초산은 온통 글씨로 덮이게 됐다. 그러다 1713년에는 진봉년(陳鵬年)이라는 사람이 물 속에 있던 다섯 동강이 난 <예학명> 마애각석을 모두 끌어올려 복원하고는 비각을 세웠다. 그래서 <예학명> 탁본은 물에서 꺼내기 이전의 고탁(古拓)을 수전본(水前本)이라고 한다. 오늘날 이 <예학명>은 513년 도홍경(陶弘景)이 쓴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한때는 왕희지 글씨로 생각됐던 서예사의 고전이다.

### (3) 소당 김석준

과천시절 추사가 가장 아낀 제자는 소당(小堂) 김석준(金奭準, 1831-1915)이라고 할 수 있다. 김석준은 중인 출신 역관인 김계운(金繼運)의 아들로서 본관은 전산이다. 그 역시 아버지를 따라 역관을 했다. 그의 자는 희보(姬保), 호는 연백당(研白堂)이다. 특히 지두서(指頭書)를 잘 써서 스스로 묵지도인(墨指道人)이라고 불렀다. 이상적의 문하생인 김석준이 추사와 연을 맺은 것은 동갑내기 역매 오경석과 함께 스승을 따라 추사의 과천 집에 드나들면서부터였다. 김석준은 사람이 영민하고 품성이 좋았다고 전해지는데, 그 때문인지 스승들에게도 총애를 받아 추사는 글씨와 시를 직접 지도해주었고 아끼는 책들과 서첩도 빌려주었다고 한다. 특히 추사는 다른 사람의 부탁은 잘 들어주지 않아도 김석준의 청이라면 뭐든지 들어줄 정도였는데, 누구보다도 김석준을 위해 많은 글씨를 써주었다. 결국 사람들은 김석준을 통하여 추사의 글씨를 구하기도 했다 한다.

### (4) 고람 전기

추사는 과천에 머물면서 예전과 다름없이 예림계를 이끌었다. 그리하여 소당(小塘) 이재관(李在寬, 1783-1837)의 <천지석벽도>나, 소치(小痴) 허련(許鍊, 1809-92)의 <소림산수도> 같은 작품에 화제를 직접 써서 제자들을 고무시켰다. 그런 제자 중 추사의 서화정신을 가장 잘 예술적으로 구현한 이가 바로 고람(古藍) 전기(田琦, 1825-54)<sup>4)</sup>이다. 그의 본관은 개성이며 자는 이현(而見), 호는 고람 외에 두당(杜堂)이라고도 했다. 전기는 서화 모두에서 천재적 기량을 발휘했다. 고람의 나이 비록 15세였지만 『예림잡을록』 모임에서 추사는 그의 글씨 대련에 최상등(最上等) 점수를 내릴 정도였다. 고람은 스승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열심히 서화를 연마했다. 사실

4) 전기의 아호인 고람은 추사가 자신보다 더 나은 제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푸른 빛이 쪽에서 나오나 쪽빛보다 더 푸르다(靑出於藍 靑於藍)”는 말에서 따다가 지어준 것이다.

『예림갑을록』은 고람이 스승의 가르침을 은뎀으로 익히기 위하여 “옛날 광주리 속에서 추사공의 평어(評語)를 찾아내어” 옮겨 써놓은 기록이다. 고람은 이 기록을 정리하면서 “한번 읽어보니 말은 간략한데 뜻은 원대하여 경계하고 가르침이 정성스럽고 정성스러워 잘하는 자는 더욱 정신차려 정진하게 하고 잘못하는 자는 두려워하여 고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추사는 고람의 〈추산심처도(秋山深處圖)〉를 다음과 같이 평했다.

쉴쉴하고 간략하고 담박하여 자못 원나라 사람의 풍치를 갖추었다. 그러나 요즈음에 갈필 쓰기를 좋아하는 이로는 석도(石濤)와 남전(南田)만한 사람이 없으니, 다시 이 두 사람을 따라서 배우면 가히 문인화의 정수를 얻을 수가 있을 것이요, 한갓 그 꺾데기만 취한다면 누가 그러하지 못하겠는가.

고람은 스승의 이런 가르침을 잊지 않고 따랐다고 한다. 그러나 추사가 『예림갑을록』이 있는 이듬해 제주도에 유배되어 10년간 서로 만날 수 없었고, 강상시절 2년 뒤에는 다시 북청으로 유배되었으니 가르침을 받을 기회가 없었다. 하지만 고람은 스승의 뜻을 받들었고, 훗날 추사의 과천시절에도 그 연을 끊지 않았다.

## (5) 역매 오경석

김정희의 예술에 대한 안목은 역매(亦梅) 오경석(吳慶錫; 1831-1879)에게 전수된다. 오경석은 중인 출신으로 16세 때 역과(譯科)에 합격한 다음 23세 때인 1853년에 처음 연경에 통역관으로 사신을 따라간 뒤 49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26년간 무려 13차례나 중국에 다녀왔다. 또한 그는 개화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어린 시절 그는 김석준과 함께 이상적의 제자였으며 20대 초반 무렵부터 이미 과천의 추사를 만났다. 비록 중인 출신인 그의 영민함을 보고는 추사는 곧 제자로 삼았고 서화·금석에 대한 감정안 전수했으

며 그런 오경석은 뒷날 『삼한금석록(三韓金石錄)』을 완성한다.

추사의 영향은 오경석을 통해 그의 아들 위창(葦滄) 오세창(吳世昌; 1864-1953)에게 전수됐다. 오세창은 독립선언의 토대를 마련했던 33인의 한 사람이다. 개화기 그의 역할을 모른다더라도 그가 한국 서화사에 남긴 업적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다. 그의 서화사 연구에 대한 기록은 육당 최남선이 쓴 「위창 서재 탐방기」에 아주 자세히 기록돼있다. 그런 위창의 노력은 『근역서화징(槿域書畫徵)』(1928)으로 결실은 맺어졌다. 또한 위창은 간송 전형필 선생의 고서화를 감정해주어 오늘날 간송컬렉션이 빛나게 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제 2 장  
과천시절 추사 김정희의  
유적들

## 1. 과지초당(瓜地草堂)에 대한 고증

### (1) 과지초당의 건립 배경

과지초당은 추사의 친부인 김노경(金魯敬)이 한성판윤을 지내던 때인 1824년 과천에 마련한 별서(別墅)의 이름이다. 김노경은 조선 후기 문신으로 자는 가일(可一), 호는 유당(酉堂)이다. 그는 월성위(月城尉) 한신(漢蘊)의 손자로 1766년(영조 42년)에 나서 1837년(헌종 3년)까지 살았는데, 후에 대사헌을 거쳐 판의금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친 인물이다. 이 별서는 당대 김노경 가문의 위세를 반영하듯 그의 환갑을 앞두고 직접 마련한 별장이었다. 한편 이시기 추사 김정희의 나이는 39세로 규장각 시교를 지낸 뒤였다.



김노경은 익종이 대리청정할 당시인 1830년 지돈녕부사의 중직을 맡아있으면서 김로(金鏘), 홍기섭(洪起燮) 등과 함께 전권을 행사하고, 이조원(李肇源)의 옥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삼사와 의정부의 탄핵을 받았다.

그 결과 강진의 고금도(古今島)에 위리안치(圍籬安置)되었다가 3년만에 풀려나 복권됐고, 판의금부사를 지낸 뒤 4년만에 죽었다.

후손들이 그를 처음 모신 장소가 바로 과지초당 인근 청계산이었다. 추사는 과지초당에서 3년을 머물면서 상을 지냈고, 1852년(철종 3년) 함경도 북청 유배에서 해배된 뒤에도 이 근처에서 머물렀다는 사실 고려해봤을 때 당시 과지초당과 청계산 일대가 경주 김씨 일가에게는 삶의 터전이 아니었나 하는 추측을 낳게 한다.

## (2) 과지초당의 위치

### 1) “주암동 돌무께”라는 설

1970년대 조사에 따르면 과지초당 자리가 “주암동 돌무께”라는 주장이 있다. 이런 설이 성립하게 된 근거는 족보에 기록된 부친 김노경의 묘소지명의 내용과 추사의 묘비명에 기록된 내용이다.

경주 김씨 족보에는 김노경의 묘소지명이 준리(蹲里), 즉 주암리(蹲岩里)로 되어있다.<sup>5)</sup> 그리고 충남 예산군 신암면 용궁리에 있는 추사 김정희의 묘비문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철종 신해년에 권 상국 돈인이 종묘의 예문을 논박하다가 권신 척신에게 거슬려 연산으로 유배되고 선생은 주사에 좌좌되나 웃으며 말하고 손수 서책을 정돈하며 북청으로 옮겨 떠났다. 임자년에 풀려 들어와 과천 유당공(김노경)의 묘소 아래서 5년간 살다 죽었다...<sup>6)</sup>

5) “初墓 始興郡 果川面 蹲岩里 丁坐,” 「佐郎公后(文貞公系)」, 『慶州金氏 太師公派 大同譜』 권3, 1999.

6) ...哲宗辛亥權相國教仁駁議宗?之禮?權威竄連山先生坐主使遷北靑先生談笑手整書?而行壬子宥遷居果川酉堂公墓下五年而卒...

이를 보면 추사가 말년에 아버지 묘소 근처에 기거했었던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굳이 과지초당을 그저 두고 다른 곳에 거처를 마련했을 리는 없으므로 그가 과지초당에 머물렀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내용을 근거로 1975년 성균관대학교 김구용 교수는 과지초당의 위치를 추정했다. 그는 당시 성균관에 있었던 김익환(金翊煥, 1898-1978)의 증언에 따라 족보에 기록된 준리의 위치를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김익환은 추사의 재종손으로 일제 때 『阮堂先生文集』을 펴낸 인물이기도 하다. 당시 김구용이 김익환을 알게된 것은 예산 용궁리의 추사 유품 소장가인 김성기(金聲基)으로부터이다. 김구용의 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 (1974년) 11월 29일/ 성균관에서 김익환옹과 인사는 처음했으나 전에 많이 본 분이였다. ‘ 과천읍에서 약 10리쯤 가면 주암리(注岩里)인데 속칭 돌무개라 하지요. 그곳은 귀양살이에서 풀려온 추사공의, 요새말로 말하자면 거주제한(居住制限) 지역이었지요. 그러니 수난과 가난으로 집안이 오죽했겠습니까. 어쨌든 추사어른은 결국 주암리에서 세상을 떠나셨고 운구된 첫 장지가 예산 신안(新案, 신암新岩을 잘 못 씀)입니다. 주암리엔 가좌야 동네에 우물이 둘 있는데 텃밭 아래 우물이 그 당시 사랑채 뜰 아래 있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7)

김익환의 이러한 주장에 따라 김구용은 이듬해 실제 답사를 떠난다. 그는 거기서 돌무개 마을이라는 곳을 직접 보았고, 그 우물의 실체도 확인하게 된다. 그는 이렇게 적고 있다.

“ 1975년 9월 28일/ 김영환(金榮煥) 교수, 김영준 상무와 함께 버스로 출발. 안양에서 점심 식사하고 다시 버스로 떠나 과천으로 간다. 오늘에야 완당(阮堂)선생 계시던 곳을 찾아가는 길이다.... 과천읍에 내렸을 때는 비가 개었다. 돌무개(注岩里)로 10리 길을 걷는다....가까운 관악산은 거칠기만

7) 김구용(金丘庸), 「백화실일기(白華室日記)」, 박물관신문 53호, 1975(11월 1자).

하고 멀지도 않은데 장안(長安)은 아득한 것만 같았다. 논일하는 사람에게 물었더니 거대한 석유탱크가 보이지 않는 위치로서 두 다리(脚) 사이 같은 좁은 골에 감나무 우거진 몇몇 집들이 소위 동네를 이루고 있었다.... 벽에 가려 보이지 않으나 우물인 것만은 확실하였다. 그렇다면 완당선생이 거처 하였던 집터가 여기일 것이다. 쪼그리고 앉아 둘러보니 거치른 관악산을 그나마 효과 있어 바라볼 수 있는 지점이었다.

건너편에 뻗은 언덕 위 나무들이 보기 거슬리는 관악산 부분을 가리고 그 윗부분만 살려 놓았다. 선생의 기품에 비해 터가 메마르고 적막했다.

...

우물 뒤편인 집으로 들어가 이영안(李英安)옹과 인사를 나누었다. ‘어떻게 알고 오셨나요. 이곳은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집도 완당 선생이 사셨던 터지요. 이 동네 땅도 다 모(某)씨의 소유며 이 일대가 녹지로 묶여 있어요. 선생 유물이나 필적은 동네에 없습니다.’ 고 한다... 시흥군 과천면 주암리를 떠나는데 이옹과 그 자제 이연원(李連元)씨가 앞을 안내한다. 10리만 가면 말죽거리로 나서게 되며 거기서 239번 시내버스를 타면 을리로 6가에 내릴 수 있다고 친절히 알려준다...”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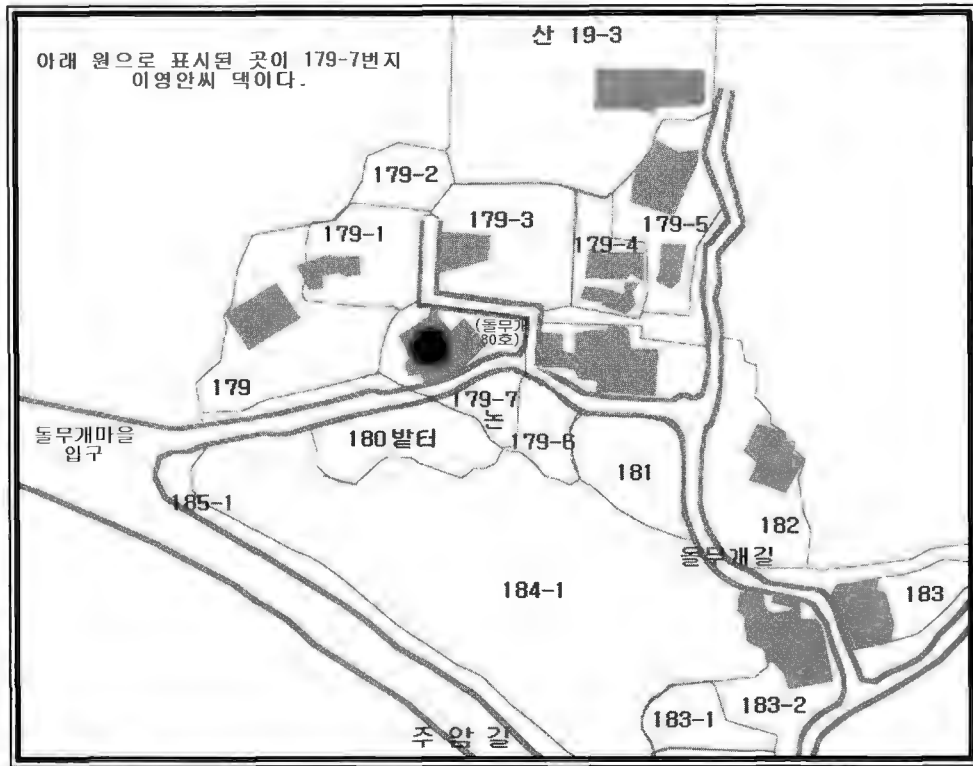
결국 김구용의 주장은 김익환의 보고에 근거하여 실제 답사에서 이영안을 만나게 되고 그의 진술에 따라 이영안의 집터가 추사의 우거지였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본 연구의 조사 결과 고 이영안 댁 위치는 주암동 179-7번지이다. 마지막 현장 조사 때 확인한 결과 도로 확장 공사로 인해 그 댁 전체가 사라져버리고 터만 남아있었다.

---

8) 김구용, 같은 곳.

김구용의 주장에 따라 돌무개 마을의 과지초당 터를 추정하면 아래와 같다.



## 2) “과천시 주암동 179-1번지” 라는 설

한편 단국대학교 사학과와 송실대학교 소재영 교수는 과지초당의 위치를 1970년대 김구용의 주장과 다른 곳으로 지목했다. 단국대학교 사학과 조사보고서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주암동 179-1번지 임경출씨 덕 가옥의 모습. 과지초당이 있었던 자리에 새로 지어진 건물이다. 약 50여년 정도 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는 허물어지고 빈 터만 남아있다.

“ 이번 조사에서는 만년의 추사가 우거했다는 곳을 찾기에 노력하였다. 현재 주암동 99번지 3호에 거주하는 이덕만(李德萬, 당시 72세)씨의 말에 의하면, 현재의 주암동 179번지 임경출씨 덕이 곧 추사가 우거했다는 터였다고 한다. 그러나 과지초당의 모습은 이미 옛 모습을 확인할 수 없도록 변해 있었고, 추사가 마셨다는 ‘독우물’ 도 논의 한 귀퉁이를 가리키며 이 곳이었다고 말할 뿐이다. 현재 임경출택은 바깥채와 안채로 구성되었고 터도 120평이다. 안채는 스투치지방이 근래 건축한 모습이고, 바깥채는 지은 지 40여 년 되었다고 한다. 이 바깥채 대들보에 ‘乙亥年陰二月二十九日’ 이라 기록한 상량문은 1959년인 듯하다. 마을 사람들도 이 집의 변천은 거의 알지 못한다. 이 우물지는 추사가 살았던 과지초당에서 약 20m 정도의 거리가

고, 여기서 북쪽을 바라보면 과천에서 양재로 통하는 대로가 보인다.”<sup>9)</sup>



과지초당터로 추정되는 179-1번지 뒷 산의 솔밭 풍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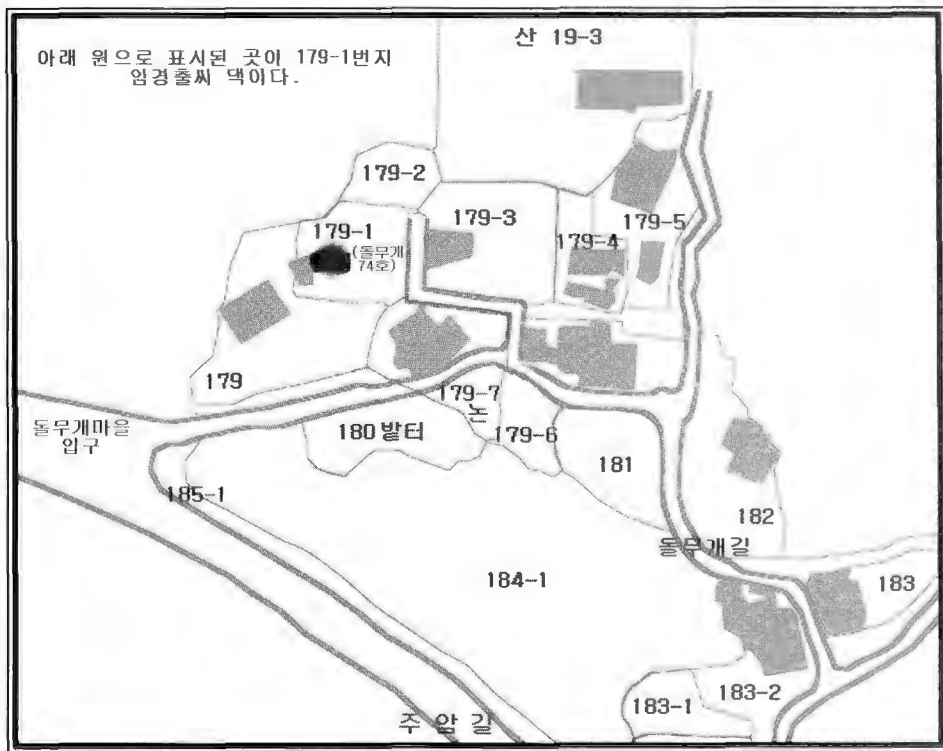
그런데 이듬해 소재영은 단국대학교의 위 조사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보완한 주장을 낸다. 그는 주암리에서 13대째 살아왔다는 이만봉(李萬奉, 당시 83세)의 진술을 추가했다. 그에 따르면 과지초당의 자리는 다음과 같다.

“ 이곳은 현재 행정구역상으로는 과천시 주암리 179번지로 되어 있다. 과천에서 양재로 통하는 자동차 대로를 한참 달리다 보면 바른 편으로 청계산이 마주 보이는 분재단지 사이로 겨우 자동차 한 대가 지나갈 만한 사잇길이 나타난다. 이 길로 들어서서 경마장쪽을 향해 가다 죽바위(죽바위) 중촌마을을 지나면 윗편으로 속칭 돌묵계(斗墨階)라는 조그마한 마을이 얼굴을 내민다. 십여 호가 웅기종기 모여 있는 양지바른 이곳 마을이 바로 140여년 전 북청 귀양길에서 돌아와 기거하던 추사 김정희 선생의 자취가 남아 있는 땅이다. 13대째 대대로 이 마을에 살아왔다는 이 마을의 이만봉(83세) 노인은 옛 과지초당이 있었다는 현장을 친절히 안내해 주었다.

9) 단국대 사학과·과천시, 「과천 청계산·우면산 일원 문화유적지 지표조사보고서」, 1994.

옥녀봉의 한 자락이 왼쪽으로 감돌아 꼬리를 감추는 양지바른 기슭에 100여평은 됨직한데 지금 옛 자취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현재 임경출이란 분이 사랑채와 안채를 나란히 짓고 살고 있다. 예부터 이 마을에는 돌이 많아서 돌무개(돌목계)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나 믿을 수 없고, 한때는 석포동(石浦洞)이라고도 불려졌으며, 지금은 과천시 주암리로 초당이 있었다는 지점 일대가 179번지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원래 시흥군 과천면 주암리는 줄바위(注岩) 돌무개(石浦) 삼부골(三浦)이 합쳐진 마을이름으로, 1986년 과천이 시로 승격되면서 주암동이 되었다.(『과천향토사』 하, 673면 참고)] 이만봉씨에 의하면 자신이 어릴 때 이 초당에는 추사의 후손인 김익환이란 사람이 살았는데 성균관대학교 관리사 일을 본다고 하였으며, 그런 얼마 후 그는 집터까지 팔았을 뿐 아니라 옥녀봉 증택의 임야 14정보까지 매각해 버리고 이 고장을 떠나버렸다는 것이다”<sup>10)</sup>

이러한 주장에 따라 위치를 표시해보면 아래와 같다.



결국 단국대 사학과의 조사보고는 1994년 당시 거주자였던 이덕만의 진술

10) 소재영, 「추사의 유배생활과 과지초당」, 『서울문화』 2집, 서울문화사학회, 1995.

에 근거해서 그 지역 거주자였던 임경출의 집자리(179-1번지)라고 결론지었다. 또한 소재영은 단국대 사학과와 조사보고서를 조금 더 보완했다. 그는 당시 원주민중 가장 오래 거주했던 이만봉의 진술을 통해 임경출의 집자리가 원래 추사의 후손인 김익환이 거주했던 곳이었으며 훗날 그가 과지초당으로 추정되는 집터를 매각했음을 증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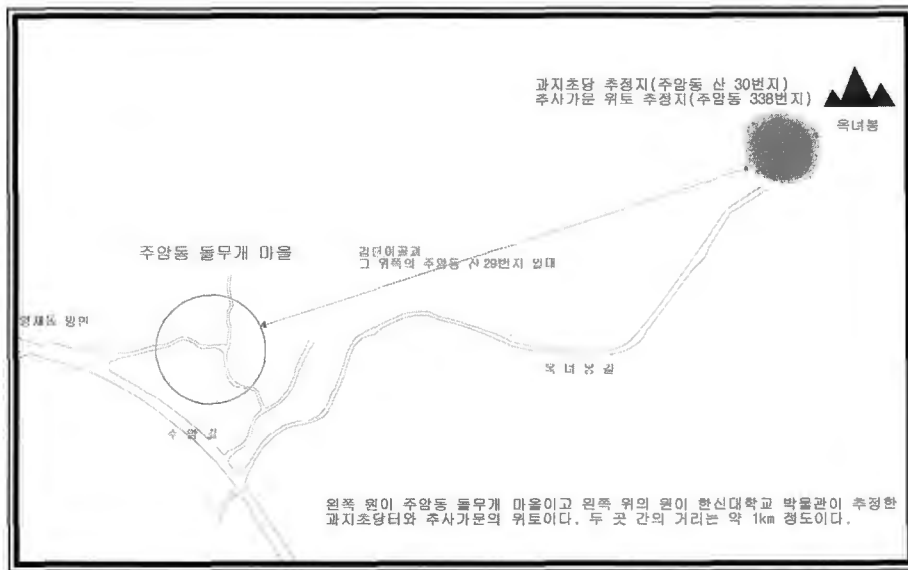
### 3) “주암동 30번지” 라는 설

1995년 소재영에 의한 조사보고의 근거가 됐던 이만봉의 진술은 1996년 한신대학교 박물관의 조사 때 크게 달라졌다. 당시 이만봉은 주암동 179-1번지 일대가 원래 추사가 기거하던 과지초당이라고 진술했으나, 추사의 막내 동생인 김상희(金相喜)의 5대손 김기홍(金基洪)과 이만봉 자신 그리고 여타 마을 주민의 진술은 이와 달랐다. 지난번 이만봉이 지목했던 곳은 사실상 이만봉의 종손이 살던 곳으로 과지초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한신대 박물관은 “과천시 주암동 179-1번지” 라는 설을 일축하고, 대신 김기홍의 진술에 따라 과지초당의 자리를 주암동 산30번지로, 또 주암동 338번지 일대 토지가 김노경의 묘를 관리하기 위한 위토(位土)로 보고했다. 그 보고의 내용은 이렇다.

“과지초당(瓜地草堂)/ 과지초당은 추사의 생부이신 유당 김노경이 순조 24년(1824년) 갑신(甲申)에 청계산 북쪽 옥녀봉 일대에 자신의 묘소 자리를 마련하고, 그 아래에 별서(別墅)겸 묘(墓)로 마련해 놓은 집의 당호(堂號)이다. 이 과지초당의 위치에 대하여 현재까지는 주암동 179번지의 임경출씨의 집으로 추정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는 돌목계 마을 주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한 것인데, 이번 조사 결과 이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마을의 최연장자이며 15세에 이곳으로 시집와서 지금까지 계속 살아왔다는 179번지 17호 거주 경주 김씨라고 밝힌 할머니(89세), 그리고 이미 작고한 경주 김씨 할머니의 남편과 8촌이 되는 이만봉씨(84세)의 증언에 의하면, 현재 임경출씨 집은 이만봉씨 집안의 종손이 살던 집이었다고 한다. 또

한 김기홍씨의 증언에 의해서도 이 마을 내부에는 과지초당이 없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조사단은 이곳이 과지초당 자리가 아님을 확신하고, 역시 이만봉옹과 경주김씨 할머니의 증언에 따라 예전 산제(山祭)와 유당 묘소에 제를 지내곤 했다는 터인 옥녀봉 초입의 분지가 과지초당 터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였다. 이 터는 현재 지변상에는 과천시 주암동 산 30번지로 되어 있는 17,851평방미터 넓이의 임야 일대이다. 이곳은 옥녀봉과 그 서북쪽 굴바위산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평평한 분지 형태를 이루고 있다. 좌우로는 옥녀봉과 굴바위산에서 흘러내려온 계곡이 이곳을 감싸고 휘돌아 나가고 있다. 또한 이곳에서 정면으로는 관악산 전체가 한눈에 잡히고 좌로는 옥녀봉 정상이 보이니, 옥녀봉 일원에 별서를 지을 만한 자리로서는 가장 좋은 풍광과 입지를 갖춘 곳을 일견하여 감지할 수 있었다. 또한 계곡의 물은 극심한 가뭄에도 불구하고 마르지 않고 흐르고 있으니, 이 물을 끌어들이어 연못을 만드는 데에도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따라서 조사단은 문헌상의 기록이나 주민들의 일관되고 합리적인 증언 등 확실한 증거가 없는 지금의 단계에서는 이곳을 잠정적으로 과지초당 자리로 비정하고 확실한 증거의 확보는 발굴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sup>11)</sup>

이러한 주장에 따라 과지초당의 자리를 표시해보면 아래와 같다.



11) 한신대학교박물관·과천시, 「과천 관련 추사 김정희 연구보고서」, 중 ‘果川 關聯 秋史의 遺蹟’, 1996.

#### 4) 결론: ‘주암동 179번지 일대’

과지초당의 자리를 두고 크게 두 가지 설이 대립하고 있다. 즉, <주암동 179번지 일대>라는 설과 <주암동 산30번지>라는 설이 그것이다.

##### A. 김구용-단국대-소재영 설

과지초당의 자리가 <주암동 179번지 일대 혹은 179-1번지>라는 설을 지지하는 문헌자료는 1975년 김구용의 주장과 1994년 단국대학교 사학과의 조사보고, 그리고 1995년 소재영의 조사보고 등 세 가지이다.

첫째, 김구용이 내세운 주장의 근거는 추사의 막내 동생 김상희의 직계손인 김익환의 진술과 당시 거주자였던 이영안의 진술이다.

둘째, 단국대학교 사학과가 내세운 주장의 근거는 주민 이덕만(당시 72세)의 진술이다.

셋째, 소재영이 내세운 주장의 근거는 주민 이만봉(당시 83세)의 진술이다.

이들의 조사 결과 <주암동 179번지 일대>는 임경출씨의 집자리로 확인됐다.

##### B. 한신대 박물관 설

과지초당의 자리가 <주암동 산30번지>라는 설을 지지하는 문헌자료는 1996년 한신대학교 박물관의 조사보고서이다. 이 보고서가 내세운 주장의 근거는 마을주민 경주김씨 할머니(당시 89세)와 이만봉(당시 84세)의 진술

과 추사의 방계손인 김기홍(金基洪)의 진술이다.

이 보고서가 기존의 설을 파기하고 새로운 주장을 하게 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이 있다.

첫째, 주암동 179번지 임경출의 집자리는 100여평으로 과지초당이 들어서기에는 소규모다.

둘째, 주암동 179번지는 예전부터 임경출의 집자리가 아니었고, 10대 이상 내려온 이만봉의 종손자였다.

### C. 이상의 주장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결론

우리는 주암동 179번지일대에 대한 토지대장등본과 이연원·이진식의 진술을 근거로 A의 주장(김구용-단국대-소재영 설)이 더욱 신빙성을 지닌다고 보고 이를 구체화 및 보충하고, B의 주장(한신대 박물관 설)에 대해 반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 a. 익양공파 이근연집안과 추사 집안의 관계

<주암동 179번지에 대한 토지대장의 내용>

1894년 최초 등재된 179번지는 1,868평의 밭터(전대田垞)였다.

소유자는 이운경(李運慶)의 장남 이근연

(李根淵, 주암동 산30번지 소유자)

1932년 소유권이전등기: 서울의 박아무개 외 2인.

1948년 이만봉(185번지 거주)이 일부 구입

1976년 20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

1987년 토지분할등기: 이연원(179-7번지, 돌무개 80호)

이근원의 후손(179-6번지, 돌무개 60호)

이만봉의 후손(179-6번지, 돌무개 84호) 등

이처럼 토지대장등본의 기록을 살펴보면 179번지에는 유독 이씨 집안의 소유자가 많이 등장한다. 더욱이 증언에 나섰던 이영안, 이덕만, 이만봉 등 역시 모두 전주이씨 세종(世宗)의 현손인 익양공파(益陽公派) 봉림수계(鳳林守系)의 자손들이다. 이들이 과천의 돌무개마을에 자리 잡았던 것은 봉림수의 증손인 이수삼(李秀三)대 때부터였다.<sup>12)</sup>

한편 이덕만과 이만봉의 진술에 등장한 임경출의 이름이 토지대장등본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는 이 곳을 임대하여 살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주암동 179번지와 산30번지의 소유자였던 익양공파 이근원의 집안과 추사집안 사이의 관계를 추정해 볼 수밖에 없다.

두 집안 사이의 이러한 관계는 1970년대 김구용의 주장에 등장하는 김익환과 이영안의 진술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판단컨대 이들의 진술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그 진술들이 이제까지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추사시대와 가장 가까운 때 살았던 인물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김익환은 추사의 막내동생 김상희(1794-1861)의 직계손인데, 김상희 역시 말년을 과천에서 지냈다. 왜냐하면 그 역시 추사의 북청 유배 때 관직을 그만 두고 과천에 추사보다 1년 앞서 기거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의 아들 김상준(金商駿, 1819-54)도 과천의 과지초당에 머물렀을 가능성이 높

12) 『全州李氏 益陽公派譜』, 전2권, 1980.

다. 이들 부자의 묘소는 현재 과천 인근의 화성에 있다. 더욱이 김상준의 맏아들이었던 김문제(金文濟, 1861-1931)는 과천에 살고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sup>13)</sup> 그의 장자인 김시원(金始元, 1870-1915) 역시 과천출생으로 구한말 여러 나라를 돌아보고 배일활동을 벌였던 교육자였다. 김시원의 아들이 바로 김익환이다.



주암동 179-7번지 자신의 집앞에 선 고 이영안씨의 아들 이연원씨

또한 두 집안 사이의 관계에 관해서 과거 이영안과 김익환의 친분에 대한 증언이 있다. 이영안의 장남인 이연원씨(68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아버지(이영안)가 이곳에서 이사간 김중환(김익환의 이름이 족보에는 重煥으로 올라있다)과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전쟁 전 내가 철도학교에 가려할 때, 아버지가 무슨 학교 이사장을 하고 있는 그 분(김중환)에게 입학을 부탁했을 정도였지요. (김중환의 둘째) 아들(김기왕 金基汪)이 경찰

13) 『國朝文科榜目』; 그리고 과천문화원, 『과천향토사』, 상권, 1993.; 임기정, 『族譜式榜目列記』, 동광출판사, 2000.

이었고, 가끔씩 주암리에 찾아왔지요. 179-1번지는 김익환씨가 살다가 이사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 뒤 우리 집안 종손이 살다가 수원으로 떠났지요. 현재 179-1번지의 집은 내가 군대갈 때(1958년) 새로 지은 것이네요. 우리 동네에서 가장 오래된 집이지요.

이연원씨의 이러한 또렷한 기억은 사실상 70년대 김익환의 진술이 가장 신빙성있는 것임을 확인케 해준다.

#### b. 김기홍의 증언의 신빙성 여부

그런데 한신대 박물관이 김익환의 아들 김기홍의 진술에 근거해서 과지초당의 터가 주암동 산30번지라고 주장했던 것은 성급한 결론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김기홍의 주장은 그가 어렸을 때의 기억을 토대로 한 것이며, 추사집안의 묘지기였다는 이만봉의 주장이 1년 사이 뒤바뀐 것만으로도 신빙성이 떨어진다.

#### c. 결론

결국 이상의 자료들을 종합해 볼 때 <이근연이 주암동 179번지를 소유이전되기 전 소유자가 추사집안사람이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 곳이 바로 과지초당 터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리고 잠시나마 추사의 막내 동생 상희의 후손인 김익환이 1920년대 일본유학길에 오르기 전까지 과지초당을 유지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일대에 대한 지표조사를 해본 결과 백자와 옹기파편 및 기와조각 등이 출토되었는데, 이는 대략 19세기의 것으로 추정되었다. 각각의 그릇 파편은 시기에 따라 추사 이전 시대, 추사 당대, 그리고 추사 후대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반면 주암동 산 30 번지 일대에서는 이러한 흔적들을 확인할 수 없었다. 물론 이에 대한 정확한 확인은 주암동 179번지 일대에



대한 발굴을 통해 가능한 일일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정황을 종합해보았을 때 이 지역이 추사와의 관련성이 높은 곳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현재 분할 등기 되어있는 179번지가 포괄적인 범위에서의 과지초당 터로 보인다. 그리고 위의 증거들과

현장조사를 종합해서 정확한 위치를 추정하자면 179-1번지와 그 주변 일부가 과지초당의 옛 자리로 판단된다.



주암동 179-7번지 고 이영안씨 맥의 옛모습이다. (2002년 11월 모습)  
이 가옥은 약 150여년 전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는 도로 확장공사로 인해 완전히 유실된 상태이다.

현재 과지초당으로 추정되는 179-1번지 임경출씨의 가옥은 이미 사라졌다. 그러나 추사와 후손이 거주했을 당시의 가옥형태를 보여주었던 179-7번지 돌무개 80호 고(故) 이영안(현재 이연원)의 가옥이 2004년 초까지만 해

도 남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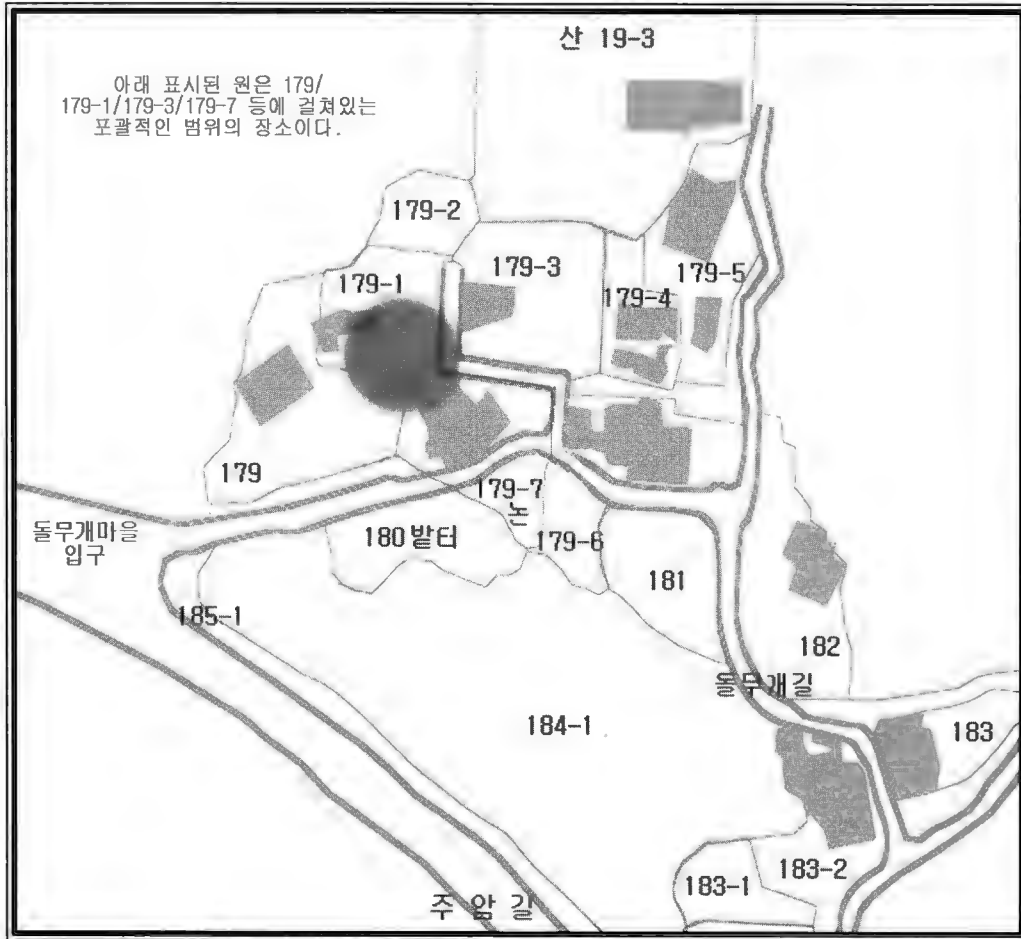
축조된지 약 150여년으로 추정되는 고 이영안씨 덕 처마와 셋가래 모습.

임경출의 가옥은 약 50년 정도된 것이었으며, 고 이영안 가옥은 약 150여년 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영안 가옥의 경우 추사와 그 후손이 살던 시대와 가장 가까울 정도로 옛 흔적으로 고스란히 간직한 주택형태였다는 점에서 복원 가능성을 높여주었다. 비록 부분적인 개보수 작업에 의해 변형된 흔적은 있지만, 보와 셋가래 등은 당대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가옥에 대한 보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번 연구를 위해 현장 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암동 179번지 일대의 도로확장 공사로 인해 이영안의 가옥이 안타깝게도 이미 헐렸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암동 돌무개 마을 입구에서 바라본 모습.  
가운데 179-7번지 고 이영안씨 덕 가옥 잔해가 보인다.

우리의 결론에 따라 과지초당 자리를 표시해 보면 아래와 같다.



## 2. 과지초당 앞에 있었던 우물터 대한 고증

### (1) 배경

추사는 4년간 과지초당에 머물면서 직접 집앞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셨다고 한다. 따라서 과지초당과 더불어 추사관련 유물로서의 의미가 있는 곳이다. 이 우물은 독우물, 즉 항아리로 만든 우물이다. 이 우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밑바닥이 없는 독을 사용해서 이것을 땅에 묻어야한다. 옹정(甕井)이라고도 한다.

### (2) 독우물의 위치

#### 1) 김익환의 진술에 따른 독우물의 위치

1975년 김구용은 추사가 말년에 기거했다던 과지초당을 찾아 나섰는데, 이때 만난 추사집안의 후손 김익환의 진술을 기록에 남기고 있다.

(1974년) 11월 28일/ 첫 번째는 통화중이었고 두 번째 건 전화로 김익환 옹과 통화가 되었다. ‘과천 준리란 곳이 지금 어딥니까?’ ‘지금은 주암리라고 해요. 다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지요. 남은 거라곤 우물이 있어요.’

...

(1974년) 11월 29일/ 성균관에서 김익환옹과 인사는 처음했으나 전에 많이 본 분이였다. ‘과천읍에서 약 10리쯤 가면 주암리(注岩里)인데 속칭 돌무개라 하지요. 그곳은 귀양살이에서 풀려온 추사공의, 요새말로 말하자면 거주제한(居住制限) 지역이었지요. 그러니 수난과 가난으로 집안이 오죽했겠습니까. 어쨌든 추사어른은 결국 주암리에서 세상을 떠나셨고 운구된 첫장지가 예산 신안(新案, 신암新岩을 잘 못 씀)입니다. 주암리엔 가봐야 동네에 우물이 둘 있는데 텃밭 아래 우물이 그 당시 사랑채 뜰 아래 있었던 것이라고 합니다.<sup>14)</sup>

14) 김구용(金丘庸), 앞의 글.

## 2) 단국대학교 사학과의 보고서에 따른 독우물의 위치

현재 주암동 99번지 3호에 거주하는 이덕만(李德萬, 당시 72세)씨의 말에 의하면, 현재의 주암동 179번지 임경출씨 댁이 곧 추사가 우거했다는 터였다고 한다. 그러나 과지초당의 모습은 이미 옛 모습을 확인할 수 없도록 변해 있었고, 추사가 마셨다는 ‘독우물’도 논의 한 귀퉁이를 가리키며 이곳이었다고 말할 뿐이다. 현재 임경출댁은 바깥채와 안채로 구성되었고 터도 120평이다. 안채는 스텔지붕이 근래 건축한 모습이고, 바깥채는 지은 지 40여 년 되었다고 한다. 이 바깥채 대들보에 ‘乙亥年陰二月二十九日’이라 기록한 상량문은 1959년인 듯하다. 마을 사람들도 이 집의 변천은 거의 알지 못한다. 이 우물지는 추사가 살았던 과지초당에서 약 20m 정도의 거리이고, 여기서 북쪽을 바라보면 과천에서 양재로 통하는 대로가 보인다.<sup>15)</sup>

## 3) 소재영의 보고에 따른 독우물의 위치

당시 추사는 집 앞 독우물에서 직접 물을 길어다 마셨다고 하는데 지금 그 우물도 자취조차 없고 다만 길가 이연원씨의 집 앞 이만봉 소유의 논 한 가운데 우물을 메운 자취만 남아 있을 뿐, 비닐하우스 한 동만이 덩그렇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sup>16)</sup>

## 4) 한신대학교 박물관의 보고에 따른 독우물의 위치

독우물터/ 추사가 과지초당에 우거하면서 물을 길러 마셨다는 독우물은 독(항아리)를 묻어 우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다고 한다. 위치는 주암동 179번지 이연원씨 집 앞이었다고 하나, 현재는 우물을 메워 논이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우물은 돌목계 마을의 공동우물이었을 가능성이 크고, 과지초당에서 전용으로 사용하는 우물은 과지초당 내에 따로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sup>17)</sup>

이 주장에 따르면 독우물터는 주암동 179번지 이연원씨 집 앞 논에 있다

15) 단국대학교 사학과·과천시, 앞의 글.

16) 소재영, 앞의 글.

17) 한신대학교 박물관·과천시, 앞의 글.

그러나 한신대 박물관은 과지초장의 자리를 179번지가 아니라 산30번지로 추정했으므로 추사와는 상관없는 우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 5) 결론

독우물터는 과지초당의 위치가 어디에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런데 한신대학교 박물관의 주장에 따라 과지초당의 위치를 주암동 산30번지로 할 경우에는 추사가 과지초당 앞에서 직접 물을 길어 마셨다는 김익환의 주장이나 여타 보고서의 주장은 무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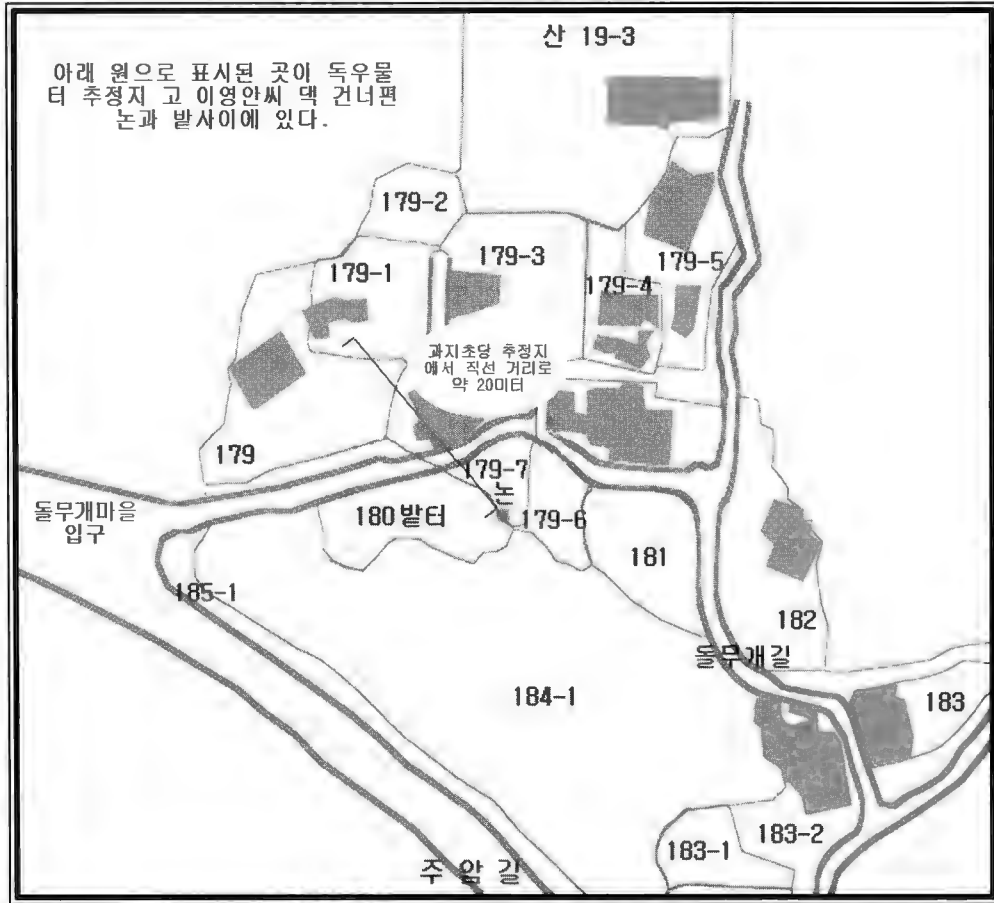
결국 우리의 결론에 따라 과지초당의 자리를 주암동 179번지 일대로 보아야만 독우물터에 대한 주장도 신빙성을 갖는다.

독우물터는 지금까지의 주장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이근연의 집 앞에 있는 밭 가운데일 가능성이 높다. 현재 비닐하우스 내 펌프가 설치되어있다.



추사가 이용했다고 전해지는 179-1번지 이영안씨 밭 앞 논 가운데의 독우물터는 현재 밭으로 변해있다. 멀리 고 이영안씨 밭 가옥 잔해가 보인다.

결론에 따라 독우물터의 위치를 표기하면 아래와 같다.



### 3. 추사의 부친인 김노경의 묘소자리에 대한 고증

#### (1) 김노경의 묘소자리

추사의 친부는 원래 김노경이었다. 그러나 백부 김노영(金魯永)에게서 손이 끊겨 그의 나이 8세 때 그 집 양자로 들어간다. 한편 김노경은 1824년 당시 한성판윤의 자리에 있으면서 자신의 묘자리와 위토를 과천의 돌무개 마을에 마련했다. 그리고 실제로 그가 죽자 추사와 후손은 돌무개 마을 주변의 산에 모셨다. 추사는 그곳에 묘막을 짓고 3년 상을 치렀다.



추사의 생부인 김노경의 묘소가 있던 자리로 추정되는 곳이다. 1970년대 이장된 이래로 다른 집안의 묘가 드러서 있다.

또한 경주 김씨 대동보에는 이장하기 이전 김노경의 묘소는 주암리(躑岩里)로 되어 있는데<sup>18)</sup>, 그 곳은 과천시 주암동 돌무개 마을 일대이다. 김노경의 묘는 1968년 김한신 집안의 선영 유적을 정리하면서 부인 기계유씨와 함께 이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 장소는 현재 ‘禮山 龍山 考墓 局內 癸

18) 『慶州金氏 太師公派 大同譜』, 앞의 글.

坐'로 되어있다. 이 때 김노경의 묘만이 아니라 김노경의 둘째 아들 김명희(金命喜)의 묘도 예산 신암에서 용산으로 옮겨졌다. 뿐만 아니라 그의 김노경의 증손자 김문제(金文濟)의 묘도 같은 해 홍성에서 예산의 용산으로 이장됐고, 그의 장자 김시원(金始元)의 묘도 옥구(沃溝)에서 용산으로 옮겨졌다. 이 대규모 이장을 주도한 인물이 바로 김익환(1898-1978)이다.<sup>19)</sup>

한편 예산에 있는 추사의 묘비문에도 추사 말년의 유배에서 풀려나 죽기까지 5년간을 과천에 있는 부친의 묘소 아래 살았다고 기록되어있다.<sup>20)</sup> 게다가 그의 양자인 김상무(金商懋)의 묘가 예산에 마련된 것에 반해 그의 서자인 김상우(金商佑, 1817-84)의 묘는 과천 준암리에 썼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멀리 보이는 것이 청계산 자락의 옥녀봉이다. 중턱에 김노경의 묘소자리가 있고 그 아래 산 30번지에는 추사가문의 위토가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추사의 사촌조카, 그러니까 김노경의 바로 윗형의 손자인 김상일

19) 『慶州金氏 太師公派 大同譜』, 권3, 권7 참고.

20) 추사 김정희 묘비문, ...而行壬子宥還居果川酉堂公墓下五年而卒...

(金商一, 1794-1858)과는 막역한 사이였는데 그 역시 과천의 초당에 기거했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북청의 벗에게 보낸 한 편지(1852년 10월 18일자)에서 추사는 “과천 집에 당도하여 친척들과 정든 대화를 나누자니 세상에 태어나 만나는 것만 같다”고 썼는데, 이것으로 미루어보아 당시 과지초당에서 만난 친척들은 서자 김상우 가족, 동생 김상희 가족(김상준, 김문제), 그리고 작은 아버지 김노명의 장손 김상일과 그의 아들 김시제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과천의 준암리의 과지초당은 단순히 김노경의 별장과 묘를 위해 마련되었던 곳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세거지로서 자리잡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이런저런 점들을 고려해봤을 때 김노경의 묘자리는 추사관련 유적으로 복원될 필요성이 있는 곳이라고 판단된다.

## (2) 김노경의 묘소자리 위치

김노경의 묘소자리는 이제까지의 연구보고서가 말해주듯이 일관되게 청계산(淸溪山) 중턱임을 확인할 수 있다.

1) 1994년 단국대학교 사학과는 김노경의 묘자리가 청계산에 있다고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한편 추사의 부(父) 김노경의 묘는 청계산에 있다고 한다. 조사단은 동리의 고로들에게 물어 봉분의 위치를 확인하였는데, 원지동(신원동)에서 청계산 등산로를 따라 옥녀봉(玉女峯)으로 향하는 중간지점에 제1야영장이 위치해있는데 이 야영장 우측 능선상에 김노경의 묘가 있었다고 하나, 1970년경 화장되어 없어졌다고 한다. 현재 이곳에는 묘 2기가 상하로 위치해 있고 주변에는 묘가 있었던 흔적도 남아 있다. 위쪽의 봉분은 비교적 잘 관리된 것이나 아래쪽 묘는 방치된 상태이다. 좌향은 동남향으로 봉분의 크기가 위의 것은 높이 80cm, 지름 260cm, 아래 것은 높이 150cm, 지름 460cm이다.

이들 무덤이 김노경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sup>21)</sup>

2) 또한 1995년 숭실대학교 소재영 교수 또한 이를 근거로 김노경의 묘가 청계산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추사의 친부 노경의 산소도 옥녀봉 중턱에 있었는데 그[김익환]가 떠나면서 그 묘지도 이장(화장)을 하고 떠나버렸다고 한다. 원래 추사의 친부 노경은 사형제 중 막내였는데 맏형 노영(魯永)이 아들이 없어 추사를 종가로 양자를 보냈다고 한다. 김노경의 묘는 마을에서 그리 멀지 않은 청계산 중턱에 있는데 옥녀봉을 향해 등산로를 따라 가다가 야영장 우측 능선 속칭 검단이란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한다.<sup>22)</sup>

3) 1996년 한신대학교 박물관의 보고는 과지초당 자리에 관한 한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김노경의 묘소자리에 대해서는 이상의 주장들과 유사한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유당 묘소/ 추사의 생부인 유당 김노경은 4년 동안의 고금도(古今島) 유배생활을 마치고, 3년 동안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 등의 벼슬을 지내다 현종 3년(1837년) 3월 30일 서거한다. 이에 추사는 유당 생시에 미리 자리 잡아두었던 옥녀봉 중턱 검단이라는 곳에 묘소를 마련하였다. 이곳은 돌목계 마을에서 청계산 등산로를 따라 옥녀봉 정상으로 오르다 보면 만나는 약수터에서 우측으로 30여 미터 들어가 100여 평 남짓 되는 평지 위에 있다. 돌목계 마을에서는 약 1킬로미터, 과지초당 자리[이들의 주장으로 주암동 산 30번지]에서는 500여 미터 되는 지점이다. 이 묘소도 1960년대 초반에 유실되어, 현재는 과천에 거주하는 박순만씨가 조성한 다른 묘가 자리하고 있다. 이곳 역시 풍광이 매우 좋아 서울 강남 일대가 한눈에 들어오는데, 마을 주민에 따르면 날이 맑을 때에는 남대문도 보인다고 하였다. 이 유당묘는 유실되기 전까지 이만봉씨 집안에서 관리하였으며, 마을 주민들은 아직도 그 산소를 ‘큰산소’로 기억하고 있다.<sup>23)</sup>

21) 단국대학교 사학과 · 과천시, 앞의 글.

22) 소재영, 앞의 글.

23) 한신대학교 박물관 · 과천시, 앞의 글.

4) 새로 조사한 내용과 결론

우리는 주암리 돌무개 마을에서 김노경의 묘소 이장에 직접 참여했던 이진석씨(69세)를 만나 인터뷰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1968년 추사의 생부 김노경의 묘를 이장할 때 참여했던 이진석씨(69세)

이진석씨는 돌무개에 정착한 전주이씨 익양공파의 후손으로서, 앞서 기록에 등장했던 이만봉씨가 7촌 당숙이며, 마을 32호 주암동 263번지에 살고 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두터운 목관에 회벽이 단단하여 작업이 매우 힘들었으며, 관을 연 순간 썩지 않은 시신과 의관이 깨끗하게 보존되어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고 한다. 또 김노경의 시신은 5척 단신에 똥똥했는데, 관을 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산화되자

곧바로 화장터로 옮겼다고 한다.

한편 함께 이장한 김노경의 부인 杞溪俞氏(1767-1801)가 일찍 세상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대동보에는 ‘墓初葬合耐後移葬合耐’라고만 적혀있을 뿐 부인의 첫 묘소가 따로 밝혀져 있지 않다. 결국 1801년 추사의 친모인 유씨를 이곳 과천 준암리 청계산에 모셨을 가능성이 높다.<sup>24)</sup> 이렇게 볼 때 부인의 죽음을 계기로 청계산에 집안 世葬地를 마련했을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으며 따라서 김노경이 별서로 과지초당을 마련하기 이전에 추사집안에서는 과천 준암리 땅을 소유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양자인 商懋 의 묘를 예산에 쓴 것에 비해 서자 商佑(대동보에는 商禹로 표기)의 묘는 준암리에 썼다는 사실도 관심을 끈다. 김상우는 字가 天申이고 벼슬은 司果를 지냈는데, 아들 덕제(惠濟)와 두 딸을 두었다고 한

24) 『慶州金氏 太師公派 大同譜』, 권3, 앞의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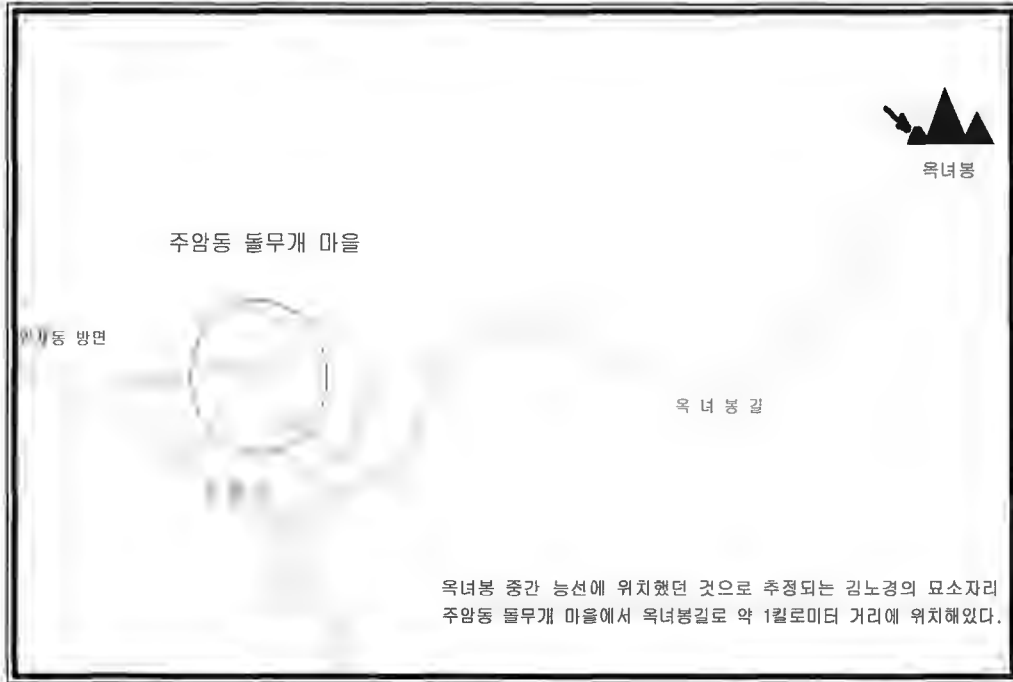
다. 그가 서출이었던 터라 대동보에는 아들과 큰사위 卞山 申月朝, 둘째사위 全州 李義道의 이름만 올라 있을 뿐이다. 이를 통해 보건대 김노경의 묘소와 과지초당은 일정기간 추사의 서자인 상우와 그 후손에 의해 관리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과천 준암리에 묘소가 있는 추사의 친척으로는 추사의 사촌 조카인 金商一(1794-1858)이 있다. 추사의 생부인 김노경의 셋째 형 魯明의 장손인 김상일은 아버지가 觀喜이고 始濟와 台濟 두 아들을 두었다. 묘소의 위치로 보아 김상일은 과천에 살았던 것 같은데, 추사는 김상일의 둘째 아들 태제와 함께 자하동 답사를 한 적도 있었다. 그리고 『완당전집』에는 상일에게 보낸 편지 1통과 태제에게 보낸 편지 3통이 실려 있을 정도로 교분이 두터웠던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과지초당에서 추사와 함께 기거했거나 가까이 지냈을 것으로 보이는 가족친지는 서자인 김상우, 동생 김상희와 그 가족 商駿, 文濟 부자, 그리고 추사의 仲父인 김노명의 장손 김상일과 태제 부자였을 것이다. 이들은 모두 준암리에 묘를 썼을 것으로 보이며, 유적지 복원과 관련해서 김노경의 묘소 뿐만 아니라 이들의 묘소 자리에 대한 조사와 발굴작업도 이루어지길 바란다.

돌무개 마을에서 옥녀봉길을 따라 청계산 방향으로 오르다 만나는 약수터에서 우측으로 30여 미터 들어가 80여 평 남짓 되는 평지가 김노경의 묘소 자리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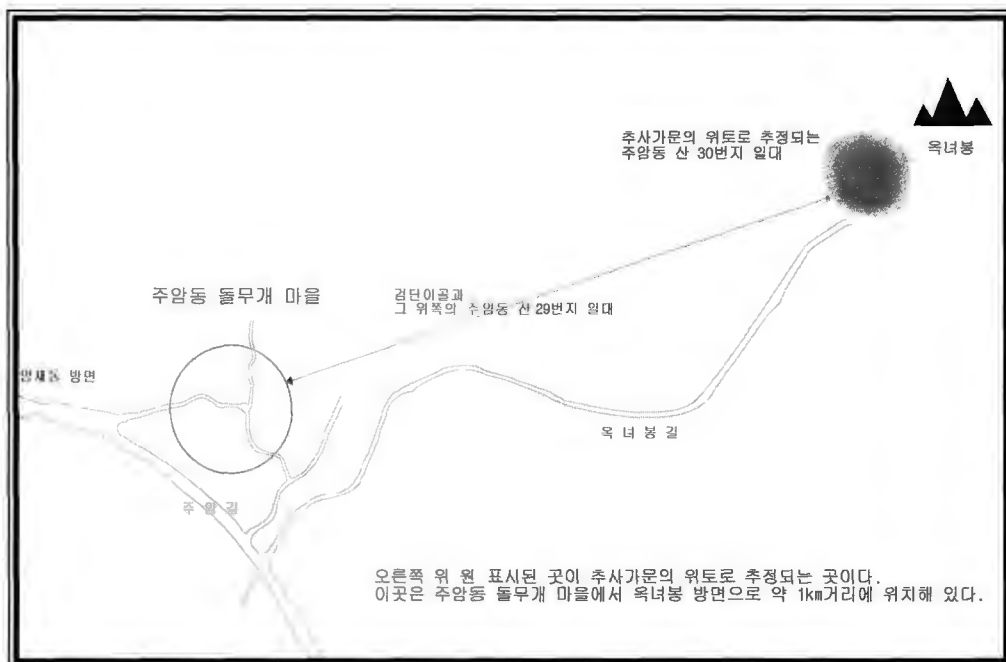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김노경의 묘자리를 표시해보면 아래와 같다.



#### 4. 추사가문의 위토(位土)에 대한 고증

1996년 한신대학교 박물관의 보고에 따르면 주암동 338번지가 추사집안의 위토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번지에 대한 토지대장등본을 확인해본 결과 5,000여평의 이 토지는 최초로 1947년 서울에 사는 이00씨의 소유로 등재되었다가, 1963년 김00씨의 소유로 권리가 이전 등기되었고, 다시 1972년 이00씨와 김00씨의 공동소유로 이전 등기되었다. 결국 이 땅은 김노경 및 경주김씨 일가의 묘지를 이장한 해인 1968년 이전에는 추사집안이든 익양공파 이씨집안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이근연의 소유로 되어있는 산30번지가 추사집안의 위토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 토지는 대략 18,000여 평에 이르며, 사실상 임야로 지정되어있을 정도로 사람이 터를 잡고 살기에는 무리가 있는 곳이다. 게다가 익양공파 이씨 집안의 한 인물인 이영안이 추사집안과의 친분으로 김노경의 묘를 관리해왔다는 이만봉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추사집안의 위토를 표시해 보면 아래와 같다.



## 5. 관악산 자하동(紫霞洞)의 추사 관련 유적

### (1) 추사의 자하동 기행문

1976년 『문학사상』 11월호에 실린 경북대학교 김영호 교수의 추사 탄신 120주년 기념 글에는 과천시절 추사의 기행문 한 편이 등장한다. 현재 이 기행문의 행방은 알 수 없으나 실제 사진이 수록되어있다. 추정컨대 이 기행문은 그가 직접 발굴하고 번역한 것으로 보인다.

자하동은 현의 서쪽 삼십리 남짓한 곳에 있다. 泉石이 좌우에 연이어 있고 위로는 벼랑이 가파르고 아래로는 바위가 깔려 있다. 산꼭대기에서 맑은 물이 졸졸 흘러내린다. 나는 마침 자하동의 동구밖에 살고 있다. 일찍이 한 가로이 거닐며 그곳으로 놀러갔다. 그대 내 再從姪인 台濟가 나를 따라 동행했다. 천천히 걸으면서 조용히 시를 읊으니 흥을 이기지 못하였다. 곧 대제가 기행문을 지었고, 또한 나에게 청하여 발문을 짓게 하니 자하동의 이름이 이를 계기로 더욱 크게 드러나게 되었다....<sup>25)</sup>



추사가 과천시절 관악산 자하동을 기행하고 쓴 글. 현재는 그 소장처를 확인할 수 없다.

이 기행문에서 추사는 자하동 동구 밖에 살았다고 직접 쓰고 있는데, 자

25) 위대한 유산2 「추사 김정희」, 추사 탄신 120주기 특집 중 ‘기행문-귀양길에 추가령의 안개를 본다’, 『문학사상』 50호, 1976년 11월.

하동과 돌무개 마을 사이의 실제 거리가 약 30리길이므로 이것이 정확히 과지초당을 지시하는 것인지는 확신할 수 없다. 따라서 당시 추사가 자하동 근처 마을에 또 다른 우거를 만들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도 그럴 것이 추사가 함경도 관찰사 윤정현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한 편지에서 이를 넌지시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높은 누각은 백척이나 되고, 긴 다리는 10리나 뻗어있었습니다. 반생(半生) 동안에 처음 만난 인연으로 이런 그림 같은 곳을 원만히 차지하였으니, 비록 종전의 천맥(阡陌) 사이에서 지내던 생활도 반드시 이 한 승경보다 낫지는 않을 것입니다. 더구나 남북으로 전패(顛沛)하다가 말로(末路)에 끝을 잘 맺은 것이 또 당음(棠蔭)으로 보호해주시던 즈음에 있었습니까. 자비로우신 노파심에 의해 복을 많이 받아, 주신 술에 취하고 베푸신 덕을 흠뻑 입어 천리 길을 내려와 조용히 농촌에서 지내게 되었으니, 이것이 누구의 은혜이겠습니까.

척하(戚下)는 관악산 아래 돌아와 숨어 지내면서 어부 초객(漁夫 樵客)과 형제 삼아 꿈같이 서로 마주하니, 말년의 온갖 감회가 창자 사이에 밀물처럼 끓어오르지만, 이것은 족히 외인(外人)에게 말할 것이 못됩니다...<sup>26)</sup>

하지만 남자하동에 또 다른 추사의 우거가 있었는지는 더 많은 자료 조사와 연구가 뒤따라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북청에서 해배된 추사는 무죄로 풀려난 것이 아니었으므로 당시 관례로 보아 당연히 과지초당에 일종의 <주거제한>을 당했을 것이 분명함에 불구하고, 이처럼 관악산 기행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과천 현감을 지냈던 김병학(金炳學, 1852년 12월 27일부터 이듬해 3월 21일까지 재직)과의 친교 덕분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안동 김씨로 당대 세도가 출신이면서도 흥선대원군과 교분이 두터웠고 후일 대사헌, 판서, 좌의정을 지냈다. 추사가 그에게 썼던 편지에 따르면 추사는 그에게 <蓬萊>라는 두 글자의 편액

26) 「윤침계정현에게 주다 與允彬溪定鉉」, 『국역완당전집』 1권.

을 써 보낼 정도로 막역한 사이를 유지했다.<sup>27)</sup>

## (2) 추사의 자하동과 관련된 시문

한편 추사는 자하동 승경의 심정을 노래한 몇 편의 시를 남기기도 했다.

<紫霞洞>

자하동<sup>28)</sup>

小谿幽洞自層層  
一道名泉雨後勝。  
夕照近人松籟起  
老身石上聽冷冷。

깊은 골 오솔길이 층층으로 감돌아드니  
한 줄기 개천 물이, 비 온 뒤 많이 늘었구나.  
석양빛 잔뜩 비치자, 솔바람 시원히 불어오니  
돌 위 홀로 앉아, 흐르는 물소리 듣고 있네.

<七言詩>

칠언시<sup>29)</sup>

遙峯一抹柳千絲  
正是鷗煙鷺雨時  
帆身欲上龍山口  
無恙西風汐水遲

먼 뿔부리 한 가닥 실버들 천 오라기  
갈매기 해오라빈 물안개와 성긴 비에  
용산이라 입구로 배돛을 올리려다  
서녘 바람 고이 불고 썰물은 느릿느릿

## (3) 자하동 유적들

정부종합청사 뒤에 있는 골짜기의 이름을 자하동이다. 이곳은 관악산의 동서남북 각각의 계곡에 붙여진 이름이다. 추사가 기행문을 쓴 곳은 남자하동이다. 현재 입구 오른편에 과천 향교가 있고 그 건너편에 구세군 건물이 있

27) 「김영초 병학에게 주다 與金穎樵炳學」, 『국역완당전집』 2권.

28) 「자하동」, 『국역 완당전집』 3권. 뜻을 보아 다시 옮겼음.

29) 「관악 절정에 올라 읊어 최아서에게 주다 登冠岳絕頂 吟與崔鵝書」, 『국역 완당전집』 3권.

다. 과천시청에서 도보로 10분의 가까운 거리이다.



과천시에서 출발해서 관악산으로 오르다 입구에 나오는 과천향교. 이곳을 지나 남자하동에 이르면 암각된 명문들이 나타난다.

남자하동을 따라 올라가면 왼편 암벽에 글씨들이 새겨져 있다.



관악산 남쪽 지하동에 새겨진 암각 명문 <선하시경>의 탁본과 실제 모습. 추사 말년 필적과의 관련성으로 주목된다.

입구에 예서체의 <丹霞詩境>이 있고, 여기서 100미터 더 들어가면 행서체의 <紫霞洞門>과 해서체의 <紫霞洞天 白雲山人>이 보인다.

이 <자하동천> 바로 옆에는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이 초서풍으로 쓴 최치원(崔致遠)의 “농산정시(籠山亭詩)”가 새겨져 있는데, 서체나 크기는 합천 해인사 입구의 그것과 동일하다.



관악산 남쪽 자하동에 새겨진 암각 명문 <백운산인/ 자하동천>의 탁본과 실제 모습.

특히 <단하시경>은 각을 세운 네모형 글씨로 추사의 예서풍을 느끼게 해 준다. 그에 의해 유명해졌다는 추사의 유적일 가능성이 높다. <단하시경>안쪽에 있는 <자하동천 백운산인>은 자하(紫霞) 신위(申緯, 1769-1845)의 아호와 동일하며, 그의 서풍과도 유사하다. 이로 인해 흔히 이곳 자하동을 신위와 연관짓기도 한다.<sup>30)</sup> 그러나 <자하동천 백운산인>라는 두 글씨는 단

정하고 평범한 해서와 행서체이고, <단하시경>보다 후대에 새긴 것으로 보이며, 특히 약간 길쭉한 필벽의 신위 묵서체와 비교해볼 때 그와는 무관한 듯 보인다. 만일 신위가 이곳 남자하동에 머물렀고 그의 글씨라면, 신위와 추사 사이의 깊은 교분으로 미루어볼 때, 추사가 기행문을 쓰면서 신위를 회상하지 않았을 리 만무하다. 추사가 자하동을 찾은 시기는 신위가 먼저 세상을 뜬지 10년이 지난 때였기 때문이다. 추정컨대 신위의 묘소자리와 그의 아들 명준, 명연의 행적으로 미루어보다 신위가 살았던 자하동은 현재 서울대학교 자리인 북자하동일 가능성이 높다.<sup>31)</sup>

---

30) 이충구, 『과천탁본자료집』, 과천문화원, 2001.

31) 시홍균, 『시홍균지』, 1988.

## 6. 과천시절 추사 김정희의 유적 복원에 관해

주지하듯 추사 김정희의 과천시절은 정치적으로 몰락한 양반의 현실 생활을 정신적으로 승화시켜 그 자신만의 고유한 학문적·예술적 세계를 완성해냈다. 이러한 추사 개인의 의미에서도 과천의 추사 유적지 복원은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우리의 고유한 문화와 정신세계를 계승한다는 현대적 의미에서도 이 복원은 뜻 깊은 일이다.

하지만 추사의 과천시절 유적은 이제 단지 흔적과 증언자조차 만나기 어려운 실정에서 구전되는 증언만이 대부분이라는 점이 우리를 너무도 안타깝게 한다. 더욱이 이 번 유적지 복원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는 동안에도 행정당국의 불찰로 인해 그나마 남아 있는 소중한 관련 유적이 훼손되는 불상사가 있었을 정도였다.

우리는 금번 조사연구를 통해 주암동 돌무개 마을 주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추사관련의 유적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추사가 말년에 수년간 기거했다는 <과지초당>은 주암동 179-1번지가 가장 유력하지만, 현재 사라진 임경출씨 대이 <과지초당>이었을 가능성은 확인할 수 없으며, 그 크기가 약 120평으로 비교적 협소하여 <과지초당>의 실제 크기와 맞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는 주암동 179-1번지와 그 주변, 즉 주암동 179번지, 179-3번지, 179-7번지 그리고 179-2번지 일부가 과거 <과지초당> 자리였을 것으로 결론지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복원 가능한 유적은 사실상 현재로서는 찾을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나마 추사시대와 가장 근접한 가옥이 주암동 179-7번지에 이연원씨 가옥으로 수 채 있었지만 현재는 심하게 훼손된 상태여서 형태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이다. 단지 주변에 발굴 가능한 도편 등 유물들을 종종 확인할 수 있었으나 전시를 위해서는 미흡한 수준이다.

둘째, 우리는 추사가 물을 길어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독우물(甕

井)>은 현재 주암동 179-1번지 논외의 가장자리에 있었을 것으로 결론지었다.

셋째, 추사의 생부인 김노경의 묘자리와 위토는 이미 1968년에 이장되어 다른 사람의 소유지로 변해있었다. 그 위치는 각 조사 때마다 유적지에 접근한 방향에 따라 달랐다. 실제로 서초동쪽에서 청계산 자락으로 오르는 등산로를 택해 유적 조사를 했던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당시에 그 묘자리에 접근했던 방법은 돌무개 마을에서 직접 옥녀봉을 향해 올라가는 길이었을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는 김노경의 묘자리는 돌무개 마을에서 옥녀봉에 오르는 길을 따라 약 1km에 위치하며, 그곳에서 아래로 약 500m 떨어진 주암동 산 30번지가 추사 가문의 위토라고 결론지었다. 더욱이 당시 준암리 청계산 부근이 당대 추사가문의 세장지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 일대 묘역에 대한 조사발굴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그밖에 이미 확인되어 있듯이 추사가 과천시절 기행했던 유적들은 관악산 남서쪽의 자하동계곡이며 강남구에 있는 봉은사 등이다. 특히 봉은사의 <板殿>은 추사의 것으로 유명하며 관악산 남서 자하동계곡의 암각중 하나인 <丹霞詩境>은 추사의 글씨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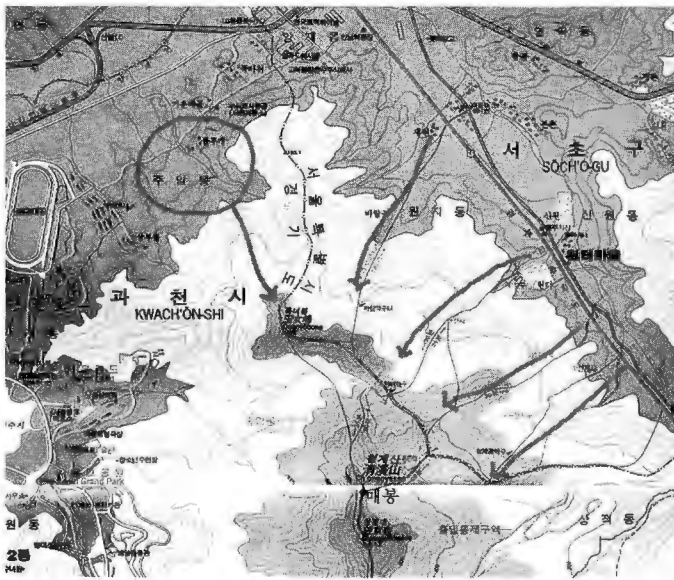
다섯째, 1980년대 인구조사 통계자료에 의하면, 경주김씨 성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수 과천시에 거주했던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 자료에서도 간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듯이 주암동 일대는 추사 가문의 후손들이 여러 명 생존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추사 기념사업회와 연계하여 이들에 대한 조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상에 대해 두 가지 대처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하나는 유실된 유적지를 표시할 수 있는 표석을 세움으로써 시민들로 하여금 유적지의 위치를 확인하고 의의를 새길 수 있게 해주는 소극적 의미의 복원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더욱 엄밀한 고증을 거쳐 현재 유실된 유적과 유사한 실제 모형을 유적지 위에 새로이 건설하는 적극적인 방법이다. 이 방법은 전면적인 복원에 해당하며 추사의 과천시절 과지초당을 염두에 두고 179번지 일대 및 돌무개 마을 상당부분을 매입해서 일종의 <과천의 추사 마을>을 세우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복원이 이루어질 경우 많은 예산과 노력, 그리고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적극적인 복원이 이루어질 경우 과천시민은 물론 주변 지역 주민



과천시절 추사 유적(과지초당)과 청계산 등산코스

들의 중요한 휴식 및 문화 공간으로 적실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효과를 쉽게 가늠해볼 수 있는데, 옥녀봉을 포함한 청계산은 등산코스로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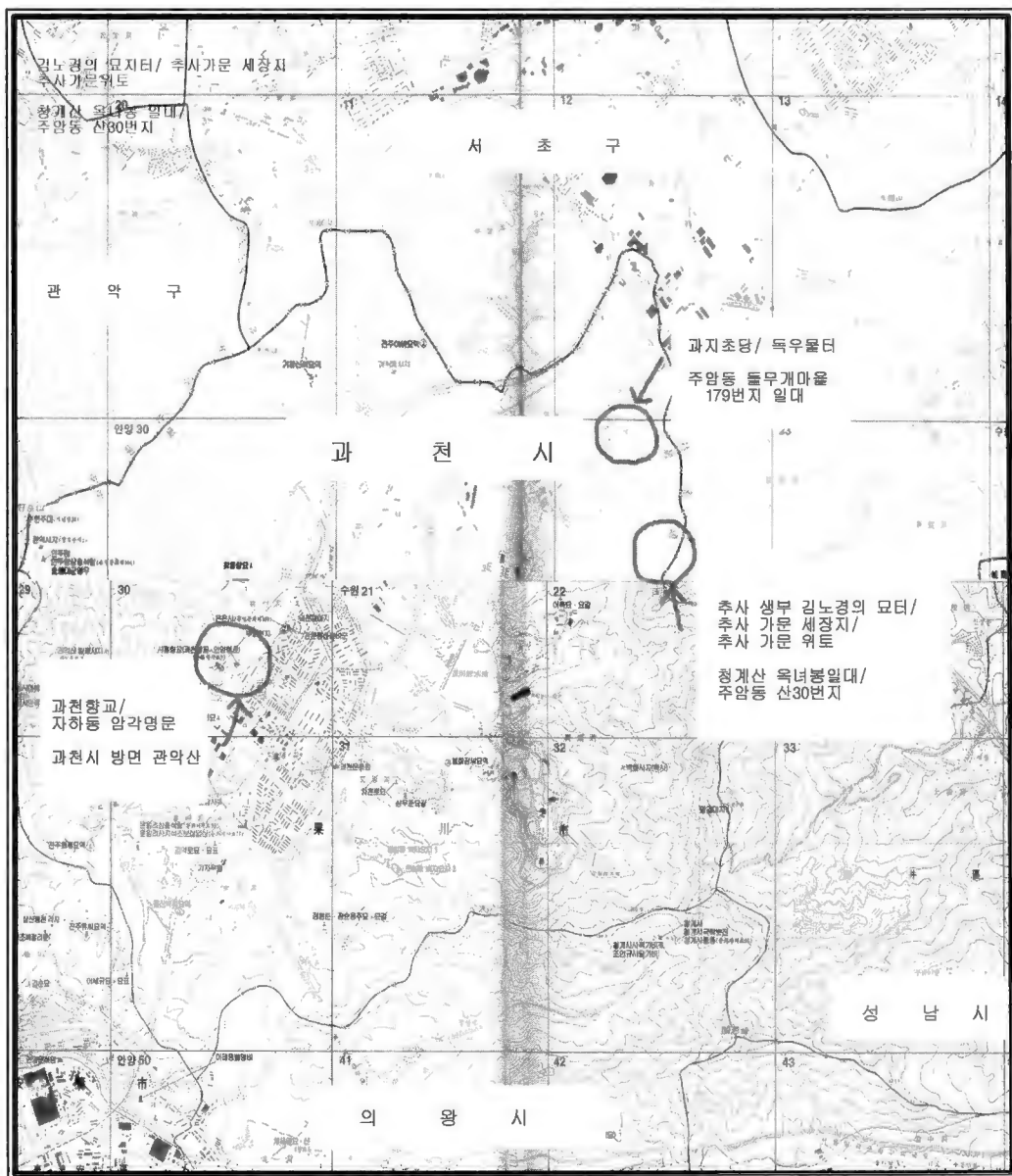
제로 그곳에 접근하는 길은 대부분 강남구 서초동에서 출발하거나 다른 쪽 과천에서 청계사를 거쳐 오르는 코스들 뿐이다. 결국 돌무개 마을에서 옥녀봉에 오르는 반대편 코스만이 개발되어 활발히 운영되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이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돌무개 마을과 관련된 등산코스를 개발하고 이를 복원 가능한 추사 관련 유적지들과 연계하면 시민들의 정서적 만족은 물론 추사의 사상세계를 다시금 환기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주암동은 경마장 및 동물원과 같은 대규모 위락시설이 크게 발달한 지역에 인접해 있는 장점이 있다. 이 시설들과 연계할 경우의 효과도 감안할 수 있는 중요한 지역이다.

## 7. 과천시절 추사 관련 유적지 표시

- ① 주암동 돌무개 마을 과지초당 터와 독우물 터
- ② 주암동 산 30번지 추사가문 위터와 옥녀봉 중턱 생부 김노경의 묘소터
- ③ 자하동 암각 명문과 과천 향교



## 제 3 장

### 추사 기념 서예 박물관

## 1. 개괄

### (1) 실태

추사 김정희는 한국 역사상 최고의 학자이자 예술가로 누구나 인정하는 바이지만 아직 추사의 학문과 예술 전모를 연구하고 전시 교육하는 기관이 없는 상태이다.

### (2) 필요성

따라서 <추사 학예관>의 건립을 통한 행정[과천시]은 물론 역사[추사학예관]와 현대[국립현대미술관]가 공존하는 문화예술도시로서 과천시의 정체성 및 이에 적합한 전시·교육·연구·소장품 등의 확보가 절실하다.

## 2. 건립 및 운영목표

시설은 물론 전시프로그램, 소장품확보, 마케팅 등의 모든 방면에서 추사학예관을 서예관련 전문박물관으로서 기본토대 구축. 가칭 <추사 기념 서예박물관>으로 함.

## 3. 건립 및 운영방침

· 추사학예관의 전시, 교육, 연구, 소장품 확보 등의 프로그램 수행을 정확히 반영할 것을 전제하여 박물관 건물의 설계와 건립해야한다.

· 본 박물관은 추사라는 인물의 성격과 작품, 자료 확보의 난이도를 감안하여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건립해야한다. 첫째 박물관의 일반적인 기능인 작품의 소장 및 전시기능을 수행하고, 둘째 추사의 작품의 희귀성 및 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추사와 관련된 포괄적인 여타 작품들에 관한 연구기능의 확충하며, 셋째 추사 작품을 포함한 여타 소장 자료의 보존 효율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반드시 디지털 아카이브를 포함한 소위 ‘버추얼 뮤지엄’을 설치 운영하여 일반대중이 효과적이고도 용이하게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기능을 확대한다. 이런 세 가지 측면의 기능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쪽으로 건립되고 운영될 필요성이 절실하다.

· 전시 교육 연구 프로그램은 1년 단위로 볼 때 상설전을 바탕으로 하면서 특별기획전 1회, 학술대회 1회[박물관논문집 포함], 년 중 단위의 박물관학 교운영을 골자로 함.

· 추사관련 유물 및 논문, 도록, 문집 등 ‘기증’ 과 ‘구입’을 통한 추사학예관 핵심 소장품 확보.

· ‘ 상설전시장(기증유물특별실, 기획전시실)’, ‘수장고’, ‘버추얼 뮤지엄’, ‘ 도서자료실’ ‘ 학예 사무공간’ ‘ 세미나실’ ‘ 체험교실’ 등 기본시설 구축.

· ‘ 박물관대학’ 교육과 ‘ 추사학예집’ 발간

· ‘ 박물관후원회’ 구성, 협찬활동 등 추사학예에 대한 전문박물관의 특화된 브랜드 마케팅 전개로 수익성과 자립도 제고.

## 4. 주요 프로그램

### (1) 전시사업

#### 1) 상설전

추사관련 기증 및 기탁 유물과 구입유물을 중심으로 연중 상설전시

#### 2) 기획전

매년마다 <상설전>과 병행하여 추사학문과 예술세계를 소주제로 나누어 연구 전시 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운영하며, 전시 세미나를 <박물관대학 교육 및 연구논문집>으로 발행

### (2) 소장품 및 자료 확보

#### 1) 기증 및 기탁 유물

기증유물전 및 특별전 등을 조건으로 유상 및 무상 기증과 기탁을 개인, 문중, 유족 등을 대상으로 섭외 유치함. 그리고 국내외 개인, 사설 및 기관 박물관의 제후를 통한 상시적인 작품교류 체제 구축함.

#### 2) 유물구입

해마다 일정금액의 유물 구입비를 확보하여 특별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장품을 엄선 구입하고 유상 기탁을 적극유치 함.

### (3) 버추얼 뮤지엄(Virtual Museum) 구축

#### 1) 버추얼 뮤지엄의 개념

한국의 미래지향적인 사회가 이미 디지털화된 유비쿼터스를 목표로 그 힘을 통합하고 있는 현실에서 전통문화의 연구와 함양, 그리고 향수와 관련된 문화 영역은 이런 현실을 도외시킬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왜냐하면 과거는 단지 죽어있고 화석화된 유물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서 다시금 의미를 되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버추얼 뮤지엄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버추얼 뮤지엄이란 기존 아날로그화된 전시개념에서 덧붙여진 디지털화된 뮤지엄을 뜻하며, 소위 <가상박물관>이라고도 일컬어진다. 이 가상박물관은 기존의 현실공간에서 존재하는 박물관의 공간적 한계를 보완하고, 나아가 유물과 관람객 사이의 상호작용성(interactivity)을 높여줌으로써 전시효과의 극대화를 이룬다. 나아가 그 주요활동이 단순한 전시차원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차원에서 소장자료에 대한 디지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그에 대한 서비스를 구현한다.

#### 2) 버추얼 뮤지엄의 구성

버추얼 뮤지엄은 두 가지의 중요한 요소들을 포함한다.

##### ① 가상전시

버추얼 뮤지엄이 추구하고 있는 가상전시는 다시 두 가지로 구별된다.

㉠ 가상전시는 인터넷 웹상에서 구현되는 소장유물자료에 대한

시뮬레이션전시

소장자료에 대한 시뮬레이션전시의 경우 기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원격현전(telepresence)을 각각의 네트워크 접속자들에게 서비스한다. 이 경우 공간과 시간의 제약에 따른 <추사기념 서예박물관> 실제 탐방의 한계가 해소된다.

㉞ 가상현실시스템(Virtual Reality System)을 기반으로 실제적인

온몸체험에 의한 가상체험

서예박물관 내에 상설로 설치된 가상현실체험 시스템을 통해 박물관 방문자들은 실제로 가볼 수 없는 과거의 세계나 혹은 추사의 예술세계를 마치 눈앞에서 손으로 만지듯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이를 위해 입체 영상프로젝터와 스크린이나 혹은 소형 HMD와 데이터 글로브 등의 장비가 활용될 수 있다.

② 디지털 아카이브(Digital Archives)

나아가 이 뮤지엄은 단지 전시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타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변화 장치를 통해 소장 자료를 디지털화해서 보존한다. 이런 형태의 보존방식은 이미 수많은 도서관이나 기록보존소에서 정부차원이든 민간차원이든 실제로 적극적으로 실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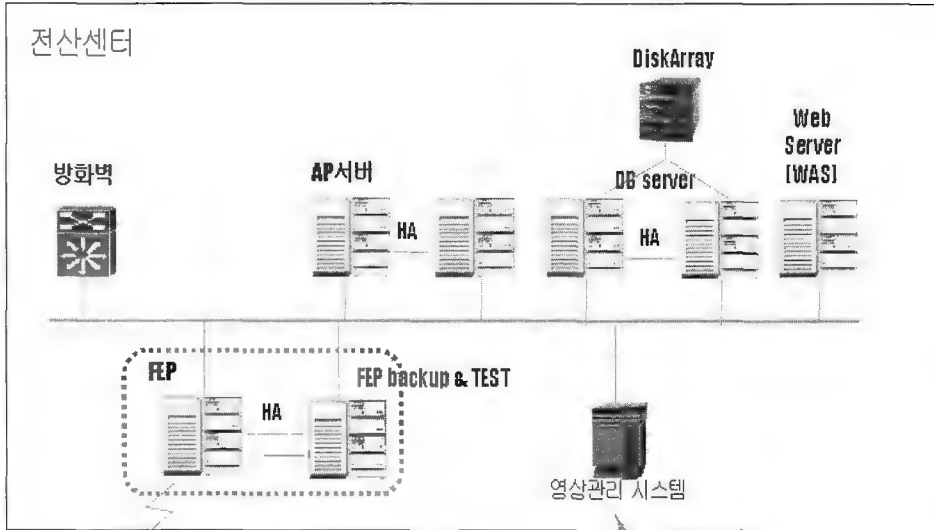
소장유물자료에 대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은 사실상 보존과 서비스를 동시에 이룰 수 있어야 한다. 예컨대 디지털화된 시각 이미지들은 무한히 복제가 가능하며 다양한 형태로 변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필요로 하는 수많은 이용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데이터 서비스의 경우 수준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할 수도 있으며, 또 일정한 요금을 지불할 경우 주문에 의한 출력서비스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3) 디지털 아카이브의 구축과정



4) 사용자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과 디지털 데이터베이스의 활용도



인터넷망

네트워크 상의 사용자

자료 UPLOAD



소장 자료의  
디지털화작업  
디지털스캔작업

+



소형 HMD(셔더글래스)를  
착용한 상태의 가상현실 체험

5) 버추얼 뮤지엄 소요 면적

항목	내용	소요면적
소장자료 디지털이미지화 작업	스캔 작업: 초대형스캐너/ 평판스캐너/ 기타 디지털 촬영기자재	2-30평
	출력 작업: 대형 컬러 프린터	
전산센터 H/W	방화벽	10평
	FEP (Gateway)	
	웹서버	
	AP/DB 서버 (DB는 1개당100메가 * 1000 = 100,000메가=100기가)	
전산센터 S/W	Task Server Pack	10평
	Network Server Pack	
	Images Control Pack	
Virtual Museum 구축	Virtual Reality System	3-60평
	S/W	

### 3. 교육사업

#### (1) 박물관대학

전시 및 학술프로그램과 연계하여 1년 단위로 추사의 학문과 예술은 물론 서화사, 서화론, 예술철학, 미술사, 문화사, 사상사 등 서예·금석문과 우리 문화 전반에 대한 특정주제를 1년간 심화 학습하는 프로그램.

#### (2) 어린이·청소년 서예박물관 체험교실

연중 상설로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떡과 붓 문자 등으로 만들어지는 서예 문화를 훈민정음·천자문쓰기·사군자그리기·금석문탁본·전각 등을 통해 직접 체험 해보는 자리를 마련.

#### (3) 추사 서예 공모전

#### (4) 서예·금석문 문화유산 답사 프로그램 운영

### 4. 연구사업

가칭 ‘秋史學藝’ 연구논문집 발간 : 연간 단위로 추사 학문과 예술을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한국서예사 내지 한국 금석문 연구의 기틀 마련.

### 5. 학예관 건립 및 시설

#### (1) 공간개요

전시공간(240평) 수장공간(240평) 작업공간(130평) 교육공간(250평)

학예 행정·휴게공간(150평) 등 주요공간 기준 연면적 1,500평 정도 (지상 3층 지하 2층)

## (2) 전시공간

### 1) 상설전시실

추사학예활동 중심의 작품 자료의 상설전시 공간. 아울러 우리나라 서예사 흐름과 성격을 한눈에 조감 할 수 있는 전시도 동시에 구사하여 추사서예의 전후맥락을 알게 함. 특히 가상체험전시 공간을 별도로 마련함으로써 청소년과 아동들에게 효과 높은 문화체험기회를 마련한다.

### 2) 기획전시실

추사학예활동을 서예, 간찰, 현판, 서체별, 시, 문장, 비평, 문인화, 사상, 교유관계, 추사학과 등으로 세분화해서 최 정예 작품과 자료를 전시함.

## (3) 수장공간

### 1) 수장고

### 2) 도서자료실

### 3) 디지털 아카이브(버추얼 뮤지엄에 포함) 등

## (4) 작업공간

### 1) 포장 해체실

### 2) 수리 복원실

- 3) 촬영실
- 4) 전시장비 기자재보관고
- 5) 전시자료 보관실
- 6) 도록보관실 등

#### **(5) 교육공간**

- 1) 실기실
- 2) 이론강의실
- 3) 체험교실: 청소년들을 위한 서예 워크샵, 체험실습실
- 4) 영상실

#### **(6) 휴게공간**

- 1)아트샵
- 2)매표소
- 3)커피숍

#### **(7) 작품운반전용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

#### **(8) 행정 학예공간: 사무공간 회의실 응접실 등**

#### **(9) 기타공간**

## 6. 학예관 후원회 및 마케팅 활동

### (1) 후원회

학예관 후원그룹을 개인, 기관, 단체 등을 중심으로 작품, 시설, 기자재 등의 기증 및 후원금액에 따라 차등 조직함. 단, 회원들에게 기획전시초대, 서예교육강좌, 박물관대학, 도록 등 무료제공 혜택

### (2) 마케팅 활동

학예관의 이미지를 한국은 물론 과천시와 한국은 물론 동북아시대를 주도하는 한국의 문화이미지와 한자문화권 예술의 독자성, 민족예술과 정신성의 상관 관계 속에서 부각시켜 개별전시 학술프로그램과 추사기념 서예박물관 자체의 이미지를 통합하여 협찬, 후원, 홍보 등의 마케팅 활동을 전개시킴.

### (3) 자원봉사(도슨트) 제도 운영

박물관대학 수강생이나 학예관 전시에 이해가 깊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특별전, 상설전 전문 안내원 역할을 자원봉사형식으로 부여함.

## 7. ‘추사기념 서예박물관’ 건립 추진일정

- 2005년도: 기초자료 조사 및 계획(안) 수립

전시, 학술, 교육 프로그램 개발 착수

(2009년까지 개관프로그램 완료)

- 2006 - 7년도: 예산확보 및 설계

- 2008 - 10년도: 시공 및 완공

## 8. 예산

### (1) 소요예산

약 삼백 억원

### (2) 예산확보방안

국고 및 시비 등

## 추사 기념 학예관 주요 기능과 공간별 소요면적

기능-공간	면적(坪)	비 고
<b>전시공간(240평)</b>		
상설전시장 1	80	추사학예관련 핵심작품 자료 구입 기증 등 유물 전시/ 한국서예의 시대별 흐름을 조감하는 전시
버추얼뮤지엄(전시)	60	버추얼 뮤지엄 가상체험 전시장
기획전시장	100	추사학예관련 소주제별 특별전시공간
<b>수장공간(240평)</b>		
수장고	100	추사학예관련 핵심작품 자료 수장
도서 자료실	80	추사학예, 한중일 서예사 등 도서 등
버추얼 뮤지엄(디지털 아카이브)	60	소장 자료의 디지털이미지화/ 데이터베이스 구축(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b>작업공간(130평)</b>		
포장해체·준비실	50	
스튜디오	30	
장비 기자재보관실	50	전시자료, 도록보관실 포함
<b>교육공간(250평)</b>		
실기실	100	20평 규모 공간 5개
컨퍼런스홀	100	150석규모, 국제회의 동시통역 가능, 영상실 포함
체험교실	50	전시자료, 도록보관실 포함
<b>학예·행정·휴게공간(150평)</b>		
학예 행정공간	100	학예실 행정실 관장실 회의실 등
휴게공간	50	매표소 아트샵 커피숍 등

※ 버추얼 뮤지엄(Virtual Museum)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49-53쪽 절을 참조.

제 4 장  
과천시절 추사의 유적복원 및  
서예박물관 건립 추정예산

※ 유적복원에 앞서 과천시 주암동 돌무개마을 추사 관련 유적지에 대한 사전 발굴 조사가 이루어져야한다. 이를 위한 계획과 예산 책정이 필요하다.

## 제 1 안. 적극적인 방식의 유적 복원 I

주암동 돌무개 마을을 전면 복원하고, 해당 유적지에 추사기념 서예박물관 건립한다. 이 경우 소요 예산은 총 590억원이다.

### 1. 유적지 복원: 총 290억원

#### (1) 토지매입

과천시 주암동 돌무개 마을 179번지 일대 연면적 약 5,000여 평

5,000평× (평균 평당)500만원= 250억

#### (2) 유적 복원비

과지초당을 포함해서 200-300여 년 전 건물 복원

관련 건축물 약 10채× 2억= 20억원

#### (3) 주변 정비

공원형태의 공간 조성비 20억원

## 2. 추사 기념 서예박물관: 총 300억원

### (1) 면적

총 연면적 약 1,500평

### (2) 소요 예산

1) 건축비: 150억원

2) 유물구입비: 100억원

3) 전시설비 및 자료구성비: 50억원

· 버추얼 뮤지엄 구축비: 27억원

· 영상자료실 구축: 10억원

· 유물 보존 장비 및 기타 기자재 구성비: 13억

## 제 2 안. 적극적인 방식의 유적 복원 II

주암동 돌무개 마을의 일부(과지초당 및 독우물터)만을 복원하고, 해당 유적지 이외의 장소에 기념관 건립한다. 이 경우 소요 예산은 총 465억원이다.

### 1. 유적 주변 정비 및 표시석 소요예산: 15억원

해당 유적지들 중 과지초당과 독우물터를 복원하고 나머지 유적들에 대해서는 표시석을 세우는 정비 작업 수행. 추사 기념 서예 박물관은 과천시 관할 과천향교 및 자하동 근처에 토지를 별도로 매입해서 건립.

(1) 과지초당·독우물터 유적 및 기타 유적 정비 및 표시석

1) 면적

과지초당 및 독우물터: 약 110평 (주암동 179-1 번지/ 179-7번지)

2) 소요 예산

토지 매입비: 11억원

복원비: 과지초당+독우물터=2억원

기타 유적 정비비용: 2억원

2. 추사 기념 서예박물관: 총 450억원

(1) 면적

총 연면적 약 1,000평

(2) 소요 예산

1) 토지매입: 약 1,500평× 1,000만원(평당)= 150억원

2) 건축비: 150억원

3) 유물구입비: 100억원

4) 전시설비 및 자료구성비: 50억원

· 벼추얼 뮤지엄 구축비: 27억원

· 영상자료실 구축: 10억원

· 유물 보존 장비 및 기타 기자재 구성비: 13억

### 제 3 안. 소극적인 방식의 유적 복원 I

주암동 돌무개 마을의 일부(과지초당 및 독우물터)만을 복원하고, 해당 유적지 인근에 소규모 기념관 건립한다. 이 경우의 소요 예산은 총 215억원이다.

#### 1. 유적 주변 정비 및 표시석 소요예산: 15억원

해당 유적지들 중 과지초당과 독우물터를 복원하고 나머지 유적들에 대해서는 표시석을 세우는 정비 작업 수행. 추사 기념 서예 박물관은 유적지 인근의 공공용지에 건립.

##### (1) 과지초당·독우물터 유적 및 기타 유적 정비 및 표시석

###### 1) 면적

과지초당 및 독우물터: 약 110평(주암동 179-1 번지/ 179-7번지)

###### 2) 소요 예산

토지 매입비: 11억원

복원비: 과지초당+독우물터=2억원

기타 유적 정비비용: 2억원

#### 2. 추사 기념 서예박물관: 총 200억원

##### (1) 면적

총 연면적 약 800평

(2) 소요 예산

- 1) 토지매입: 인근 공공용지로 대체
- 2) 건축비: 100억원
- 3) 유물구입비: 50억원
- 4) 전시설비 및 자료구성비: 50억원
  - 버추얼 뮤지엄 구축비: 27억원
  - 영상자료실 구축: 10억원
  - 유물 보존 장비 및 기타 기자재 구성비: 13억

## 제 4 안. 소극적인 방식의 유적 복원 II

주암동 돌무개 마을의 일부(과지초당 및 독우물터)만을 복원하고, 추사 기념 서예 박물관은 과천시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당용지를 마련하고 추 후에 건립한다. 이 경우의 소요 예산은 총 15억원이다.

### 1. 유적 주변 정비 및 표시석 소요예산: 15억원

해당 유적지들 중 과지초당과 독우물터를 복원하고 나머지 유적들에 대해서는 표시석을 세우는 정비 작업 수행. 추사 기념 서예 박물관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타당한 지역을 확보한 후 건립.

#### (1) 과지초당·독우물터 유적 및 기타 유적 정비 및 표시석

1) 면적

과지초당 및 독우물터: 약 110평(주암동 179-1 번지/ 179-7번지)

2) 소요 예산

토지 매입비: 11억원

복원비: 과지초당+독우물터=2억원

기타 유적 정비비용: 2억원

2. 추사 기념 서예박물관:

과천시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타당한 지역을 확보한 후 건립.

부 록

과천시절 추사의 예술세계

## 만년의 시와 서정<sup>32)</sup>

추사의 과천 생활이란 이처럼 평범한 것의 연속이었다.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독서하고, 연구하고, 제자를 가르치고, 글씨를 쓰고, 벗들을 찾아가고, 벗의 방문을 받고... . 그 이상의 일이 있을 게 없는 매우 담담하고 조용한 나날이었다. 귀공자로 태어나 빼어난 기량으로 학문과 예술에서 명성을 날리고, 가문에 힘입어 출세가도를 달리며 ‘완당바람’을 일으키던 중년의 완당이나, 제주와 북청으로 귀양살이 가서 외로운 나날을 보내던 유배시절의 추사와는 또 다른 만년의 고적(孤寂)한 서정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었다.

그러나 바로 그런 평범한 생활 속에서 완당은 오히려 삶의 평범성과 보편적 가치를 몸으로 깨달으며 자신의 인생과 예술 모두를 원숙한 경지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특히 그의 시(詩)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북청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되어 지은 〈촌사의 벽에 제하다(題村舍壁)〉라는 시는 추사의 이런 모습을 아주 잘 보여준다. 이 시는 시보다 사연이 더 길고 가슴 뭉클한 감동을 준다.

길가의 마을 집이 옥수수밭 가운데 있는데 두 늙은 영감 할멈이 희희낙락하게 지낸다. 그래서 영감 나이가 몇이나 물었더니 일흔 살이라 한다. 서울에 올라가보았느냐 하니 평생 관(官)에는 들어가본 적이 없다고 했다. 무얼 먹고 사는가 물으니 옥수수를 먹는다 했다. 나는 마냥 남북으로 떠다니며 비바람에 휘날리던 신세라 노인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망연자실하였다.

한 그루 늙은 버들, 두어 서까래 집에	禿柳一株屋數椽
머리 하얀 영감 할멈 둘이 다 쓸쓸하네.	翁婆白髮兩蕭然
석 자가 아니 되는 시냇가 길 못 넘고서	未過三尺溪邊路
옥수수 가을바람에 칠십 년을 살았다오.	玉西風七十年

32) 이하의 유흥준의 글은 필자와의 협의하에, 『완당평전』(제2권, 학고재, 2002, 705-63쪽)의 내용을 정리하여 다시 수록한 것임.

그리하여 완당이 과천으로 돌아온 뒤 인근의 관악산 자하동(紫霞洞)에서 읊은 시나 〈빗속에 국화를 옮기다(雨中移菊)〉 〈청계산 나무꾼이 신령스런 벼포기를 얻었다기에 희작하다(淸溪山樵人得靈戲作)〉 〈칠석에 여러 소년과 노닐면서 화답한 시를 부질없이 여기에 쓴다(七夕戲和諸少年 漫題于此)〉 〈과천에 우거한 촌사(果寓村舍)〉 등 이 시절의 시를 보면 담담하면서도 삶의 관조가 은근히 배어 있다. 시의 소재도 아주 일상적이고 평범하다. 이런 모습은 타계하는 그 해에 촌부(村夫)의 즐거움을 노래한 〈대팽두부(大烹豆腐)〉 같은 최후의 대련 작품으로 이어진다.

그런 의미에서 추사의 과천시절 시와 글씨를 말할 때 나는 극히 개인적인 견해지만 〈시골집 봄날(田舍春日)〉이라는 시축(詩軸)을 대표작 중 하나로 꼽곤 한다. 폭 30여 cm, 길이 350여 cm의 장권(長卷)으로 유려한 필치와 능숙한 행간 구성 그리고 점·획 하나하나에서 쇠조각을 오려낸 듯한 강한 기상과 삭풍이 몰아치는 듯한 매서운 필세를 느끼게 하는 명작 중의 명작이다. 완당 노인은 언수(彦收)를 위해 이 글을 써주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아름답고 장한 글씨를 받을 수 있었는지 궁금하다. 완당이 〈단전의 관악산 시에 제하다〉라는 글 끝에 언(彦)을 위해 썼다고 한 것으로 보아 혹시 단전이 그의 호인지도 모르겠다. 이 작품은 글씨를 보는 맛만으로도 이런 행복과 놀라움이 넘치는데 그 내용이 지닌 처연한 애수가 사람의 가슴을 저리게 한다. 개똥지빠귀의 노래이다. [그림 1 참조]

개똥지빠귀는 들 가운데서 기운 드높고  
 마을 꽃 움트고 버들잎 물결치려 한다.  
 작은 창에 비친 해 그도 좋거늘  
 자고 먹고 날며 울기 애쓰지 마라... ..  
 개똥지빠귀는 동짓날에 비로소 소리를 내고  
 하짓날에는 드디어 소리가 들어가니 이것은 양조(陽鳥)이다... ..  
 옛사람들은 이런 뜻은 하나도 언급하지 않고 도리어 그 많은 것만을 조롱  
 하였다.  
 내가 사는 가까운 들판에 이 새가 많으니 촌 아이들로 하여금 이 시로써

매개를 삼아 그것을 구해보게 하련다.(최완수, 『추사정화』, 지식산업사, 1983에서 번역 전재)

완당은 어느새 자신에게 주어진 그 쓸쓸한 삶의 조건에 이렇게 익숙해져 있었다. 이제 그는 거부할 수 없는 이 노년의 삶에서 차라리 편안히 자적(自適)하는 슬기와 여유조차 갖는다. 과천시절 이후 추사의 편지에 스산한 서정의 머리글이 더욱 심도 깊게 구사된 것도 사실은 이런 심사의 표현이었다. 그런 중 완당이 어느 날 벗에게 보낸 편지에는 낭만적 자적을 독백조로 천공(天空)에 대고 소리치듯 외친 것이 있다.

나는 천성이 노는 것을 즐거워하여... 늘 좋은 놀이를 만나거나 좋은 반려를 만나면 낮놀이가 부족하여 밤까지 계속했으며, 근심과 걱정을 하도 많이 겪어서 삶과 죽음까지 깨우쳐 통했으니 처자나 집안일 따위는 마음에 걸릴 것도 없이 오직 대나무 한 포기, 돌 한 덩이, 꽃 한 송이, 풀 한 포기라도 진실로 마음에 붙일 만한 곳이 있다면 거기에서 세상을 마칠 생각을 가졌지요.

하물며 이른 봄과 늦봄 사이의 강마을 경치는 더욱 아름다워, 꽃은 비로소 봉오리가 터지고 새들은 다 등지를 벗어나며 하늘은 옅은 청색을 띠고 물은 짙은 초록을 지으면서 만 그루 복사꽃이 붉고 천 그루 배꽃이 희게 다투어 벌어지고 백리 들판의 보리는 푸르고 누렇게 펼쳐졌는데, 나는 이따금 홀로 그 속을 거닐며 짐짓 들까치를 설레게 하고 왕왕 노래를 부르며 흰 구름을 뚫고 가곤 했지요. 간혹 옛벗을 만나면 그윽하고 먼 데를 마음껏 구경하고... ... 낮에는 역사책을 읽고 새벽에는 경전을 공부하며 해가 기울도록 벗을 붙들고 밤중이면 귀신과 얘기하며 밤낮의 구경을 다하여 흠뻑 젖어드는 흥취를 실컷 푼다면 그 즐거움이 거의 죽음을 잊을 만도 하지 않겠소.(전집 권5, 어떤 이에게)

추사의 이런 낭만적 독백은 사실 외로움의 다른 표현이기도 했다. 아니, 외로움을 견디기 위한 자구책이었는데도 모른다. 완당 만년의 외로움은 이처럼 처연한 것이었다.

완당이 타계하는 병진년 봄이었을 것 같다. 완당은 빗속에 젖는 복사꽃을 보며 쓸쓸한 자신의 신세를 노래했는데, 애잔한 슬픔조차 일어난다. 제목은 <과우즉사(果寓卽事)> 라고 했다.

뜨락의 복사꽃 눈물 흘리니	庭畔桃花泣
어찌 가랑비 내리는 때문이겠소.	胡爲細雨中
주인이 병에 잠긴 지 오래라	主人沈病久
봄바람에도 감히 웃지 못한다네.	不敢笑春風

완당은 이런 외로움과 낭만적 자적과 처연한 생의 관조 속에서 인생에서 중요한 새로운 가치를 깨달았으니 그것은 평범성·보편성의 가치와 관용의 미덕이었다. 이제 완당은 더 이상 개성을 드러내지도 않았고 시비를 따지지도 않았다. 그런 평범성·보편성과 관용의 그릇 속에 그 뜨거웠던 학문적·예술적 열정을 원숙하게 익히게 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귀양살이 10년이 그에게 선물한 더없이 값진 가르침이었다.

## 완당의 열정과 관용

나는 여기서 완당의 열정과 관용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본다. 완당은 기질적으로 대단히 열정적인 분이였다. 그의 왕성한 지식욕과 창작열은 그런 기질이 가장 긍정적으로 아름답고도 위대하게 나타난 부분이다. 상상을 초월하는 박학한 지식과 그 양이 얼마였는지를 알 수 없는 서예작품이 이런 열정의 소산이다.

완당은 그 불 같은 내적 열정 때문에 모르는 것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지 못했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끝까지 찾아내고야 말았다. 진흥왕비를 찾아내는 집념, 후배 윤정현에게 30년 만에 써준 <침계> 라는 작품, 완원의 『황청경해』 1400권을 끝내는 구해오고야 마는 것도 그런 열정의 소산이다.

완당은 또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최고여야 한다는 철저한 완벽주의를 갖고 있었다. 조금이라도 부실하거나 불성실한 것을 참지 못했다. 그는 벼루 열 개가 뚫어지도록 글씨를 훈련하는 엄청난 수련을 겪은 사람답게 당당하게 제자들에게 구천구백구십구분을 언더라도 나머지 일분까지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쳤다. 완당이 좋은 글씨를 위하여 얼마나 지·필·묵을 가려 썼는가를 보면 거의 기점을 할 정도이다. 그는 “대가(大家)는 붓의 좋고 나쁨을 가리지 않는다는 말은 진실로 잘못된 말”이라며 자신은 최고급 붓, 그 중에서도 쥐수염만 모아서 만든 서수필(鼠鬚筆)을 즐겨 사용했다. 일껏 써놓은 저서를 몇 차례 불태웠다는 것도 이런 완벽주의의 소산이다. 또 완당은 자신이 체득한 학예의 성과를 세상에 널리 퍼뜨리며 그렇게 세상을 위하여 애쓰는 것으로 학자의 사명 또는 지식인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자 했다. 그는 “알면 말하지 않은 것이 없고, 말하면 다하지 않은 것이 없다(知無不言 言無不盡)” 고까지 말했다.(전집 권4, 오규일에게, 제2신) 그리하여 완당은 자신이 추구하는 학문과 예술을 함께할 수많은 벗과 제자들로 ‘추사 일파’의 ‘완당바람’을 일으켰던 것이다. 그런 열정으로 학문과 예술에 임했던 사람은 조선 천지 상하 삼천년에 다시 없었다. 종횡 십만 리, 중국에도 드물었다.

그러나 완당의 열정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 그것은 관용의 미덕이 결여되었다는 점이다. 매사에 시시비비를 확실하게 따져야 했고, “알면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성미 때문에 결국 수많은 적을 만들어 끝내는 남쪽으로 귀양가고 북쪽으로 유배가는 고초를 겪어야 했던 것이다. 열정과 관용은 선택이 아니라 불 같은 열정에 너그러운 관용이 결들여질 때 비로소 그 극한 경지에 다다를 수 있는 것이다. 만약에 관용의 미덕을 결들이지 못했다면 완당의 뜨거운 열정과 개성이라는 것도 결국은 한낱 기(奇)와 괴(怪)에 머물고 말았을 것이요, 끝모르고 치솟던 기개도 어느 정도 높이에서는 허리째 부러지고 말았을지도 모른다. 완당은 그 관용의 미덕을 귀양살이 10년에 배웠고 이제 과천시절 그의 예술에 나타나게 된 것이다.

사실 이것은 참으로 기본적인 인생의 자세일 것인데 그것은 알기가 힘들 뿐 아니라 알아도 행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이다. 개성을 갖기는 차라리 쉬워도 그것을 받쳐줄 관용과 보편성을 얻기는 매우 어려우니 『삼국지연의』를 보면 용맹스런 장수나 지략 있는 모사는 많아도 덕장(德將)이 드문 것과 같다고나 할까. 이렇게 말하는 나 자신 또한 아주 작은 일에서도 이를 잘 실천하지 못한다.

지난 여름, 보령 성주사터 답사길에 대천 무창포 해수욕장에서 학생들과 하룻밤을 묵어가던 날이었다. 아침 바다를 일 없이 산보하다가 문득 야무진 석질에 무늬가 아름답고 형태도 기이한 주먹만한 돌들이 보여 그 중에서도 특이한 것을 여러 개 골라놓고는 어느 것이 가장 좋은가 품석(品石)하고 있는데, 평소 책 읽고 발표하는 것은 둔해도 작품을 보는 감각만은 뛰어나다는 생각이 드는 미술대학 출신의 수빈이라는 여학생이 눈웃음으로 아침인사를 대신하고는 내 곁에 와서 앉는다. 나는 옳다 싶어 수빈이에게 어느 것이 제일 좋으냐고 물으니 그는 여지없이 1등, 2등을 잘라 말한다. 나는 그의 판단대로 두 개를 한 손에 하나씩 쥐고 일어나려 하니 그는 내게 반문하듯 묻는 것이었다.

“ 샘(선생님), 그렇게 기이한 것만 갖고 가면 오랫동안 즐길 수 없잖아 예.” “ 그러면 평범한 것을 가져가란 말이나?” “ 어데예(아니오), 그러니까 곁들여야지예.”

바로 그것이다. 곁들여야 한다. 개성과 보편성, 열정과 관용은 곁들여야 되는 것이다.

## 노과시절의 졸(拙)과 허(虛)

과천시절 완당은 글씨를 무수히 써서, 지금 남아 있는 것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특히 과천시절에는 낙관을 할 때 명백히 이 시절 작품임을 알려주는 노과(老果)·과파(果坡)·과형(果兄)·과산(果山)·청관산인(靑冠山人)·과칠십(果七十)·칠십일과(七十一果) 등을 사용했기 때문에 실수 없이 가려낼 수 있다. 여기에 간찰까지 더하면 그 숫자는 자못 방대해진다. 그뿐만 아니라 원숙한 노경의 명작들이 이 시기에 쏟아져나왔으니 완당의 예술은 과천에서 결실을 맺었다고 할 수 있다.

완당은 과천시절로 들어서면서 비로소 자신이 스스로 허물을 벗었다고 권돈인에게 자신감을 표하였으며, 그 경지를 “ 잘되고 못되고를 가리지 않는다”는 ‘ 불계공졸(不計工拙)’ 이라고 했다. 이 말이야말로 ‘ 추사체’의 본령을 말해주는 한마디이다. 이 경지를 위해 그가 얼마나 애써왔던가.

강상시절에 완당이 글씨에서 새롭게 발견한 경지는 ‘ 괴(怪)’의 가치였다. 즉 개성의 구현이었다. 그런데 과천으로 돌아온 지금 완당은 졸(拙)함을 말하고 있다. 기교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기교를 감추고 졸함을 존중하는 것이니, 이는 곧 노자가 말한 ‘ 대교약졸(大巧若拙)’, 즉 “ 큰 재주는 졸해 보인다”는 의미의 졸이다. 후세 사람들이 완당의 글씨는 꾸밈이 없다고 한 얘기는 바로 이 점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완당 글씨의 본질은 괴와 졸의 만남이라고 할 만하다. 완당이 사용한 ‘ 불계공졸’과 ‘ 수졸산방(守拙山房)’이라는 도장도 혹시 이때부터 사용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완당은 이렇게 졸의 가치를 찾으면서 괴의 부정적 측면을 극복해내었다. 본래 완당 글씨의 ‘ 괴’란 괴 자체를 추구해서 나타난 것이 절대로 아니었던 것이다. 완당은 그런 작위적인 ‘ 괴’를 오히려 경멸하였다. 완당은 이렇게 말했다.

요새 사람들의 속된 글씨를 보면 모두 객기를 부려 비양(飛揚)하는 것만을 숭상하여 초서에 이르러서는 마침내 하나의 부적을 만들고 마는 실정이다.(전집 권7, 잡저, 김석준에게 써서 보여주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완당은 그 ‘괴’가 결코 의식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러나온 개성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완당은 이를 ‘허화(虛和)’라고 했다.

추사체의 특징을 어떤 이는 ‘기(氣)’의 글씨로 말하기도 한다. 기는 기로되 뒤에 운(韻)이 따르는, 주기후운(主氣後韻)이라고도 했다. 유취진이 추사체를 설명하여 괴상하다고 한 것은 ‘기’를 말함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한 것은 ‘운’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얻어낸 경지가 곧 ‘허화’이다. 완당은 이를 이렇게 설명했다.

요즘 사람들이 써낸 글씨를 보니 다 능히 허화하지 못하고 사뭇 악착한 뜻만 많아서 별로 나아간 경지가 없으니 한탄스러운 일일세. 이 글씨의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허화한 곳에 있으니 이는 인력으로 이르러 갈 바가 아니요, 반드시 일종의 천품(天品)을 갖추어야만 능한 것이며, 심지어 법을 갖추고 기(氣)가 이르러 가면 한 경지가 조금 부족하다 해도 점차로 정진되어, 스스로 가고자 아니해도 곧장 뼈를 뚫고 밀바닥을 통하는 수가 있게 마련이라네.(전집 권4, 김석준에게, 제4신)

완당은 그 ‘허화’의 경지를 늘 동경해왔다. 완당은 옛날에 왕헌지(王獻之)가 벗 대규(戴逵)를 만나러 갔던 고사를 빌려 허화로움의 가치를 아주 적절히 설명했다. 왕희지의 아들인 왕헌지가 산음(山陰)에 살 때 하루는 밤 눈이 개자 대규가 보고 싶어 달빛을 타고 벗 대규를 찾아갔다. 그러나 대규의 집이 바라보이는 강가에 다다라서는 굳이 대규를 만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그냥 돌아와버렸단다. 그래서사람들이 그 까닭을 물으니 “홍을 타고

갔다 흥이 다하여 돌아왔을 뿐이다. 어찌 꼭 만나 봐야 그 흥이 있겠는가” 라고 했다는 것이다.

바로 그런 기(氣)와 흥(興)이 넉넉하고 고르게 가라앉은 비움[虛] 속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옛사람이 글씨를 쓴다는 것은 바로 저절로 쓰고 싶어서 쓴 것이다. 글씨 쓸 만한 때는 이를테면 왕헌지의 산음설도(山陰雪棹)에서 흥을 타고 갔다가 흥이 다하면 돌아오는 그 기분인 것이다. 때문에 가고 머무는 뜻에 따라 조금도 구애받는 것이 없으며, 서취(書趣) 역시 천마(天馬)가 공중을 나는 것과 같다. 그런데 지금 글씨를 칭하는 자들은 산음에 눈이 오고 안 오고를 헤아리지 않고, 또 왕헌지를 강요하여 곧장 대규의 집으로 향해 가는 식이니 어찌 답답하지 않겠는가.(전집 권8, 잡지)

완당이 만년에 와서 강조하는 그 허화로움과 고졸함의 가치는 그의 글씨에 남김없이 반영되어 있다. 그래서 완당이 추구했던 괴(怪)가 괴(怪)한 것이 아니라, 박규수와 유취진이 말했듯이, 아무 잘못이 없는 천연스러운 경지로 나아가게 된 것이다.

## 〈산송해심〉 〈유천희해〉

완당의 과천시절 글씨 중 가장 유명한 것의 하나이자 완당의 대표작으로 서슴없이 꼽히는 〈산송해심(山崇海深)〉 〈유천희해(遊天戲海)〉 [그림 2와 3 참조]는 과연 불계공졸의 명작이다. 폭 42cm, 길이 420cm로 현존하는 완당 작품 중 최대일 뿐만 아니라, 전서·행서·예서체가 함께 어우러져 보이는 그의 눈을 사로잡아 마치 홀리는 듯한 귀기(鬼氣)까지 느껴진다. 그래서 혹자는 이 글씨는 완당 글씨의 줄한 맛보다 ‘괴(怪)’가 강한 작품이라고 평하기도 한다.

산송해심, “ 산은 높고 바다는 깊네” 라는 이 글귀의 근거는 용방강이 ‘ 실사구시’ 정신을 풀이한 글 속의 한 구절이다. 그런데 함흥 지락정(知樂亭)에도 누군가가 쓴 <산해송심> 이라는 액(額)이 있는데 이 글씨 또한 기괴하기로 유명했던 모양이다. 완당은 북청 귀양살이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 글씨를 보고는 권돈인에게 소감을 말한 적이 있다.

함흥을 지나다가 지락정에 올라 <산해송심> 액을 쳐다보니 글자가 심히 기괴하고 웅장하더군요. 예전에 연지(蓮池) 박정승이 구태여 해(海)자를 지적하여 말을 했으나 이는 전혀 예법(隸法)을 깨치지 못한 것이니 아연히 크게 웃을 수밖에 또 있겠소.(전집 권5, 어떤 이에게)

유천희해, “ 하늘에서 놀고 바다에서 노닌다” 는 글은 원래 운학유천(雲鶴遊天) 군홍희해(群鴻戲海), 즉 “ 구름과 학이 하늘에서 노닐고 기러기때가 바다에서 노닌다” 는 구절에서 나온 것으로 이는 양무제(梁武帝)가 종요(鍾繇)의 글씨를 평한 말이다. 특히 이 구절은 청나라 건륭황제가 만든 『삼희당법첩(三希堂法帖)』의 맨 첫머리에 왕희지보다도 1세기 반 앞선, 서예사의 종장격인 종요 자신의 글씨로 실려 있어서 서가들은 대개 알고 있고 또 즐겨 써온 글귀이다.

<산송해심> 과 <유천희해> 는 본래 한 작품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글씨의 모양이나 내용 그리고 종이의 질과 크기로 보아 한 작품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를 따로 떼어 두 점 값을 받고 팔았다. 1957년 3월 대한고미술협회가 주관한 대규모 고서화 경매전에서 <산송해심> 은 애호가인 제동산업 심상준 사장이 55만 환에, <유천희해> 는 소전 손재형이 121만 환에 낙찰한 것으로 기록에 나와 있다. <산송해심> 은 낙관이 없어서 반값인 셈이다. 그리하여 이 작품은 오랫동안 ‘ 이산가족’ 이 되고 말았는데, 지금은 두 점 모두 호암미술관에서 소장하게 됨으로써 다시 상봉하였다.

## 곽유도비 병풍

완당은 제자들에게 고전을 열심히 임모할 것을 누누이 강조했는데 완당이 68세 때 이를 몸소 실천한 팔곡대병(八曲大屏) 대작이 있어 큰 감동을 준다. 1853년에 쓴 〈곽유도비(郭有道碑) 임서(臨書)〉 [그림 4 참조]가 그것인데, 이를 보면 이 위대한 예술가의 장인적 성실성에 절로 머리가 숙여진다.

글자 하나의 크기가 어린애 머리만 하니, 늙고 병든 완당이 이 글씨를 쓰는 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그 수고로움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엄정한 글씨임에도 글자마다 편하고 순후한 멋이 너무도 짙게 배어 있어 〈산송해심〉 〈유천회해〉 같은 개성적인 작품과는 달리 사람의 가슴을 차분히 가라앉히며 허화한 곳으로 이끌어준다.

〈곽유도비〉 [그림 5 참조]는 후한 건녕(建寧) 2년(169)에 세워진 곽태(郭泰)의 비로, 그는 유도(有道)라는 관리 등용제도에 따라 추천되었으나 벼슬에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곽유도라고 불렸다. 이 비는 산둥성(山東省) 제녕(濟寧)에 있는데 비문의 글씨가 하도 아름다워 사람들은 채옹(蔡邕; 132~192)의 글씨라고 말하기도 한다.

완당은 바로 저 아름답고 준경한 글씨를 정성껏 임(臨)하면서 이 장대한 병풍을 완성한 것이다. 그런데 완당이 임서한 글씨를 〈곽유도비〉 원글씨와 비교해보면 그 형태미가 아주 다름을 알 수 있다. 우선 원비는 글자의 구성이 옆으로 긴데 완당의 글씨는 아래위로 길다. 빼침과 파임에서도 완당은 마치 전서를 쓰듯 누르거나 굴곡을 주지 않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완당의 임서에서는 원본과 달리 후한 예서의 아름다움보다 전한 예서의 순정한 맛이 오히려 강하게 풍긴다. 이런 점을 임창순 선생은 특별히 강조하여 다음과 같이 충고하였다.

이 비는 예서로 지금까지 추사가 쓴 것과는 다른 것이나 추사는 꼭 외형을 모방하려 하지 않고 (후한의 예서 글씨임에도 불구하고) 전한 예서[西漢隸]의 정신을 살려서 임서(臨書)한 것은 추사의 서법 연구에는 물론 일반 서가에게도 매우 중요한 시사를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한국의 미 17-추사 김정희』, 도판 해설 74·75)

이 작품은 본래 장택상의 소장품으로 그가 자주 드나들던 옛 경주의 명소인 고도(古都)여관(오늘날 한정식집 요석궁) 여주인이 소유하고 있어 이 여관의 또 다른 큰 자랑이었는데 지금은 영남대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다.

## 초의의 〈명선〉

완당이 이처럼 옛비의 글씨를 임서하거나 그 필의를 빌려 쓴 작품에는 명작이 많다. 그것은 아마도 완당이 그 열정적인 기(氣)와 성령(性靈)을 스스로는 컨트롤하기 힘들지 몰라도 고전적 명비를 임모하다 보면 저절로 운(韻)과 격조(格調)가 받쳐주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그런 글씨로는, 혹자에 따라서는 완당의 대표작으로 꼽고, 혹자는 비록 대표작은 아니어도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가지고 싶은 작품으로 손꼽는 〈명선(茗禪)〉이 있다.[그림 6 참조]

이 작품은 초의가 보내준 차에 대한 답례로 쓴 것인데 그 필의가 〈백석신군비(白石神君碑)〉에 있음을 협서로 정확히 밝혀두었다.

초의가 스스로 만든 차를 보내왔는데 몽정차나 노아차 못지않았다. 이 글씨를 써서 보답하는데 〈백석신군비〉의 필의(筆意)로 쓴다.

〈백석신군비〉는 한나라 광화(光和) 6년(183), 하북성 직례현(直隸縣) 원씨(元氏)마을 백석산(白石山) 산신의 덕을 칭송하기 위해 세운 비로, 지금은 원씨여자고등학교 교정에 있다고 한다. 특히 이 비문의 글씨는 위아래로 조금 긴 형태이지만 용필상 기괴함이 전혀 없고 포치가 정연하여 지순한 느낌을 준다. 그래서 혹자는 한나라 비문치고는 너무 골기가 적어 위진 시대에 재각(再刻)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그림 7 참조]

그러나 완당은 이 글씨에 순후(淳厚)하면서도 예스러운 멋이 넘쳐, 졸(拙)한 가운데 교(巧)한 맛이 숨어 있음에 착안하여 〈명선〉 두 글자를 쓴 것이다.

특히 중후하고 졸한 멋의 〈명선〉 두 글자 양옆에 작고 가늘며 흐름이 경쾌한 행서가 치장되어 있어 작품의 구성미도 가히 일품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경지란 〈명선〉이 다선일치(茶禪一致)를 말하듯 서선일치(書禪一致)라고나 할까.

## 〈사야〉 〈계산무진〉 〈화법유장강만리〉

완당의 과천시절 글씨는 〈곽유도비 입서〉나 〈명선〉처럼 한나라 예서체의 필의를 따른 방정한 글씨가 많다. 그러나 완당이 이처럼 고비(古碑)에 입각한 글씨만 쓴 것은 물론 아니다. 〈산송해심〉 〈유천회해〉 같은 진짜 추사체의 개성을 보여주는 작품도 많이 남겼다.

완당의 작품 중 〈사야(史野)〉 〈계산무진(谿山無盡)〉 〈화법유장강만리(畫法有長江萬里)〉 같은 작품들은 비록 간지가 찍어 있지 않지만 완당 노년시절의 대담한 변화를 남김없이 보여준다.

〈사야〉 현판은 완당이 병조판서 권대정(權大正)에게 써준 것으로 그 내용은 『논어』에서 군자를 설명한 ‘세련됨과 심심함’이라는 뜻이다. 글씨가 워낙에 대자인지라 웅혼한 힘이 절로 가득한데 글자의 구성에서 대담하

게 크고 작음 굵고 가늠을 혼용하여 울림이 강하게 일어난다.[그림 8 참조]

이에 반하여 〈계산무진〉은 의도적으로 힘준하고 깊은 계곡의 느낌이라도 나타내려는 듯 상상을 초월하는 변화를 꾀하였다. 완당의 글씨를 보면서 ‘괴’를 말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글씨를 염두에 둔 것이리라. 그러나 그 ‘괴’라는 것이 조금도 어색하지 않고 하등의 잘못도 발견되지 않는다.[그림 9 참조]

이 글씨는 계산(溪山) 김수근(金洙根:1798~1854)에게 써준 것이다. 김수근은 본관이 안동, 자는 회부(晦夫), 호는 계산초로(溪山樵老)이다. 목사 김인순의 아들이고 문과에 급제하여 판서에 이른 이로 철종 때의 명신 김병학(金炳學)과 김병국(金炳國)의 아버지이다. 완당은 김수근과는 별로 가까이 지낸 것 같지 않지만 그 아들 병학이 완당의 글씨를 좋아하여 잘 따랐던 것 같다. 그것은 『완당선생전집』에 김병학에게 보낸 편지가 두 통 실려 있는데 모두 글씨에 관한 내용인 것으로 알 수 있다.

또 김수근의 비문은 김병학이 쓴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완전한 완당 글씨인지라 사람들은 완당의 글씨에 이름만 김병학이 쓴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이다. 이 비는 지금 온양민속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계산무진〉은 김병학이 완당에게 부탁하여 써준 것으로 생각된다.

완당은 이처럼 전·예·해·행·초서를 한 작품 안에 섞어 쓰기를 잘했다. 완당 스스로가 옛 대가의 글씨를 보면 이처럼 서체를 중횡으로 구사한 예가 많았다고 말하기도 했으니 완당 글씨의 ‘괴’는 그런 각체의 능숙한 혼용에서 오는 경우가 많았다.

완당의 파격적인 아름다운 글씨를 말할 때면 누구든 먼저 손꼽는 명품이 〈화법유장강만리〉이다. 이 대련은 그 자체가 빼어난 예술론이라 할 명구이다.

그림 그리는 법에는 양자강 일만리가 다 들어 있고 書法有長江萬里  
글씨의 뻗침은 외로운 소나무의 한 가지 같네. 書勢如孤松一枝

글씨의 골격은 예서지만 날날 획의 구사에는 해서법과 행서법이 섞여 있다. 능숙한 변형이 아니라면 글씨가 기괴하고 말았을 텐데 완당의 능숙함은 그것을 오히려 변화의 아름다움으로 끌어올린 것이다.

이 대련의 협서는, 진실로 문자향 서권기 넘치는 서화란 정신에 있는데 요즘 서화가들은 그 정신은 갖추지 못하고 형태만 흉내내고 있음을 비판한 글이다.

근자에 마른 붓과 밟은 먹을 가지고서 억지로 원나라 사람의 황한(荒寒)하고 간술(簡率)한 것을 만들어내는 자들은 모두 자신을 속이고 나아가서는 남을 속이는 것이다. 왕유·이사훈·이소도·조영양·조맹부 같은 이들은 다 청록(靑綠)으로써 장점을 보였으니 대개 품격의 높낮음은 적(跡)에 있지 않고 뜻에 있는 것이다. 그 뜻을 아는 자는 비록 청록·이금(泥金)이라도 역시 좋으며 서도 역시 그러하다.

그리고 이 협서의 내용은 『완당선생전집』에 그대로 실려 있는데 그 제목이 「조희룡의 그림 대련에 제하다(題趙熙龍畫聯)」로 되어 있어 잠깐 나를 당황하게 만든다. 만약 『완당선생전집』에 실린 글 제목에서 화련(畫聯)을 서련(書聯)의 오자로 본다면 이 대련은 완당이 아니라 조희룡의 글씨라는 얘기가 된다. 또 우봉 조희룡이라고 이렇게 쓰지 못할 바도 아니었다.

그러나 화려한 냉금지에 거침없이 쓴 솜씨와 승련노인이라는 낙관과 ‘김정희인’ ‘추사’라는 도인이 조금도 의심되지 않으니, 완당은 이 글을 자신의 작품, 제자의 작품에 써놓으며 스스로 경구로 삼았던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완당이 ‘입고출신’ 하여 옛 전서와 예서를 자신만의 개성으로 구현한 또 다른 명품으로 <초사(楚辭)>의 한 구절을 옮겨 쓴 <난원혜묘(蘭畹蕙畝)>가 있다.[그림 10 참조]

이미 아홉 정보에 난을 심었는데  
또 혜란을 백 평에 심도다.

既滋蘭之九畹  
又樹蕙之百畝

이 작품을 보면 글씨가 예스러우면서도 너무나 아름답고 우아하여 마치 난초의 향기가 일어나는 것만 같다. 아마도 완당은 그런 마음으로 썼을 것이다.

## 동양 서예사에서 추사체의 위치

나는 이 시점에서 완당의 글씨, 이른바 ‘추사체’의 서예사적 위상을 한번 자리매김해볼 필요를 느낀다. 우리는 보통 조선 시대의 4대 명필로 안평대군 이용, 봉래 양사언, 석봉 한호, 추사 김정희를 꼽는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상 4대 명필로는 신라의 김생, 고려의 탄연, 조선 전기의 안평대군, 조선 후기의 김정희를 꼽는다. 여기서 또 그 중 둘을 고르라면 김생과 김정희만 남는다. 그러면 한 명만 꼽으라면 어떻게 될까? 나의 소견으로는 완당 김정희이다.

우리나라 서예사에서 완당의 업적이란 낡은 법첩(法帖)을 따르는 매너리즘과 향토색에 젖어 있던 어딘지 촌티나는 조선의 글씨를 비문 글씨의 고졸하고 준경한 기품을 간직한 개성적인 서체로 구현하여 국제적 감각의 싹을 일으켰다는 점이다.

그러나 추사체의 미술사적 의의는 그렇게 우리나라 서예사 속에서만 따

질 것이 아니다. 중국 서예사, 어쩌면 일본과 한국까지 포함하여 동양 서예사, 사실상의 세계 서예사라는 틀에서 그 위치를 가름해볼 때 더욱 명확해진다.

완당이 살아 생전에 활약한 시기는 19세기 전반기, 중국은 크게는 청나라, 좁게는 가경·도광 연간이다. 이때는 청나라 서예가 딜레마에서 벗어나 남북조·당나라·송나라·원나라·명나라로 이어지는 도도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바야흐로 문화적 개성으로서의 청나라의 서예를 만들어가고 있던 시기였다.

여기서 우리는 양현이 『평서결』에서 중국 서예사를 극명하게 요약한 다음 글을 다시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진나라 사람은 운(韻)을 숭상하고  
당나라 사람은 법(法)을 숭상하고  
송나라 사람은 의(意)를 숭상하고  
원·명나라 사람은 태(態)를 숭상했다.  
晉尙韻 唐尙法 宋尙意 元明尙態.

이 논리를 청나라에 이끌어 말하면, 청나라 사람은 학(學)을 숭상했고 그들이 지향한 글씨는 ‘입고출신(入古出新)’이며 개성으로서의 괴(怪), 즉 고전에 입각한 근대정신의 감성적 표현이었다.

이러한 청나라 시대 서예의 과제를 가장 훌륭히 수행해낸 서예가로는 과연 누가 꼽힐까? 보통 청나라 서예사는 정판교·유용·등석여·이병수·강유위·오창석·하소기 등으로 장식되어 있다. 그러나 그 누구 하나로는 청대의 서예를 대표하지 못한다. 입고가 강한 이는 출신이 약했고, 출신이 강한 이는 입고가 약했다. 진정한 입고출신의 개성적인 글씨,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서예가는 오직 완당 김정희뿐이다. 다만 그가 조선 땅에서 살았다는 이유로

중국 서예사에서 빠지고 있을 뿐, 동양 서예사, 세계 서예사의 차원이라면 당연히 완당이 그 위치를 차지하고도 남는다. 이는 후지츠카 지카시가 “청조학(淸朝學) 연구의 제1인자는 완당 김정희이다”라고 갈파한 것과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다시 정리하여 동양 서예사의 대맥에서 말한다면, 남북조 시대에는 왕희지·왕헌지가 있고, 당나라에는 구양순·저수량이 있고, 송나라에는 소동파·미불이 있고, 원나라에 조맹부가 있고 명나라에 동기창이 있다면 청나라 시대에는 완당 김정희가 있는 것이다.

## 과칠십

완당은 70세가 되자 호를 과칠십(果七十)이라고 했다. 70세의 과천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71세가 되자 이번에는 칠십일과(七十一果)라고 했다. 그렇게 평범한 말로 자신의 호를 만들어 쓰면서도 발음의 운을 위하여 ‘과칠십’ ‘칠십일과’ 하며 똑같은 과(果)자를 앞뒤로 붙였다.

과칠십시절 완당은 나날이 병중이어서 편지마다 자신의 추해져가는 모습을 한탄한다.

해가 바뀐 뒤에도 한번 만나기가 이렇게 더디고 근일에는 왕래하는 인편마저 들쭉날쭉하여 회답마저 이렇게 늘어지니 매양 병중에 고개를 쳐들고 생각하면 영감에게는 정이 잊혀지지를 앓는구려. 마른 나무, 차가운 채도 다 녹아나고 다 닦아버리지 않아서 그렇단 말입니까? 붓을 쥐고 애달파할 따름이외다. ... 이 몸은 초목의 낡은 나이가 칠순이 딱 찼으니 온갖 추한 꼴이 다 드러나서 사람을 대하면 부끄럽고 두려울 뿐이오.(전집 권4, 심희순에게, 제16신)

떠날 적엔 바람과 같아서 아무런 소식조차 미치지 않았고 올 적에는 번개와 같아서 빛과 그림자도 따라붙지를 앓았으니 이야말로 성색(聲色)과 견문(見聞)으로 구해선 아니 되는 것인가 보네. ... 이 몸은 칠십의 추한 꼴이

갈수록 명칭해지기만 하니 사람을 대하면 부끄럽고 두려울 따름이네.(전집 권4, 흥현보에게, 제4신)

과칠십시절 완당은 한 차례 대사를 치르게 된다. 그것은 양자 상무가 상처하여 새 부인을 맞아들이게 된 것이다. 이때 완당이 쓴 「혼서지(婚書紙)」는 예산 종가에 쪽 전해내려와 지금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44호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혼서지〉는 후손이 남에게 팔아버려 지금은 그 행방을 알 수 없다.

과칠십에도 완당은 기력을 잃지 않고 글씨를 썼다. 과칠십이라 낙관된 〈산중당유객(山中儒留客) 시첩〉은 완당의 건필을 유감없이 보여준다.[그림 11 참조]

그러나 완당은 이 만년의 삶이 너무도 외로웠던 모양이다. 완당은 그 외로움을 초의스님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토로했다.

스님께서서는 70년을 오로지 산중에서, 대숲 속에서, 그윽한 치자 향기 속에서, 솔바람 소리 속에서 계곡물의 맑음 속에서, 돌솥과 죽로(竹爐)를 벗삼는 다삼매(茶三昧) 속에서, 범패(梵唄)를 부르고 선구(禪句)를 외는 분위기 속에서 수행(修行)이 극에 이르러 눈썹이 땅에 닿는 도골(道骨)이 되셨으니 장로(長老)로 일컬어짐이 마땅한 줄로 압니다. 스님의 존귀함이 그와 같음에 비해 이 몸은 과거의 인연과 현재의 업(業)으로 말미암아 움직이면 곧 고해(苦海)이니 마른 초목처럼 얼마 남지 않은 잔년(殘年)을 어떻게 지탱할까 싶습니다. 이에 이르러 생각하니 스님과 더불어 동갑으로 평생을 살았으니 그 어찌 고락이 평등하고 참됨과 헛됨이 엇갈려 차별이 없는 평생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나이 칠십에 이른 이 추한 꼴은 멀리 스님의 맑은 처소에 소식을 전할 바 못됩니다. … 할 말 다하지 못함이 안타깝습니다.

5월 8일 노과(老果) 초의노스님 선귀(禪龕) 승련암(勝蓮庵)에서 써보냅니다.

완당은 초의스님이 곁에 있어주었으면 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내색도 할 수 없었다. 그 대신 주위에 있던 젊은 제자에게는 빨리 와달라는 부탁을 서슴없이 하였다.

송별한 지 제법 오래라 병든 회포를 안정하기가 더욱 어렵네. 가뭄에 더위가 극심한데 객지에서서의 근황은 어떠한지? 생각이 간절하다네.

나는 갑자기 설사병이 도져서 벌써 칠팔 일이 지났으나 차도가 없네. 늙어서 기운도 지탱하기 어렵고 병든 마음도 감당하기 어렵네. 자네가 이 소식을 듣고 한번 찾아온다 하기에 이와 같이 알리네.

즉시 출발함이 어떠한가? 자네가 곁에 있으면 병도 따라 나올 것만 같네. 잘 생각해보게나. 5월 26일 과로(果老).

이 편지를 보면 완당의 글씨가 마구 흐트러졌음을 볼 수 있는데, 혹 아들이 대필한 것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한다. 완당은 이런 병중에도 파칠십시절에 생애 기념비적 명작을 남기게 된다. 그것이 유명한 〈백파선사비문〉이다.[그림 12 참조]

## 〈백파선사비문〉

완당의 나이 70세 되는 해 어느 봄날, 정읍 백양사의 설두·백암스님이 과지초당으로 찾아와 3년 전에 돌아가신 백파스님의 비문을 지어달라고 청했다. 완당은 눈을 감고 스님과의 좋고 곳은 인연을 회상해보았다. 제주 유배중 「백파 망중 15조」를 지은 일, 귀양에서 풀려 돌아오는 길에 정읍 조월리에서 만나자는 약속에 대어가지 못해 뵈지 못한 것... . 백파스님이 입적하신 것은 1852년 4월 20일이었다. 그때 완당은 북청 유배중이어서 그런 사실도 몰랐다. 완당은 끝내 스님의 얼굴은 뵈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 다시 그 제자들이 찾아와 백파의 비문을 지어달라는 것이다. 이에 완당은 백파스님의 비문을 쓰면서 종래의 비문 형식을 다 버리고

비의 앞면에는 비의 이름을 해서체 큰 글씨로 쓰고, 뒷면에는 그 비의 이름을 풀이하는 글을 행서체 작은 글씨로 채웠다.[그림 13과 14 참조]

앞면은 통상 전서로 쓰지만 해서체로 썼고, 뒷면은 보통 해서로 쓰지만 행서로 썼다. 이것 자체도 파격이다. 결국 이 글씨는 완당 만년의 최고가는 해서·행서의 금석문이 되었다. 완당은 비의 이름을 이렇게 썼다.

화엄종주 백파대율사 대기대용지비(華嚴宗主 白坡大律師 大機大用之碑)

그리고 뒷면에는 그 뜻풀이를 유려한 행서로 정중하면서 도도하게 써내려갔다.

우리나라에는 근세에 율사(律師)로서 일종(一宗)을 이룬 이가 없었는데 오직 백파스님만이 이에 해당할 만하다. 때문에 율사라고 썼다. 대기(大機)와 대용(大用), 이는 바로 백파스님이 팔십 년 동안 늘 강조한 사항이다. 혹자는 스님이 기(機)·용(用)·살(殺)·활(活)에 지리하게 천착하였다고 하나 이는 절대 그렇지 않다. 무릇 세상의 사물을 대함에서 살·활·기·용이 아닌 게 없으니 비록 불경이 팔만이라고 하나 어느 한 가지 살·활·기·용의 밖으로 벗어난 것이 없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뜻을 알지 못하고 망령되어 살·활·기·용을 들어 백파가 고집한 착상(着相)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살이가 느티나무를 흔드는 격이다. 그러니 어찌 백파를 안다 할 수 있으랴.

예전에 나는 백파와 편지를 주고받으며 논변한 적이 있는데 이를 갖고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과는 크게 다르다. 이에 대해서는 오직 백파와 나만이 아는 것이니 아무리 만 가지 방법으로 입이 닳게 말한 다 해도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어찌하면 다시 스님을 일으켜 서로 마주앉아 한번 웃을 수 있으리요.

그러니 지금 백파의 비면(碑面) 글자를 지으면서 만약 대기대용, 이 네 글자를 대서(大書)·특서(特書)하지 않는다면 족히 백파의 비가 되지 못할 것이다.

이를 써서 설두(雪竇)·백암(白巖) 등 여러 문도(門徒)들에게 보여준다.

완당이 백파를 사모하는 마음, 사죄하는 마음이 그렇게 절절이 배어 있다. 선운사 부도밭에 서 있는 이 비는 못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아 그 탁본을 구하고자 달려드는 사람이 지금도 많다. 그 바람에 선운사에서는 함부로 탁본을 못하도록 비에 콩기름을 발라놓아 항시 반들반들 빛나고 있다.

나는 선운사의 백파선사비를 보러 무수히 그곳을 다녀왔다. 그렇게 여러 번 다녔으면서도 가장 인상 깊게 남은 것은 친구인 황지우(黃芝雨) 시인을 우연히 만나 완당의 글씨에 대해 서로의 느낌을 주고받은 때이다. 그때 우리의 얘기를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제1권에서 말한 바 있지만 다시 옮기면 이렇다.

나는 지우와 함께 백파선사비에 가서 내가 아는 바를 설명했다. 글씨에 얼마나 힘이 있고, 강약의 리듬이 있는가 보라고 했다. 그러자 저 감수성 예민한 시인은 이리저리 보면서 신기한 듯 어루만지는 것이었다. 나는 지우에게 이렇게 말을 건넸다.

“지우야, 나는 이 비를 볼 때마다 추사보다 더 위대한 것은 석공의 손끝이었다고 생각한단다. 글씨 획의 강약 리듬에 맞추어 힘준 곳은 깊이 파고, 흘러내리듯 그은 것은 얇게 새겨 추사체의 울림을 남김없이 입체화시켰잖나.”

지우는 내 말이 떨어지자 비문을 다시 만지면서 음미해보고, 멀찍이 떨어져 느낌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백파비를 떠나 우리가 다시 전나무 숲을 걷게 되었을 때 내게 이렇게 말했다.

“세상엔 고수(高手)가 많아요, 잉. 그래도 나는 추사가 석공보다 한 수 위인 것 같네요. 석공은 입면(立面)에 리듬을 새겼지만 추사는 그것을 평면

(平面)에 했잖아요.”

완당의 〈백파선사비문〉은 이 선운사비로 인하여 완당이 다시 한 번 쓴 〈우일본(又一本)〉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되는 일이 없다. 그러나 사실 두 분의 대기대용 논의는 〈우일본〉에 더 명확히 드러나 있다. 나는 얼마 전에 완당이 쓴 이 〈백파선사비문 우일본〉의 구록본(鈎勒本)을 본 일이 있는데 이 또한 과칠십 노(老) 완당의 필력을 유감없이 보여준다.[그림 15 참조]

그 원본은 과연 지금 누가 갖고 있는 것일까. 『완당선생전집』에는 그 〈우일본〉이 이렇게 실려 있다.

백장(百丈)은 단지 대기(大機)만을 얻었고 황벽(黃蘗)은 단지 대용(大用)만을 얻었다고 하니 과연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무용(無用)의 기(機)는 없는 동시에 무기(無機)의 용(用)도 없을 것 같은데 스님의 기와 용이 구족(具足)한 것은 이야말로 백장을 뛰어넘고 황벽을 넘어선 까닭인가? 스님은 반드시 받아들이지 않으려니와 또한 사양도 하지 않을 것이다... ..

지금 일컬은 기·용에 대하여는 진실로 그르침을 포개고 잘못된 것을 이어 받아서는 아니 되겠기에 백장·황벽을 위하여 해석의 글을 붙여 남의 조소를 면하고 또 이를 스님에게도 보여주는 바이다. 노과(老果)는 쓰다. 이때 내 나이는 칠십세다.

완당은 백파스님의 비문을 지으면서 이를 부탁하러 온 스님의 제자에게는 따로 〈백벽(百蘗)〉이라는 황액을 써서 선물하였다.[그림 16 참조]

백벽이란 완당이 백파선사의 비문 〈우일본〉을 쓰면서 말한 바, 백장스님은 대기를 얻었고, 황벽스님은 대용을 얻었다고 했으니 백장과 황벽을 모두 얻는 것이 곧 대기대용을 두루 갖추는 셈이 된다는 것이다. 완당의 작품에는 이렇듯 많은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 완당은 〈백벽〉 끝에 이렇게 그

뜻을 명확히 했다.

백파의 선문(禪門)의 종취(宗趣)는 대기대용을 드높이는 것이므로 이 두  
자를 써서 설두상인(上人)에게 준다.

白門宗趣 舉揚大機大用 以此二字書 付雪竇上人.

이 작품은 그 내용과 글씨 모두에서 완당 70세의 대표작으로 손꼽을 만한  
명작으로 바로 이때 쓴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완당은 백파스님의 제자들  
이 가장 좋아할 선물을 하나 주었다. 그것은 완당이 아주 아끼는 것이었다.

완당에게는 전부터 소장하고 있던 <달마대사 초상> 이 하나 있었다. 그  
런데 사람들은 이 달마상이 꼭 백파스님 같다고들 하는 것이었다. 이에 완  
당은 이 달마상을 영구산(靈龜山) 구암사(龜巖寺)로 보내 문도들로 하여금  
백파의 영정인 줄로 알고 조석으로 공양하라고 한 것이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계송을 써서 붙여주었다.(전집 권6, 백파상찬)

멀리서 바라보면 달마와 같은데	遠望似達磨
가까이서 보면 바로 백파로구려.	近看卽白坡
차별이 있음을 가지고서	以有差別
불이문에 들어갔네.	入不二門
흐르는 물이 오늘이라면	流水今日
밝은 달은 옛 모습이로세.	明月前身

## 완당 글씨의 국제적 인기

완당의 글씨는 인기도 대단하였다. 사람들은 점점 더 완당의 글씨를 좋  
아하고 그것을 더욱 가지고 싶어하여 마칩내는 시장에서 구입하기에 이르렀  
다. 이는 완당 사후의 얘기가 아니라 살아 생전의 일이다. 완당의 시 중에

는 다음과 같은 사연을 적은 긴 제목의 작품이 있다.

모씨(某氏)가 시중에 굴러다니는 내 글씨를 발견하고 구입하여 수장했다는 말을 들으니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입 안에 든 밥알이 벌 나오듯 튀어나왔다. 그래서 붓을 내갈겨 쓰며 부끄러움을 기록함과 동시에 서도(書道)를 약술하고 또 이로써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그것은 또 국내에만 머문 일이 아니었다. 이미 청나라 연경에서는 완당의 글씨를 갖고자 하는 문인·학자 들이 줄을 이었고, 역관으로 떠나는 완당의 제자들인 이상적·오경석·김석준 등이 과지초당을 드나드는 발길이 바쁘고 어깨가 무겁기만 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서예가의 소문은 마침내 일본에까지 전해졌다.

일본 사람이 글씨를 칭해왔는데 먼데 사람의 정중한 뜻을 저버릴 수도 없는 일일세. 다만 팔이 강하고 붓이 건장할 때는 조금만 정력을 허비하면 마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여지없이 쇠퇴하여, 예전에 산사(山寺)나 강사(江寺)에 있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고, 또 그대 같은 사람이 곁에서 도와주고 거들어주어야만 흥이 나서 가로 긋고 내리쓰고 할 텐데 적적한 마을, 창에 햇빛마저 들어오지 아니하고 안력은 몹시 달리고 필력(筆力) 역시 줄어들네. 지금 만약 급히 쓰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억지로 만들어낼 수는 없을 것 같네.(전집 권4, 양문원에게, 제2신)

이것은 어찌다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완당의 글씨를 청나라 사람, 일본 사람들도 구입해 간다는 증언은 상유현(尙有鉉1844~1923)의 「추사방현기(秋史訪見記)」에도 아주 구체적으로 나온다. 상유현은 이 글 첫머리를 이런 얘기로 시작했다.

우리나라 근세 명필은 추사 김정희를 제일로 꼽는다. 사람들이 다 그 체를 좋아하고 그 첩(帖)을 귀중히 여긴다. 청나라 사람들이 그 글씨를 많이 사기 시작하고 일본 사람도 또 많이 거두어 요즈음은 갈수록 귀해져 첩 하나의 값이 백여 원에 이르는 것도 있다. 내 알은 안목으로는 그리 귀히 여길 만한 무엇이 있어 그런지 알 수 없다.

그러면서 상유현은 청나라 문관으로 원세개와 함께 내한했을 때 의형제를 맺고 친하게 지낸 상헌(桑軒) 탕조현(湯肇賢)의 말을 빌려 이렇게 증언하였다.

청나라 사람 중 완당 공의 글씨를 사는 자는 글씨를 아는 서가(書家)였다. 그러나 오직 공의 예서만 구하고 행서·초서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 얼마 전 탕상헌과 공의 글씨를 담론한 적이 있었다. 탕(湯)은 “완당의 행·초는 편획(偏劃)이 있어 서예가는 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그러나 예자(隸字)는 고기(古氣)가 많고, 법식(法式)에 부합하여 참으로 해동 대가였다. 이를 중국에 두어도 족히 대가라 칭할 만하였다. 완당 노인의 글씨는 ... 넉넉히 정판교와 다룰 만하다.

추사와 정판교는 다 중국과 동국의 기괴한 글자의 대가요 비조(鼻祖)다.

여기서 완당의 행서·초서에 촉필이 많다는 평은 사실은 괴(怪)가 강하다는 뜻이며, 반면에 완당 예서에 옛비의 맛이 있음을 말한 것은 곧 추사체의 본령을 다시 한 번 확인케 하는 대목이다.

참으로 대단한 일이다. 돌이켜보건대, 우리나라 학자와 예술가로 세계무대에서 이처럼 높은 성과와 인기를 얻어낸 이가 완당 말고 누가 있었던가. 세계 속에서 우리를 당당히 펼칠 수 있는 민족적 기상과 자부심을 갈구하는 오늘날, 완당을 생각하면 세계화란 모름지기 그 같은 노력과 의지와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렇게 절절히 배울 수 있다.

## 칠십일과 병중작

과칠십에서 한 살 더 먹은 71세가 되자 완당은 이번엔 자신의 호를 칠십 일과라 했는데, 병진년(1856) 바로 그 해 10월 10일, 세상을 떠났다. 그런데 병진년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던 모양이다.

해가 바뀌고 달은 하순(下旬)이 되었습니다. ... 세후에 추위가 다시 심해지니, 참으로 춘신(春神)은 겸손을 지키고 있는데 동신(冬神)은 청렴하지 않다고 말할 만합니다. 옛 병진년의 유별난 추위가 지금 60년 만에 또다시 극성을 부립니다. 아직도 기억하건대, 당시 운종가(雲從街, 종로거리)에는 다니는 사람조차 없었습니다.(전집 권3, 권돈인에게, 제33신)

그러면서 그 모진 추위 속에서 병과 씨름하며 사는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하소연했다.

은 하늘에 봄눈이 내리니 갑자기 강정(江情)이 생각납니다. ... 정희는 무슨 까닭인지도 모른 채 세월을 마치 도가(陶家)의 물레처럼 쉽게 쉽게 돌려버리고 ... 실낱 같은 생명이 아직 남아 있기는 하나 쓸모없기는 닭갈비보다 심하고 험난하기는 양장(羊腸)보다 더한 지경이니 이를 어찌겠습니까? ... 늘 남을 시켜 받아쓰게 하다가 오늘은 대단히 힘을 들여 얼어붙은 붓을 입김으로 불어 녹여서 이와 같이 정성껏 써서 올립니다.(같은 글)

들을수록 노 완당의 모습이 딱하기만 하다. 그런데 이 편지대로라면 완당의 과천시절 편지에는 대필이 있었다는 얘기가. 아닌게아니라 아우·아들·제자, 모두 추사와 방불하게 썼으니 받는 이도 몰랐을지 모른다. 후대의 금강안들에게는 또 이것까지 가려내야 하는 일거리가 생긴 셈이다.

칠십일과시절 완당은 몸만 아프고 괴로운 것이 아니었다. 남달리 우애가 깊었던 완당으로서는 아우 명희가 사경을 헤매는 중병을 앓고 있어서 여간

마음쓰이는 것이 아니었다. 완당은 이 무렵 남에게 보낸 편지에서 항시 아우의 병이 낫지 않아 괴롭다고 했다. 그렇게 하루 빨리 아우의 병세가 회복되기를 빌었건만 김명희는 결국 이 해(1857년) 4월 나이 69세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것은 완당의 죽음 6개월 전의 일이었다.

육신이 병으로 고통받고 사랑하는 아우마저 병으로 몸져누워 있는 아픔을 당했다고 해서 완당이 삶을 체념하거나 생의 긴장을 풀었던 것은 아니다. 반대로 완당은 죽는 그 해 그날까지도 긴장을 풀지 않았다. 풀기는커녕 여전히 열정적으로 책을 읽고 글씨를 썼다.

심지어는 연경에 갔던 이상적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 궁금증을 이기지 못하여 언 팔을 호호 불며 편지를 썼다.

오늘은 어제와 같은데 어찌하여 금년은 작년과 다른지요? 해는 다름이 없는데 사람이 스스로 달리 여기는 것인지요?... 해 바뀐 뒤 추위는 더욱 심하니 이는 노인이 쇠약하여 능히 이겨내지 못하는 건가요... 연경 소식도 이미 당도하였고 모두들 태평한지요? 멀리서 바라는 마음 더욱 간절하외다.

이 몸은 새해를 맞아 좋은 일이라고는 조금도 없고 여전히 질곡 속의 괴로움뿐이니 스스로 그림자를 돌아봐도 역시 추할 뿐이외다. 뻗뻗한 언 팔을 불러대며 뒤로 미루고 다 갖추지 못합니다.(전집 권4, 이상적에게, 제1신)

이런 정열이 마지막까지 살아 있어 완당은 칠십일과시절 그 아픈 병중에 해서·행서·초서·예서·전서 각 장르에서 최후의 명작들을 남겼으니 칠십일과 병중작(病中作)이라는 말의 숙연함을 우리는 결코 가볍게 스치고 지나갈 수가 없다.

## 유석암의 「청애당첩 뒤에 제하다」

완당은 세상을 떠나는 그 해 그 순간까지 글씨에 대한 연구를 그치지 않

왔다. 그것은 병진년 인일(人日), 즉 정월 초이레에 「청애당첩 뒤에 제하다(題淸愛堂帖後)」라는 논문에 가까운 글을 쓴 사실에서 알 수 있다. 참으로 학자로서, 예술가로서 죽을 때까지 자신의 지적·감성적 열정을 다한 분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청애당첩(淸愛堂帖)〉은 청나라 건륭 4대가라는 옹·유·양·왕 중 석암(石庵) 유용(劉壙1719~1804)의 대표적인 서첩이다.

유용은 산동성 사람으로 자를 승여(崇如), 호를 석암·향암(香巖)·청원(靑原)이라 하였다. 동각대학사(東閣大學士)라는 높은 벼슬을 한 유통훈(劉統勳)의 장남이다. 부친은 해서와 행서에 능했고, 또 많은 전적과 글씨 명품을 소장하였는데 석암은 그 가업을 이어받아 당시 해서와 소자(小字)에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대가였다.

유석암은 진사에 급제하여 이후 체인각대학사(體仁閣大學士)라는 높은 관직에까지 올랐고, 시와 문장에도 능하여 사후에 문청공(文淸公)이라는 시호까지 받았다. 하지만 그 모두가 글씨의 명성에 덮여버렸다. 추사와 친교를 맺은 유희해는 바로 유용의 손자이기도 하다.

유석암은 86세까지 장수하는 동안 글씨가 몇 차례 바뀌었다. 처음에는 조맹부에 심취하여 “미녀가 머리에 꽃을 꽂은 것 같은” 곱고 단정한 글씨를 썼다. 그리고 중년에는 동기창을 열심히 배워 “필력이 강건하고 필세가 씩씩하게 되었다.” 유석암은 후에 소동파를 익혔고 또 노년에는 왕희지와 종요를 연구하였다. 이렇게 역대의 대가들을 배우면서 그는 첩학(帖學)을 집대성했다는 평을 받았다. 완당이 「청애당첩 뒤에 제하다」에서 석암 글씨의 강점을 강조한 것은 바로 이 대목이었다.

진성재(陳星齋, 陳兆崙)가 말하기를 당나라 글씨는 법(法)에 얽매이고 송나라 글씨는 뜻[意]을 취했으니 천년 전에 보인 진나라 글씨의 운(韻)은 끝내 뒤라서 분별할까(唐拘於法宋取意 晉韻千秋竟誰辯)”라 하였으니 이는 서예가의 삼매(三昧)라 하겠다.

유석암의 글씨가 자못 진나라의 운을 얻었다 하겠으니 당시의 서예가로

는 으뜸으로 (이러저러한 사람을 꼽으나) 부득불 석암을 거벽(巨擘)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

그 글씨가 후(厚)하면서도 능히 탈속(脫俗)하여 옛사람에 들어가 옛사람을 벗어났으며 만년(晩年)의 묘경(妙境)은 짚 수 없을 만큼 신명(神明)하였다. ... 이는 동기창 이후 처음 있는 글씨이다. ...

병진년(丙辰年) 인일(人日, 1856년 1월 7일)에 쓰다. 바로 석암이 이 권(卷)을 쓴 지 일주갑(一周甲,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완당은 이처럼 자신의 주관과 소견이 분명했다. 당시에 누가 이처럼 자신있게 유석암의 글씨를 평할 수 있었던가. 과연 중국에는 몇 사람이나 이런 안목이 있었던가. 완당이 보고 생각하는 시야는 이처럼 넓고 웅대했다. 그런데 이런 글의 전체 맥(脈)을 놓치고 완당을 “중국에 심취했다” “조선풍을 무시했다” “사대주의자였다”고 말한다면 도대체 세계사적 시각을 가진 사람은 다 그런 혐의를 받아야 한단 말인가.

그것은 마치 유석암의 글씨 전체를 보지 않고 한자 한자만 뜯어보고 먹 돼지[墨猪] 같고 토끼똥[兔糞] 같다고 말한 것과 똑같은 청맹과니의 소견인 것이다.

### 〈산호가·비취병〉 〈대팽두부〉

완당이 칠십일과라고 낙관한 작품은 현재 알려진 것이 대여섯 점 된다. 그런데 그 유작들이 전·예·해·행·초 모두 각체로 남아 있어 참으로 우연치고는 너무도 신기하다는 생각조차 든다. 그 중 〈산호가·비취병(珊瑚架 翡翠瓶)〉도 372은 완당의 행서로 칠십 노경의 스스럼없고 허화로운 경지를 보여준다.[그림 17 참조]

더 없이 좋은 붓과 산호 책거리	無雙彩筆珊瑚架
제일 가는 이름난 꽃과 청자병	第一名花翡翠瓶

그리고 협서로 쓴 화제를 보면 다음과 같다.

평지 절간에서 산을 바라보니 심히 기이한 것이 마치 미우인(小米)의  
〈청효도(淸曉圖)〉 같다. 신운이 감도는 것이 마치 빛나는 것만 같다. 팔  
뚝을 들고 요선을 위해 쓰다.

野寺山眺甚異 如小米淸曉圖 神王氣鬪 若有所照癸於運腕書爲堯僊.

화제로 미루어 봉은사에서 수도산(修道山)을 바라보고 쓴 것 같으며, 북  
청시절 애제자였던 유요선에게 주기 위해 썼기 때문에 종이도 최고급이고  
글씨도 맘 먹고 쓴 것 같다. 당시 유요선은 완당을 뵈기 위해 북청에서 일  
부러 서울로 올라와 완당은 물론 김석준·윤정현 등과 교류하고 있었다. 이  
글을 보면 완당은 죽는 그 해 그 순간까지 예경(藝境)에 파묻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칠십일과시절 완당이 남긴 마지막 예서체 대련인 〈대팽두부(大烹  
豆腐)〉는 결국 완당이 살아온 인생의 종착점이 어디였는가를 말해주는 명  
작 중의 명작이다. [그림 18 참조]

그것은 글 내용과 글씨 형식 모두에서 그렇다.

최고 가는 좋은 반찬이란 두부나 오이와 생강과 나물 大烹豆腐瓜薑菜  
최고 가는 훌륭한 모임이란 부부와 아들딸과 손자 高會夫妻兒女孫

이렇게 평범한 것의 가치를 극대화시켜놓고는 자신이 그렇게 말한 심정  
을 협서로 다음과 같이 적어놓았다.

이것은 촌 늙은이의 제일가는 즐거움이다. 비록 허리춤에 말[斗]만한 큰 황금도장을 차고 밥상 앞에 시중드는 여인이 수백 명 있다 하더라도 능히 이런 맛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글씨 또한 글의 내용만큼이나 소박하고 욕심없고 꾸밈없는 순후함으로 가득하다. 그러나 글씨의 골격에는 역사적 연륜조차 느끼게 하는 옛 비문의 줄(拙)함이 뱃속까지 배어 있다. 그러니 엄청난 기교이면서도 그 기교가 드러나지 않고 그저 천연스럽고 순박하게만 보이는 것이다. 그야말로 불계공 줄이고 대교약줄이며 허화로운 경지이다.

이 작품의 협서에는 행농(杏農)을 위해 써준다고 적혀 있다. 행농은 유기환(兪麒煥)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직 누구인지 확인하지 못하였다. 다만 김약슬 선생은 「추사의 선학변」에서 유기환은 완당이 만년에 사랑한 제자였다고 증언했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완당이 유언하기를 “머리 위에 있는 서궤(書櫃)를 행농에게 전하라”고 하여 유기환이 훗날 이를 받아 열어보니 완당 선생의 작품이 가득 들어 있었는데 여기에는 〈대팽두부〉 이외에 〈부람난취(浮嵐煖翠)〉라는 작품도 있었다고 한다. 〈부람난취〉란 황정견(黃庭堅)의 글 속에 나오는 구절로 “아지랑이 피어오르는 봄날의 푸른 산”이라는 뜻이다. 이 글씨는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듯한 가벼운 운필로 매우 아름다우면서 천연스런 정취가 깃들여 있다. 완당은 행농을 위해 썼노라며 노격(老隔)이라고 낙관했다.

〈대팽두부〉는 1940년 무렵에 경매에 출품되었다. 그때 한창 우리 미술품 수집에 정열을 바치며 완당의 명작을 모으고 있던 간송 전형필 선생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작품을 살 생각이었다. 경매에서 이 작품의 예정가는 100원 정도였다고 한다. 그런데 만주에서 사업을 하고 있던 일본인 수집가도 이 작품을 꼭 사겠노라고 경쟁이 붙어 순식간에 100원을 넘어 200원을 호가했고 그 일본인이 300원으로 올리자 간송은 아예 1000원을 불러 마침내 낙찰되었다. 그리하여 이 작품은 일본으로 건너가지 않고 지금 간송미술관

에 소장되어 있다. 당시 쌀 한 섬에 3원이었다고 한다. 본래 최고의 명품은 ‘값이 없는 것(priceless)’이다.

만사에서 2등과 3등 사이는 한 등 차이지만 1등과 2등 사이는 몇 등 차이인지 모르는 것이다. 그것이 천 원이라면 천 원이고 또 1억 달러라면 1억 달러인 것이다. 간송은 바로 이 작품이야말로 값을 따질 수 없는 문화유산임을 알았던 것이다.

### 〈해봉대사 화상찬〉

그 해 5월, 그러니까 완당이 세상을 떠나기 5개월 전 어느 날, 전혀 모르는 스님이 편지를 보내왔다. 편지엔 자신은 호운(浩雲)이라는 중으로 해봉(海鵬)대사의 문도(門徒)인데 스님의 영정을 만들었으니 거기에 화상찬(畫像贊)을 하나 써달라는 부탁이었다.[그림 19 참조]

편지를 받고 완당은 까마득한 옛날 같은 40년 전 일을 떠올렸다. 완당의 나이 30세 되던 1815년 겨울이었다. 해봉스님이 서울 북쪽 수락산 학림암에 있을 때 완당은 산사로 스님을 찾아가 하룻밤을 지새며 공각(空覺)에 대해 일대 격론을 벌인 적이 있었다. 이때 마침 초의가 해봉스님을 모시고 있어 두 사람은 그렇게 만났던 것이다. 그리고 완당은 이때부터 해봉대사의 높은 경지를 존경해왔다.

완당은 편지를 보고 지금 같은 세상에 해봉을 기리는 마음을 갖고 있는 스님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이에 완당은 해봉대사 화상찬을 써주겠다는 답장을 호운스님에게 보냈다.[그림 20 참조]

평생에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홀연 서신을 보내오니 대단히 기이한 일이다. 해봉노사(老師)의 문하(門下)라 하니 인연이 될 만하여 생소한 손님이 불쑥 나타난 것은 아니다. 해봉노사는 나의 옛벗이다. 그 뒤를 잇는 제자가 없다고 들었는데 아직도 영정을 만들어 공양하는 사람이 있는가. 영정을 만

드는 일은 나의 뜻에 맞지는 않으나 신병을 무릅쓰고 글을 써 보낸다. 여타 경우라면 평생에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찬(贊)을 써줄 수 있겠는가. 내 마음껏 써내지는 못한 것 같다. 병세가 심하여 이만 줄인다.

그런 해봉대사였기에 완당은 생의 마지막 기력과 정성을 다하여 <해봉대사 화상찬>을 직접 짓고 써준다.

해봉대사가 말하는 공(空)은  
오온개공(五蘊皆空)의 공(空)이 아니라  
공즉시색(空卽是色)의 공(空)이다.  
혹자는 스님을 공(空)의 종(宗)이라고도 하나 그렇지가 않다.  
혹자는 또 진공(眞空)이라고 하는데 이는 그럴듯하게 들린다.  
그러나 진(眞)이 공(空)을 엮댄다면 그 또한 해봉의 공이 아니다.  
해봉의 공은 곧 해봉의 공일 뿐이다. ...

지금도 생각나는 것은, 눈이 가늘고 검어서 푸른 눈동자가 사람을 꿰뚫은 듯한 해봉의 모습이다. 그는 비록 재가 되었지만 푸른 눈동자는 아직도 살아 있다. 30년이 지난 지금 쓰는 이 글을 보고서 꺄꺄 웃는 모습이 삼각산과 도봉산 사이에서 뿔 때처럼 역력하구나.

‘해봉대사 영정에 제(題)하다’라고 한 이 글은 선계(禪偈)를 방불케 하는 오묘한 선미(禪味)조차 느껴진다. 특히 이 글은 한문 원문으로 읽을 때 “공(空)... 공(空)... 공(空)...” 소리를 내는 리듬감 때문에 더욱 절묘하다.

해봉지공혜(海鵬之空兮), 비오온개공지공(非五蘊皆空之空), 즉공즉시색지공(卽空卽是色之空) ...

이 글은 『완당전집』에 실려 있지만 완당의 몇 살 때 글인지에 대해서는 밝혀져 있지 않다. 나는 근래에 이 글의 원본을 우리 시대의 드문 미술 애

호가인 청관재 조재진 사장이 소장하게 되어 직접 볼 기회를 얻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칠십일과로 낙관되어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작품에는 완당이 호운스님에게 〈해봉대사 화상찬〉을 주면서 쓴 편지와, 훗날 초의선사가 이 화상찬을 보고 깊은 감회에 젖어 지은 발문이 함께 붙어 있었다. 그 반가움이란 거의 숨이 막혀 질식할 뻔한 것이었다. 나는 지금도 이 작품의 복사본을 표구해 내 책상머리에 붙여놓고 밤낮으로 바라보고 있다.[그림 21 참조]

〈해봉대사 화상찬〉은 완당의 해서체 글씨 중 최고의 명작일 뿐 아니라 완당의 예술이 어느 높이까지 올랐는가를 말해주는 기준작이 될 만하다. 혹자는 완당의 만년 글씨가 졸(拙)한 맛이 강한 것은 그가 제주도 시절부터 눈꽃[眼花]이 피었다며 고통을 호소한 백내장 때문인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내놓기도 했는데 그런 이의 의심을 단숨에 벗겨주는 정교하고 치밀한 글씨이다.

이에 반해 5월 12일자로 찍어 있는 호운스님에게 보낸 편지는 완당의 행초(行草) 중 가장 휘갈겨쓴 글씨로, 어떤 거리낌도, 어떤 욕심도 없으면서 필법의 달인만이 보여주는 능숙함이 유감없이 구현되었으니, 과연 완당의 간찰 중 최고의 명품이고, 또 완당 행초의 최고 경지를 보여준다. 추사체가 다다른 종착점은 마지막 절필 〈판전〉까지 포함하여 모두 칠십일과 병중작들인 셈이다.

## 권돈인에게 보낸 장찰

완당이 만년에 과천 집과 봉은사를 오가며 어떤 생활을 하였는가는 권돈인이 칠순을 넘긴 고령에 금강산을 다녀온 뒤 보낸 장문의 편지 속에 아주 넉넉히 나타나 있다. 『완당선생전집』 중 권돈인에게 보낸 제21신인 이 장찰은 무슨 사연인지 내용이 뒤바뀌어 있지만 그 하나하나의 사연에서 완당 만년을 생생히 엿볼 수 있다. 완당은 이렇게 인사말을 꺼내며 세월의 무상

함을 말했다.

5~6일 동안 모시고 기쁘게 지낸 것이 10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일 뿐만 아니라, 비록 10년 이전의 성장(盛壯)하던 때에도 일찍이 이토록 다사롭게 위로해주심을 입은 적이 없었으니 지금을 예전에 비교한다면 과연 지금이 예전보다 더 진보함이 있는 것이겠습니까? 실상은 역시 지금이 예전보다 진보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 예전보다 진보된 것은 곧 예전을 회상하고 지금을 헤아려볼 때 충분히 한번 개탄할 만한 것이 있는 것뿐입니다.(전집 권3, 권돈인에게, 제21신)

그리고 헤어진 뒤 안부와 자신의 처량한 신세를 이렇게 말했다.

돌아온 이후로 여러 날이 지났으니, 강 위의 구름과 강가의 나무들이 점차로 더욱 텅비고 쓸쓸해질 것입니다. 삼가 생각건대, 산중에 나뭇잎은 다 떨어지고 늪지대는 황량할 터인데, 겨울을 향하는 이때에 균체후(勻體候)는 순조로이 많은 복을 받으셨습니까?... 계다가 이토록 심한 추위와 심한 눈은 북녘에서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사는 집은, 처마는 얇고 다 흠벽[單壁]이어서 바로 하나의 얼음집이요 눈구덩이인데, 겹하여 한 점의 햇빛도 들어오지 않으므로 머리를 감히 이불 밖으로 쳐들지 못하고 손도 감히 토시[袖套] 속에서 내놓을 수가 없으며, 벼루와 붓이 뽕뽕 얼어붙는 것에 대해서는 또 헤아릴 겨를도 없습니다. 그리하여 자신도 모르게 그러저럭 세월을 끌어 오늘에 이르고 보니, 이 해에 한번 배알하려던 처음 먹은 마음을 끝내 이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완당은 이어 봉은사에 가서 글씨 쓴 얘기를 소식 겸 늘어놓았다.

달포 전의 절 행차[寺謁] 때에는 이미 재차 합하를 방문하지는 못하고 절을 향해 용감하게 곧바로 가니, 소나무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금상(金像)을 환히 밝히고 있었습니다. 이때 향등(香燈)을 켜고 포갈(蒲褐)을 입은 승려 서넛이 있어 충분히 먹을 갈고 종이를 펴고 하는 일을 도와줄 만하였습니

다. 그리하여 장시간 써서 가득 쌓인 병풍서(屏風書)와 연구(聯句) 등을 다 수습하고 보니, 크고 작은 양목(洋木, 唐木)이 수백 척이나 되고 지판(紙版)의 편액서(扁額書)도 이와 같았습니다. 이렇게 3~4일 동안 멋대로 마구 붓을 휘둘러 답답함을 일체 시원하게 풀었습니다. 또 풍문을 듣고 와서 농지거리하는 산승(山僧) 약간의 무리가 있어 오는 대로 수응수답을 하다 보니, 먹이 다하여도 팔의 힘은 아직 남아 있어 껍 일소(一笑)를 느꼈습니다.

완당은 이렇게 쓴 글씨 중에서 하나를 나무 현판에 새겨 선물하며 자신 글씨의 괴함을 스스로 변명하듯 이렇게 말했다.

졸자(拙字)의 모본(模本)에 대해서는 박군(朴君, 아마도 박혜백)이 이미 공정을 마쳤으므로, 이에 감히 원본과 아울러 바칩니다. 또 내가 세한(歲寒) 한 편을 써서 목은 맹약을 펴기는 했으나, 자체(字體)의 모양이 세속의 법식에 들지 않았으니, 또 한 가지 비방을 얻게 될까 염려됩니다. 그러나 혹 합하께서는 보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며, 산신령께서도 꾸짖지 않으시기만을 바랍니다. 지난날 벽에 낙서한 것도 이미 많은데, 부처님 머리에 똥 바르는 것이 무어 해로울 게 있겠습니까.

그리고 『유마경』을 판각한 한 승려가 왔기에 일부를 이미 보내 드렸음과 또 봉은사에서는 지금 『화엄경』을 인출하는 작업이 진행중임을 기특한 소식인 양 전하고는 초열흘날 만나 산놀이를 가자는 전달을 받아 그 기쁘고 기대됨을 이렇게 말했다.

한 밀승(蜜僧)이 양근(楊根)으로부터 강을 건너와서 합하의 초열흘날 산놀이 약속에 대하여 매우 실답고도 분명하게 전해주시니 우러러 하례하는 마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우러러 하례하는 까닭은 신기(神氣)가 왕성하시어 이전 병기(病氣)의 침범이 없는 것이 그 첫째이고,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해탈 삼매(解脫三昧)에 들어가신 것이 그 둘째이고, 마치 소장(少壯) 시절처럼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용감하게 곧바로 결단하신 것이 그 셋째입니다. 이것이 어찌 모두 노쇠한 사람으로서 해낼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

다만 이 산에 들어가는 사람은 또한 놀이하는 방술이 있는데, 그것은 대

강 세 가지에 벗어나지 않으니, 바로 도가(道家)의 신선놀이와 불가(佛家)의 놀이와 유가(儒家)의 놀이입니다. 그러므로 유가의 인산지수(仁山智水)와 도가의 옥약금추(玉?金樞)와 불가의 화엄누각(華嚴樓閣)은 모두 그 성(性)에 가까운 것으로서 각각 경우에 따라 다를 뿐, 산은 본디 다름이 있지 않는 것이니, 능히 여기에 얽매이지 않고 (유·불·선의 대가들이 어울렸다는) 여산(廬山)의 진면목을 얻는 것이 또 과연 어떻겠습니까?

완당은 이렇게 글씨를 쓰고 산놀이를 즐기며 만년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이런 허허로움 속에서 글씨에 대해서만은 치열한 작가정신을 보이고 있었음을 이 장찰 속에서 엿볼 수 있는 것이다.

## 봉은사의 완당

완당의 살아 생전 모습을 르포로 전해주는 글은 아주 드물다. 그런데 정말로 진기하게도 완당이 세상을 떠나기 5개월 전에 상유현(尙有鉉)이라는 분이 쓴 「추사방현기(秋史訪見記)」가 있어서 우리는 완당의 고고한 마지막 모습을 생생히 그려볼 수 있다. 이는 김약슬 선생이 인사동 고서점에서 필자 미상의 상태로 처음 발견하여 그것이 흘러나온 말죽거리(양재동)를 찾아가 상유현의 글임을 밝혀내고 그의 후손을 만나 전후 사정을 소상히 알아낸 다음, 1955년 당시 을유문화사에서 간행하고 있던 잡지 『도서(圖書)』 제5호에 소개하여 비로소 세상에서 빛을 보게 된 것이다.

김약슬 선생은 일찍이 「추사의 선학변」이라는 중후한 논문으로 완당 연구에 크게 기여한 분인데, 선생이 이 글을 찾아내는 과정은 완당이 무장사 비편을 찾아내는 것 못지않은 감동을 준다. 완당을 연구하다 보면 완당의 그런 모습을 배우는 것인가, 아니면 그런 분이기에 완당을 연구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상유현은 본관이 목천(木川), 호는 명교(明橋)라 했으며, 한의사의 아들로 평생 관직을 가진 적은 없으나 본래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고 또 조선 팔

도를 안 다닌 데 없이 유람했으며 20년간 중국을 출입하며 청나라 사람 탕상헌과 의형제를 맺었다고 한다. 그의 생업이 무엇이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손자 상철(尙喆) 역시 한약방을 했다는 사실로 미루어 아마도 가업을 이어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전수만록(顛手漫錄)』이라는 저서를 남겼는데, 바로 그 속에 「추사방현기」가 들어 있다. 그는 글머리에 완당 선생을 찾아가게 되는 경위부터 밝히며 시작했다.

내가 젊었을 때 병진년(丙辰年, 1856) 봄과 여름 사이에 간암(磻菴)·어당(醵堂)·단번(檀樊) 세 어른이 과천의 반곡(盤谷)에 계신 식암(寔庵) 선생 댁에 와 주무시고, 봉은사에 가셨다. 추사 선생을 뵈러 간 그때 선생은 절에 머무르고 있었다. 식암공도 같이 갔고 나도 모시고 따라갔다.

여기서 어당은 이상수로, 그는 이미 북청으로 유배가 있는 완당을 찾아간 적이 있는 분으로 침계 윤정현의 문인이며, 단군 이래 최고의 금강산기행문으로 손꼽히는 『동행산수기(東行山水記)』의 저자이다. 그리고 단번·간암·식암은 어당의 시문에 자주 나오는 벗들인데, 누구인지 아직 밝혀내진 못했지만 윤정현의 제자들임은 알 수 있으니 상유현은 완당의 손자 제자쯤 되는 셈이다. 상유현은 먼저 완당이 기거하는 봉은사 동편 모습부터 아주 정밀하게 묘사해놓았다.

큰 방의 남쪽 벽 아래 나무로 가옥(假屋) 한 칸을 짓고, 사방에는 장자(障子)가 없고, 앞은 반쯤 걷어올린 휘장을 드리웠다. 가옥 안을 보니 화문석을 깔고, 자리 위에 꽃담요를 깔고, 담요 앞에 큰 책상을 놓고, 책상 위에는 벼루 한 개가 뚜껑이 덮인 채 놓여 있고, 곁에 푸른 유리 필세(筆洗)가 있고, 또 발이 높은 작은 향로가 있어 향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또 필통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크고 붉으며, 하나는 작고 희었다. 큰 필통에는 큰 붓이 서너 개 꽂혀 있고, 작은 필통에는 작은 붓이 여덟아홉 개 꽂혀 있었다. 그 사이에 백옥으로 만든 인주함(印朱盒) 한 개와 청옥 서진(書鎭) 한 개가 놓여 있다. 책상에는 또 큰 벼루 한 개가 있어 먹을 갈아 오목한

못을 채웠고, 왼편에 목반(木盤) 하나가 있어 도장 수습 방[穎]이 크기가 고르지 않게 놓여 있고, 바른편에 붉은 대나무로 만든 작은 탁자[紫竹小卓]가 한 개 있는데 단 위에는 김[비단]과 생초(絹?)와 지물(紙物)이 가득 꽂혀 있었다.

지금 예산의 추사고택 사랑채에 완당 살아 생전의 분위기를 재현해놓은 것은 대개 이 글에 따른 것이다. 이어 상유현은 완당의 인상을 더없이 섬세하게 묘사했다.

방 가운데 노인 한 분이 앉아 계셨는데 신재(身材)가 단소(短小)하고 수염은 희기가 눈 같고 많지도 적지도 않았다. 눈동자는 밝기가 칠같이 빛나고, 머리카락이 없고, 중들이 쓰는 대로 짠 원모(圓帽)를 썼으며, 푸른 모시, 소매 넓은 두루마기[周衣]를 헤치고 젊고 붉은 기가 얼굴에 가득했고, 팔은 약하고 손가락은 가늘어 섬세하기 아녀자 같고, 손에 한 줄 염주를 쥐고 만지며 굴리고 있었다. 제공들은 배례(拜禮)를 하였다. 몸을 굽혀 답하고 맞는데, 그가 추사(秋史) 선생인 줄 가히 알 수 있었다. 전에 듣건대 추사 선생이 다른 시대 사람[異代人] 같다 하여 눈을 씻고 자세히 보았으므로 그 기구(器具)와 얼굴이 아직도 뚜렷하게 남아 있다.

여기서 우리는 비로소 완당의 모습을 생생하게 엿볼 수 있으며, 그 정갈한 성격과 분위기도 느낄 수 있다. 그런데 상유현의 예리한 눈은 마침내 완당이 이미 써놓은 서예작품에까지 이르러 “ 동편 가장자리 불탁(佛卓) 아래 옥색 화전(華?) 서련(書聯) 세 짝을 펴놓고 방금 별에 쬐어 먹 마르기를 기다리고 계셨다” 며 석 점의 대련 작품의 내용까지 기록해놓고 있으니 상유현 또한 당대의 금강안이었던 모양이다.

〈봄바람 같은 큰 아량은 능히 만물을 받아들이고, 가을 물살 같은 문장은 티끌에 물들지 않으리라.(春風大雅能容物 秋水文章不染塵)〉

〈석간석 푸른 이끼는 어린 사슴을 길들일 만하고, 돌밭 봄비에 인삼을

심노라.(澗戶蒼苔馴子鹿 石田春雨種人蓼)>

<노국(澗國, 송나라 文彦博)의 만년은 오히려 건강했고, 여단(呂端, 송나라 사람)은 큰일을 흐지부지 않았다.(澗國晚年猶矍鑠 呂端大事不糊塗)>

이 석 점의 대련 중 <춘풍대아>는 간송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만년의 명작으로, 해서의 단정함과 행서의 편안함이 함께 어우러져, 글 내용대로 봄바람 같은 넓은 도량을 말함에는 바람 풍(風)자가 부드럽고, 가을 물살 같은 문장을 씬에는 가을 추(秋)자에 자못 준엄함이 있다.[그림 22 참조]

특히 이 작품은 주황빛 냉금지가 아름답게 빛나고 떡빛의 광택이 아직도 남아 있어, 많은 완당 팬들의 사랑과 상찬을 받고 있다. 사실 완당의 작품 중에 이처럼 봄바람 같고 가을 물살 같은 작품이 또 어디 있던가. 기괴함도 아니고 평범함도 아닌, 그 모두를 아우른 작품, 그것이 완당의 참 노경(老境)이었다.

「추사방현기」는 이윽고 완당의 목소리를 전해준다. 완당은 찾아온 제공(諸公)에게 윤정현의 안부를 물었다.

“ 그래, 침계공은 기거가 편하시냐?”

이 대목을 읽는 순간, 나는 기록문학가로서 상유현이라는 분의 탁월함에 다시 한 번 감탄했다. 상유현은 아주 평범한 인사말 한마디까지도 기록할 줄 아는 뛰어난 문필가였다. 김약술 선생도 컷가에 완당의 육성이 들리는 듯한 환상조차 일어났다고 했다.

상유현은 이어 완당이 이때 스님들과 똑같이 발우(鉢盂) 공양을 하고 계셨던 것을 상세하게 기록하였고, 이어서 자화참회(刺火懺悔)하는 모습까지 증언하였다.

늙은 스님 한 분이 댓가지를 하나 가지고 들어왔다. 그리고 댓가지 끝에 작은 종이통 하나를 매달았다. 통 가운데에는 바늘과 같은 까스랑이[針芒]가 있었다(베 올을 초칠해 짧게 자른 것이다). 한 개를 골라 공의 바른팔 근육 위에 곧추세웠다. 작은 스님이 석유항에 불을 붙여 가지고 와서 까스랑이 끝에 붙였다. 타는 것이 촛불 같았으나 바로 꺼졌다.

나로서는 평생 처음 보는 일이었다. 스님이 나간 후 공들에게 물었다. “그 하시는 것은 무슨 뜻이고, 무슨 법이며, 뭐라고 부릅니까?”

어당이 말씀하기를, “이는 불경에 있으니 ‘자화참회(刺火懺悔)’가 곧 이것이라. 또 수계(受戒)라고도 부른다. 무릇 중이 되면 비로소 삭발(削髮)한다. 스승의 계를 받을 때도 이와 같다. 이는 모두 더러운 것을 사르어 버리고 귀의청정(歸依淸淨)하는 맹세이니 불법은 그러하니라.”

나는 처음으로 이 일을 보았고, 또 이 말을 들으니 비록 말하지는 않았으나 심히 의아스럽고 괴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말하자면 추사처럼 높고 귀한 분이 어찌 이렇게 불심(佛心)에 미망되었는지 늘 의심하였다.

상유현은 나중에 가서야 한나라·당나라의 명류재사(名流才士) 중에 이런 경우가 많음을 알고 이해하게 되었다고 술회하였다. 사실 완당은 그때 불교에 크게 ‘미망’되어 있었다. 그래서 유학자들의 눈에 완당은 겉은 유학자지만 속은 불교에 젖어든 것으로 비쳐, 혹자는 완당을 ‘외유내불(外儒內佛)’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완당은 이런 비판과 눈총에 개의치 않았고 오히려 유교와 불교를 갈라 보려는 태도를 비판하였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완당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곧잘 했지만 남들이 이를 비판하지 못했다”고 한 것이다. 완당의 나이 71세, 이제 늙고 병들어 자신의 그림자 보는 것조차 스스로 부끄럽게 여겨졌다는 노(老) 완당. 반년 뒤에 세상을 떠난 완당에게 불교가 그렇게 절실히 다가온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종교란 포이어바흐의 정의대로 인간이 죽음을 위하여 만들어낸 사회적 형식일 터이니, 해동의 유마거사로 불리던 완당이 부처님께 귀의한 것은 결코 ‘미망’된 것도, 이상스러운 것도 아니었다.

## 절필: 봉은사 판전

1856년 10월, 완당은 그때도 봉은사에 있었다. 당시 봉은사에서는 남호(南湖) 영기(永奇 1820~1872)스님이 『화엄경』, 정확하게는 『화엄경수소연의본(華嚴經隨疏演義本)』 80권을 직접 손으로 베껴 쓰고 이를 목판으로 찍어 인출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완당은 이미 전부터 봉은사의 불경 인출작업을 옆에서 지켜보아왔다. 완당은 일찍이 권돈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다.

또 한 승려 영기(永奇)는 자칭 남호(南湖)라는 자로서, 연전에 『아미타경(阿彌陀經)』과 『무량경(無量經)』을 판각하여 또한 이미 강상(江上)에 전달했던 자이니, 아마 생면(生面)은 아닐 듯합니다. 이 두 승려가 대원(大願)을 발하여 『화엄경』을 간행하려 하고 있으니, 그 뜻이 또한 가상합니다.(전집 권3, 권돈인에게, 제21신)

이 화엄경판이 마침내 완성되어 경판전을 짓고도 보관하게 되니 그 현판 글씨를 완당에게 부탁한 것이다. 그때가 9월 말이었다.

완당은 병든 몸임에도 불구하고 글자 하나의 크기가 어린애 몸통만한 대자로 <판전(板殿)> 두 글자를 욕심 없는 필치로 완성하였다. 그리고 옆에 낙관하기를 “칠십일과 병중작(七十一果 病中作)”이라고 했다. 즉 “71세 된 과천 사람이 병중에 쓰다”라는 뜻으로 이 글씨가 결국 완당의 절필(絶筆)이다.[그림 23 참조]

<판전> 글씨를 보면 추사체의 줄(拙)함이 극치에 달해 있다. 어린아이 글씨 같기도 하고 지팡이로 땅바닥에 쓴 것 같기도 한데 줄한 것의 힘과 멋이 천연스럽게 살아 있다. 이쯤 되면 불계공줄도 뛰어넘은 경지라고나 할까. 아니면 극과 극은 만나는 것이라고나 할까. 아무튼 나로서는 감히 비평

의 대상으로 삼을 수조차 없는 신령스런 작품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봉은사 〈판전〉의 현판 액틀에는 작은 글씨로 누군가가 써놓은 오래된 글씨가 하나 있었다. 그 내용은 완당이 이 글씨를 쓰고 난 사흘 뒤에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다. 그것이 완당의 최후이다. 그날은 병진년 10월 10일이다.

완당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 이상의 다른 이야기나 기록이 없다. 그렇다면 하나의 의문이 남는다. 이 대작은 아무리 봐도 사흘 뒤 세상을 떠날 노인이 감당할 글씨가 아니다. 그러나 뒤집어 생각해보면 생의 마지막 기력을 〈판전〉 두 자를 쓰는 데 다 바쳤다는 얘기도 된다. 어쩌면 생의 마지막 창조적 열정을 알뜰히 모아 일구어낸 마지막 불꽃인 셈이다. 그렇다면 완당의 최후는 전장에서 쓰러진 장군의 죽음처럼 장렬한 것이다.

나는 이 〈판전〉 글씨를 늘상 보며 살아왔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봉은사와 가까워 일 없이 산보삼아 가는 일도 많다. 그것이 인연이 되어 나의 집사람은 봉은사 법륜보살도 지냈고 돌아가신 선친의 49재도 여기서 지냈다. 봉은사는 내게 그런 곳이다.

근 20년 전의 일이다. 어느 날 틈을 내어 봉은사에 다시 이 글씨를 보러 갔는데 그날은 〈판전〉 글씨가 아주 어린애 글씨처럼 보였다. 나는 행여 오래 보고 있으면 저 대교약졸의 그윽한 멋이 떠오를까 기대하며 명상하듯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다. 그러나 웬지 완당이 8살 때 부친에게 보낸 편지 글씨와 대단히 닮았다는 느낌만을 받았을 뿐이다. 글자의 구성도 그렇거니와 획의 뻗침도 그렇게 느껴졌다. 참으로 신기한 느낌이었다.

인간은 그렇게 원초로 돌아가는 것인가. 그런 생각에 잠겨 좀처럼 봉은사를 떠나지 못했다. 그 바람에 그날 저녁 동주 선생과의 약속에 늦고 말았다. 나는 지각을 용서받기 위해 봉은사 〈판전〉 글씨를 보다가 꼭 완당 8살 때 글씨 같다는 생각이 들어 거기에 취해 오래 머물다 늦었다고 말씀드

렸다. 그러자 동주 선생은 한참 무엇인가를 생각하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다.

“ 우리 아버님은 아흔여섯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본래 아버님은 어려서 경주와 대구에서 자랐기 때문에 경상도 사투리를 썼는데 젊어서 서울로 올라와 사시게 되니까 경상도 말투는 다 없어지고 서울말을 하게 되어 사람들은 서울 사람인 줄로만 알곤 했죠. 그런데 돌아가시던 그 해 어느 날 갑자기 아버님은 경상도 사투리를 다시 쓰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는 얼마 안 되어 운명하셨죠.”

또 하나의 전설적인 얘기가 있다. 이승만 대통령은 유언을 남기지 못하고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진실은 그렇지 않다. 이승만은 하와이에 망명해 있을 당시 부인 프란체스카와 쓸쓸히 지냈다. 그들은 항상 영어로 대화했다. 프란체스카가 한국어를 할 줄 몰랐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승만은 운명할 때 침상에 누워 프란체스카를 바라보며 무엇가를 한국어로 힘들여가며 유언을 남겼다고 한다. 그러나 프란체스카가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해, 그 유언은 세상에 전해질 수 없었다.

인생은 그렇게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그렇다면 완당의 〈판전〉 글씨도 정녕 그런 근원으로의 회귀였던가?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 나무(南無) 완당거사 마하살.”

## 부록 참조 그림 목록

1. <시골집 봄날>의 첫 면과 끝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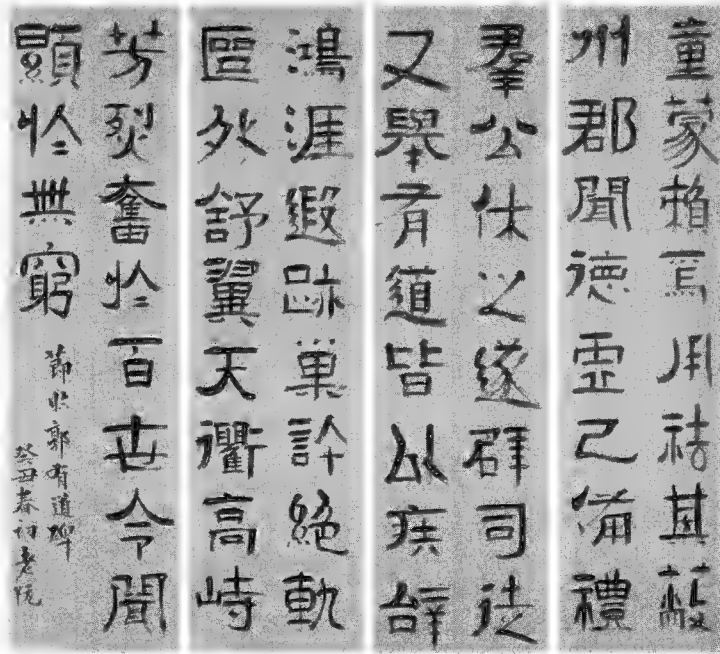
2. 산승심해



3. 유천회해



4. 광유도비 임시



5. 광유도비의 탁본 부분



6. 명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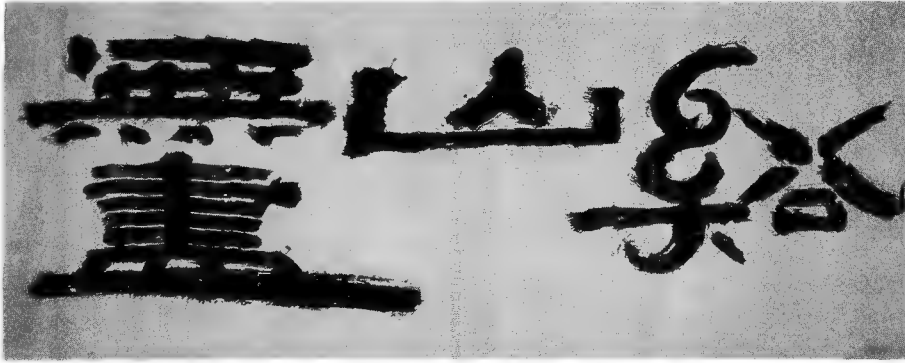
7. 백석신군비 탁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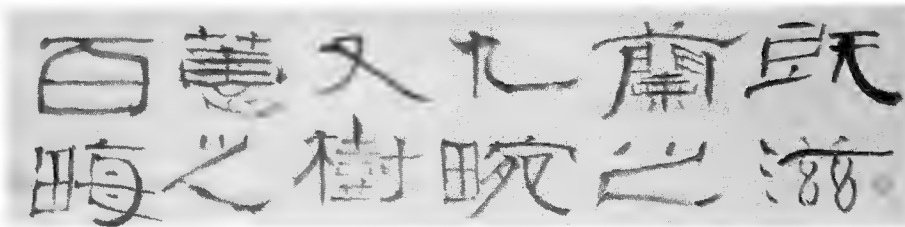
8. 사야



9. 계산무진



10. 난원혜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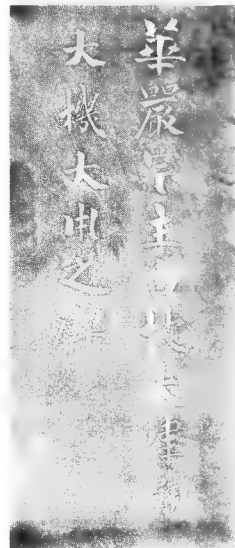
11. 산중당유객 시첩



12. 백파선사비



13. 백파선사비문(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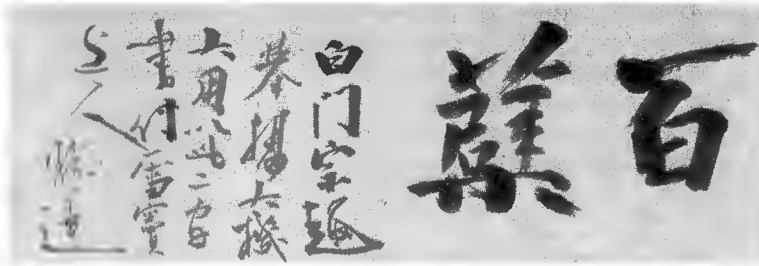
14. 백파선사비문(뒤)



15. 백파선사비문 우일본, 구름본



16. 백벽



17. 산호가, 비취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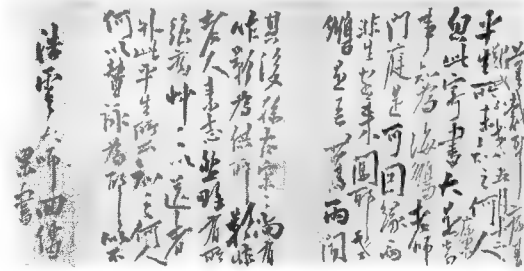
18. 대평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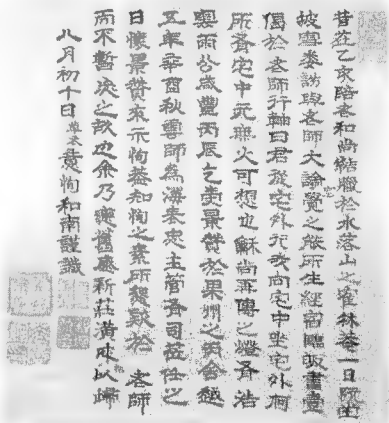
19. 해봉대사 영정



20. 호운대사에게 보내는 편지



21. 해봉대사 화상찬 발문



22. 춘풍대아



23. 판전

